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 연구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A Study for Temporary Use of Urban Space  
Focused on Collaborative Design :  
The Case of Bogwang-dong, Yongsan-gu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현지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 연구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정진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 현 지

조 현 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초빙심사위원	_____	(인)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 연구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 현 지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조경학과학위  
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지도교수)	_____	(인)
초빙심사위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도시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일방적인 계획이 실제 도시의 일생상을 담는 것과는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통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한편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Temporary uses)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상위 계획이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의 틈, 혹은 공간의 틈새를 매워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배경으로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시적 공간 활용의 특성이 여러 주체의 협력 과정에 기인한다고 보고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바라보았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과 의의를 도출하고, 이후 고려사항을 통해 실제 대상지인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우선 일시적 공간 활용의 성공적인 국내외 사례 8개를 협력 과정 분석과 공간적 분석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해 낸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재발견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시공간들은 낙후되어 주변 지역의 안전과 활력까지 위협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시민의 활동을 담는 장소로 변화시키며 도시의 활력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일시적 공간 활용은 협력을 통해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예전과 같은 신속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도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에는 시민이 실제 공간 활용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도시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저비용으로 시민의 즉

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셋째, 일시적 공간 활용은 비공식적인 대안문화를 증진시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육성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기존의 용도 내에 포함되기 어려운 도시농업 등의 다양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실험실과 같다. 이는 획일화 되어있는 도시의 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며 삶의 방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고려사항에 따라 대상지인 용산구 보광동 지역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일시적 공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의 주체를 육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각 주체간의 협력은 일시적 공간 활용에 필수적이며 특히 성공적인 사례의 경우 공간 활용의 주체가 성장하고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성되었을 경우 일시적 공간 활용은 공간을 이동하거나 확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협의 과정을 수월하게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이 중요하다. 모든 일시적 공간 활용을 공공의 지원 체제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이 직접 도시공간의 활발한 이용을 이끌어냈을 때 공간의 본래 의미인 사회적 접촉이 증진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위를 통한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도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광동과 같은 재개발 예정 지역의 쇠퇴는 국내 개발 문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개발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존 혹은 개발의 두 측면만을 놓고 관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시적 공간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지만 최근 도시설계, 조경분야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논의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도시 이용자를 위한 도시공간, 시민을 주체로 한 도시공간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도시 유휴공간의 재조명 등의 논의들이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이후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기초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의의로 삼는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개발 속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보았을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예상하며 본 연구가 그를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되길 바란다. 이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거나 미흡하게 언급된 다양한 측면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 
- 주요어: 일시적 공간 활용, 도시공간, 유휴공간, 공공공간, 협력적 디자인
  - 학번: 2011-22354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2. 연구의 내용과 흐름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
<b>제2장 현대 도시 환경의 변화와 일시적 공간 활용</b> .....	9
제1절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9
1. 도시재생 개념의 부각 .....	9
2.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계획 과정의 중요성 .....	11
제2절 도시공간의 협력적 디자인 .....	15
1. 도시공간의 새로운 접근 .....	15
2. 협력적 디자인의 역할 .....	18
제3절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이해 .....	20
1.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과 범위 .....	20
2. 현대 도시 공간의 일시적 활용과 특징 .....	23
<b>제3장 국내외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분석</b> .....	28
제1절 사례분석의 틀 .....	28
1. 사례 대상 선정 .....	28
2. 사례분석 기준 설정 .....	29
제2절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	34
1. [지역 공동체 활용] 수원시, 대안공간 눈 .....	34
2. [지역 공동체 활용] 서울시, 여성환경연대 .....	42
3.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서울시, 자립음악생산조합 .....	50
4. [무대로서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Rebar .....	61
5. 소결 .....	70

제3절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	74
1. 런던,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Bankside Urban Forest) .....	74
2. 타이페이,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 ‘Taipei Beautiful’ Plan) .....	85
3. 런던,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Making Space in Dalston) .....	89
4. 로잔, 로잔 자텡 2009 (Lausanne Jardins 2009) .....	97
5. 소결 .....	102
제4절 소결: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 .....	106
1. 가능성 찾기 .....	108
2. 가능성 성장 .....	111
3. 일시적 공간 활용 구체화 .....	113
<b>제4장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용산구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b>	<b>115</b>
제1절 대상지 이해 .....	115
1. 이태원 문화권의 이해 .....	115
2. 보광동 대상지의 이해 .....	118
제2절 가능성 찾기: 이태원 문화권역 확대와 보광동의 변화 .....	125
1. 공간 발굴 : 보광동의 공공공간과 유희공간 .....	125
2. 인적 자원 발굴 : 보광동 사회 구성원의 변화 .....	129
제3절 가능성 성장 : 보광동의 문화주체 육성 과정 .....	137
1. 지역과 관계 맺기 과정 .....	137
2. 지속적인 관계 맺기 방법 .....	140
제4절 일시적 공간 활용 구체화 : 보광동의 가능성 .....	143
1.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	143
2.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 .....	146
제5절 종합 :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모색 .....	154
<b>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b>	<b>156</b>
참고문헌 .....	160
부록 .....	163
Abstract .....	167

## 표 목 차

〈표 1-1〉 일시적 공간 활용의 선행연구 .....	8
〈표 2-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주요사업 .....	10
〈표 2-2〉 전통적(합리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특성 비교 .....	13
〈표 2-3〉 이용자 측면에서 본 공공공간의 범위 .....	16
〈표 2-4〉 일시적 공간 활용의 등장 과정 .....	21
〈표 2-5〉 <i>Temporary Urban Spaces</i> 에서 구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	26
〈표 2-6〉 <i>Urban Pioneers</i> 에서 구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	27
〈표 2-7〉 <i>The Temporary City</i> 에서 구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	27
〈표 3-1〉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분석 대상 선정 .....	29
〈표 3-2〉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 주체와의 관계 .....	31
〈표 3-3〉 일시적 공간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	31
〈표 3-4〉 각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개요 .....	32
〈표 3-5〉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	33
〈표 3-6〉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 유형 .....	33
〈표 3-7〉 2007년 이후 새로 입주한 문화관련 업소 현황(2011년 말 기준) .....	39
〈표 3-8〉 행궁동 레지던스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39
〈표 3-9〉 한뼘 레지던스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40
〈표 3-10〉 문래도시텃밭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46
〈표 3-11〉 홍대텃밭 다리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47
〈표 3-12〉 마르쉐@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48
〈표 3-13〉 동교동 두리반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55
〈표 3-14〉 한남동 클럽 꽃땅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56
〈표 3-15〉 석관동 클럽 DGBS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57
〈표 3-16〉 명동 카페마리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57
〈표 3-17〉 파킹 데이 프로젝트(PARK(ing) Day Project)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64
〈표 3-18〉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66
〈표 3-19〉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67
〈표 3-20〉 워크렛(Walklet)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68

〈표 3-21〉 쇼플레이스 트라이앵글(Showplace Triangle)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69
〈표 3-22〉 각 사례에서 ②공간소유주와의 협상 /운영체제 학습의 단계 .....	73
〈표 3-23〉 리도(Lido)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78
〈표 3-24〉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79
〈표 3-25〉 도시 약초 정원(Urban Physic Garden)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80
〈표 3-26〉 더 리유니온 도시 캠핑(The reUNION Public House)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81
〈표 3-27〉뱅크사이드 온 콜(Bankside on Call)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82
〈표 3-28〉 팝 다운 투 뷰럴 스트리트(Pop Down to Burrell Street)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83
〈표 3-29〉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88
〈표 3-30〉 달스톤 밀(Dalston Mill)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94
〈표 3-31〉 작시 워크샵(Lyric workshop for Hackney Young Carers)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	96
〈표 3-32〉 계획적 접근에서 일시적 공간의 활용 유형 .....	108
〈표 3-33〉 협력 주체 탐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방법 .....	112
〈표 3-34〉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 유형 .....	113
〈표 3-35〉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	114
〈표 4-1〉 보광동의 노령인구 비율 .....	119
〈표 4-2〉 이태원 지역 외국인 분표 .....	120
〈표 4-3〉 이태원 지역 파키스탄인 분표 .....	120
〈표 4-4〉 보광동의 공공공간 현황 .....	125
〈표 4-5〉 2010년 이후 입점한 상점들 .....	131
〈표 4-6〉 1층에 입점한 보광동의 창작집단 .....	132
〈표 4-7〉 이태원 지역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	135
〈표 4-10〉 보광동의 공간 특성 .....	143
〈표 4-11〉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유형 .....	147
〈표 4-12〉 프로그램 유형별 공간 특성 .....	147

##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흐름 .....	5
〈그림 2-1〉 2000년대에 지정된 서울 내 정비 구역 .....	11
〈그림 2-2〉 유희입체공간의 개념과 관계 .....	18
〈그림 2-3〉 일시적 설치물을 통해 고가도로 밑의 애매한 공간을 활용한 〈폴리 포 어 플라이오버(Folly for a Flyover)〉 .....	24
〈그림 2-4〉 <i>Urban Pioneers</i> 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 표현 .....	25
〈그림 2-5〉 <i>Making Spcae in Dalston</i> 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 과정 표현 .....	26
〈그림 3-1〉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적 과정 분석 틀 .....	30
〈그림 3-2〉 일시적 공간 활용에 개입하는 각 주체 .....	30
〈그림 3-3〉 대안공간 눈 .....	34
〈그림 3-4〉 대안공간 눈의 협력 과정 분석 .....	35
〈그림 3-5〉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대안공간 눈의 역할 .....	36
〈그림 3-6〉 대안공간 눈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들과 주변 지역 맥락 .....	38
〈그림 3-7〉 행궁동 레지던스 .....	39
〈그림 3-8〉 한뼘 레지던스 .....	40
〈그림 3-9〉 여성환경연대의 주요 사업 .....	42
〈그림 3-10〉 여성환경연대의 협력 과정 분석 .....	43
〈그림 3-11〉 여성환경연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위치도 / 그 중 문래도시텃밭과 주변의 문래 창작촌 현황 .....	46
〈그림 3-12〉 문래도시텃밭 .....	46
〈그림 3-13〉 홍대텃밭 다리 .....	47
〈그림 3-14〉 마르쉐@ 혜화동 .....	48
〈그림 3-15〉 자립음악생산조합의 협력 과정 분석 .....	51
〈그림 3-16〉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별 공간 주체 개입 시기 ..	52
〈그림 3-17〉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역할 .....	53
〈그림 3-18〉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주변 환경 .....	54
〈그림 3-19〉 동교동 두리반에서의 공연 모습 .....	55
〈그림 3-20〉 한남동 클럽 꽃밭에서의 공연 모습 .....	56
〈그림 3-21〉 〈51+〉 공연(옥상) .....	57
〈그림 3-22〉 명동 카페마리에서의 공연 모습 .....	57



<그림 3-23> 스콰터(Squater) 문양과 스페인 도심에서 발견된 문양	60
<그림 3-24> 리바(Rebar)의 협력 과정 분석	62
<그림 3-25> 뉴욕의 파킹 데이(PARK(ing) Day)	64
<그림 3-26>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의 퍼포먼스(Performance)	66
<그림 3-27>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의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tory Garden)	67
<그림 3-28> 워크렛(Walklet)의 설치 모습	68
<그림 3-29> 쇼플레이스 트라이앵글(Showplace Triangle)	69
<그림 3-30>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협력주체 간의 특징	71
<그림 3-31> 공간발굴 과정	72
<그림 3-32> 공간소유주와의 협상 / 운영체제 학습 과정	72
<그림 3-33> 안정적 활용 과정	73
<그림 3-34>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대상 구역인 내부지역	74
<그림 3-35> 고가교 하부에 공간을 조성하는 모습과 입주해있는 작업실	74
<그림 3-36>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협력 과정 분석	75
<그림 3-37>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와 주변 지역 맥락	78
<그림 3-38> 리도(Lido)	78
<그림 3-39>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	79
<그림 3-40> 도시 약초 정원(Urban Phytic Garden)	80
<그림 3-41> 더 리유니온 도시 캠핑(The reUNION Public House)	81
<그림 3-42>뱅크사이드 온 콜(Bankside on Call)	82
<그림 3-43> 팝 다운 투 뷰럴 스트리트(Pop Down to Burrell Street)	83
<그림 3-44>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프로젝트 과정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85
<그림 3-45>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	88
<그림 3-46> 달스톤(Dalston)의 거리	90
<그림 3-47>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의 협력 과정 분석	91
<그림 3-48>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와 주변 지역 계획	93

〈그림 3-49〉 달스톤 밀(Dalston Mill) .....	94
〈그림 3-50〉 이스턴 커브 커뮤니티 가든(Eastern Curve Community Garden) .....	95
〈그림 3-51〉 작시 워크샵(Lyric Workshop for Hackney Young Carers) .....	96
〈그림 3-52〉 로잔 자텡 2009(Lausanne Jardin 2009)의 전체 루트(Route) .....	98
〈그림 3-53〉 〈플란톤!(Planton!)〉 .....	99
〈그림 3-54〉 〈황금 정원(Golden Garden)〉 .....	100
〈그림 3-55〉 〈그린 트랩(Green Trap)〉 .....	101
〈그림 3-56〉 〈그린 타워(Green Tower)〉 .....	101
〈그림 3-57〉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협력주체 간의 특징 .....	102
〈그림 3-58〉 인적 자원 발굴 과정 .....	103
〈그림 3-59〉 공동체 육성 과정 .....	103
〈그림 3-60〉 프로그램 투영 과정 .....	104
〈그림 3-61〉 운영체제 학습 과정 .....	104
〈그림 3-62〉 영구적 활용에 반영 과정 .....	105
〈그림 3-66〉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 .....	106
〈그림 3-67〉 각 과정의 목표와 고려사항 .....	107
〈그림 4-1〉 이태원 거리와 보광동 .....	116
〈그림 4-2〉 보광동 .....	119
〈그림 4-3〉 보광로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의 성격 .....	121
〈그림 4-4〉 앤틱가구거리 .....	121
〈그림 4-5〉 보광로의 중심 상업가로 .....	121
〈그림 4-6〉 우사단로 10길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의 성격 .....	122
〈그림 4-7〉 소방서길 .....	122
〈그림 4-8〉 “이태원의 텍사스 촌” .....	122
〈그림 4-9〉 이슬람 거리 전경 .....	123
〈그림 4-10〉 보광동의 소공원 .....	125
〈그림 4-11〉 보광동의 어린이 공원 .....	125
〈그림 4-12〉 보광로 .....	125
〈그림 4-13〉 보광동 주민등록세대수 현황 .....	127
〈그림 4-14〉 보광동 공가 현황 .....	127
〈그림 4-15〉 보광동의 빈 가게 .....	127
〈그림 4-16〉 보광동의 주차장 .....	128

〈그림 4-17〉 보광동 공가가 불에 탄 잔해 .....	128
〈그림 4-18〉 보광동 빈 땅을 활용한 텃밭 .....	128
〈그림 4-19〉 확장되고 있는 이태원 문화권과 새롭게 형성된 상권 .....	130
〈그림 4-20〉 워크스(WORKS)와 길종상가 .....	133
〈그림 4-21〉 이태원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 네트워크(Network) .....	134
〈그림 4-22〉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남골목건축제 / 1회 이태원 주민시장 / 2회 사이사이 프로젝트 / 공간 해밀톤 / SUP의 보광동 공가를 활용한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1 / 스트리트 아트2 .....	136
〈그림 4-23〉 회의 과정 .....	138
〈그림 4-24〉 전시 공간과 옥상공간 .....	138
〈그림 4-25〉 발표와 질의응답 .....	139
〈그림 4-26〉 배포된 인터뷰 잡지 .....	142
〈그림 4-27〉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이용 .....	142
〈그림 4-28〉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	145
〈그림 4-29〉 용산구 청파동 〈동네미술관〉 .....	148
〈그림 4-30〉 달스톤(Dalston)의 질렛트 스퀘어(Gillett Square) .....	150
〈그림 4-31〉 Kanda 프로젝트 .....	151
〈그림 4-32〉 우사단로 10길을 중심으로 한 유희공간/ 공공공간과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Program) 적용을 위한 개념도 .....	152
〈그림 4-33〉 프로그램(Program) 지원 가능성 .....	153
〈그림 4-34〉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과정 .....	155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 들어서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급속한 성장기를 지나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의 요구는 오히려 더욱 다양하게 세분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배경으로 해외에서는 최근 일시적 공간 활용(Temporary us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시적으로 공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주목한다. 공공공간이나 빈 공간 등을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들은 그 이전에도 도시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히 순간적인 이벤트(Event)가 아니라 개발을 기다리는 노후한 공간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행위가 도시에 집약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충전재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는 협력적 디자인 과정을 통해 더욱 잘 드러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도시 공간의 실제 이용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공공에서 주도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일시적 공간을 작동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실제 이용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저비용, 짧은 조성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시 이용자의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공간만 존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많은 도시공간들에 대한 비판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는 최근 변화하는 서울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의 도시설계 방향은 “철거의 시대에서 관리와 사람의 시대로”<sup>1)</sup>라는 표현처럼 재생,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설계에 있어서

---

1) 서울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http://citybuild.seoul.go.kr> (2012-9-7마지막접속)

시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미비한 시점에서 재개발 예정지 현장에서는 사업의 지연으로 계속해서 공가가 늘어나고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시점에 국내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일시적인 공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을 도시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들을 배경으로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의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도시환경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국내외 사례 수집 분석을 통해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세 번째로 도출한 고려사항을 실제 대상지에서 적용해봄으로써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1.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적 디자인의 과정을 살펴본 후 실제 대상지에서 이에 따른 가능성을 고찰해 본다. 앞부분은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사례분석이며, 뒷부분은 이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 분석은 국내외 지역을 다룬다. 국외 사례의 경우에 현재 서울과 도시 개발 상황이 비슷한 대만 타이페이(Taipei) 시의 사례를 포함해 독일 베를린(Berlin)과 영국 런던(London),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지역을 살펴본다. 이 중 특히 영국 런던의 사례는 자생적인 사례와는 달리 시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조성된 일시적 공간 활용이기 때문에 협력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사례들은 대체로 최근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사례들을 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사례연구의 방법은 국외 사례의 경우 도서, 보고서, 웹사이트(Website)나 블로그(Blog) 등을 참조로 한다. 국내 사례의 경우 따로 수집, 분석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답사를 통해 실제 환경을 확인하고 인터뷰를 통해 협력 과정을 조사한다.

이후 적용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한강과 이태원로 사이 지역의 저층 주거지인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보광동이 현재 도시설계의 변화 속에서 의도치 않게 방치되어 공간들이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며 주변 이태원 지역의 영향 등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판단되어서이다.

대상지의 분석과 가능성 모색은 문헌조사, 답사와 인터뷰(Interview)를 통해 진행된다. 이태원은 여러 문화자원이 혼재되어 있는 장소로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문헌을 통해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문화자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상지인 보광동은 저층거주지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 면밀한 관찰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실제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문화주체들을 확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을 거친다.

## 2. 연구의 내용과 흐름

본 연구의 내용은 총 5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1장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2장은 현대 도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로 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고 도시공간에서 협력적 디자인의 역할을 고찰한다. 이후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본다.

제 3장은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례분석의 장으로 분석의 틀은 2장의 일시적 공간 활용의 특징을 통해 도출한다. 사례분석은 협력과정과 공간적 분석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 이후 이를 통해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제 4장은 이를 용산구 보광동에 적용해봄으로서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장이다. 이는 보광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능성 찾기 과정과 보광동의 문화주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가능성 성장 과정, 그리고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구체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제 5장은 이를 정리하는 장으로 연구의 요약과 한계점을 담고 있다.

# 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선행연구 동향

연구의  
방향 설정

# 2장

이론적 고찰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고찰
	도시공간에서 협력적 디자인의 역할 이해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과 특징 고찰

현대 도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 이해

# 3장

사례 분석	
사례분석의 틀	
협력 과정 분석	공간적 분석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 과정	주변 환경과 공간 활용 유형
국내외 사례 분석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과 고려사항	
가능성 찾기	협력 과정의 고려사항
가능성 성장	
구체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  
시사점 도출

# 4장

대상지 적용과 가능성 모색	
용산구 보광동예의 적용	
가능성 찾기 : 보광동의 변화	
가능성 성장 : 문화주체 육성 과정	
구체화 :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에  
대한  
가능성 모색

# 5장

결론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연구 결과  
정리

〈그림 1-1〉 연구의 내용과 흐름



### 제3절 선행연구 동향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는 주로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일시적 공간 활용(Temporary uses)의 개념이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성의 성격을 가진 도시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통해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 사례는 주로 일시적 조경(Temporary landscape)과 가변적 건축, 도시 이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연구 사례는 『일시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유희공간 활용 방안 연구: 홍대복합역사 개발사업 부지를 대상으로』이다. 최혜미는 홍대역사부지를 대상으로 도시 유희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sup>2)</sup>

건축분야에서 현대 도시의 일시성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김효선은 예술비평에서 부정성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인 낮설게 보기, 경계 흐리기, 스티칭하기(Stitching)를 건축에 적용하여 도시에서의 일시적 공간을 구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sup>3)</sup> 정복주는 현대 도시의 일시성에 주목하여 이런 도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스턴트(Instant) 건축에 대한 설계를 제안하였다.<sup>4)</sup> 문정인의 연구도 비슷한 배경에서 쉽게 분해 조립이 가능한 가변적 건축 유형을 제안하였다.<sup>5)</sup> 그 밖에 김미경은 현대 도시의 일시성을 배경으로 1인용 소형주택의 등장에 주목하고 있다.<sup>6)</sup> 위의 건축분야의 연구 사례들은 일시성을 개별 건축 설계의 디자인 콘셉트(Concept)로 해석하고 있다.

- 
- 2) 최혜미, 『일시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유희공간 활용 방안 연구: 홍대복합역사 개발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
  - 3) 김효선, 『일시성을 통한 유동적 공간의 구현 : 잠정적 공간의 옴니버스』,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0)
  - 4) 정복주, 『일시적 도시현상에서의 인스턴트 건축 :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 5) 문정인, 이준욱, 양해중, 이상호, “일시적인 건축물을 위한 가변형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3(2), 2003
  - 6) 김미경, “일시적 거주개념을 적용한 1인용 소형주택의 공간구축유형 및 특성”, 『한국주거학회지』, 23(2), 2012, pp. 115~24.

조경분야에서 일시성에 대한 연구는 경관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시적 경관연출(Temporary landscape)에 대한 해석은 각 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시간과 이벤트, 그리고 조경”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조경의 한 특징으로 바라보고 도시 이벤트 속성으로 일시적으로 연출되는 조경에 대해 연구하였다.<sup>7)</sup> 전우태는 도시 경관의 한 요소로 가설 조경(Temporary landscape)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sup>8)</sup>

도시의 이벤트 공간에 대한 연구는 이벤트의 특성상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시성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경운은 설계형 논문으로 홍대의 가로 디자인을 다루고 있다.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공간적 프로그램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sup>9)</sup> 『현대도시의 이벤트 공간에 관한 연구 : 설치기법적 특성의 도입을 중심으로』는 총체예술로서의 설치미술을 이해하고 이를 공간 계획에 적용함으로써 주변 환경과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서의 공공공간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벤트 공간을 통해 현대 도시의 장소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이는 일시적 프로그램이 도시의 공간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이끌어 내고 공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했으며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의 관점과 유사하다.<sup>10)</sup> 하지만 이 또한 연구의 배경에 그칠 뿐 연구의 결과는 물리적인 설계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최혜미의 연구는 홍대복합역사 부지 설계의 결과에서 홍대 주변의 참여 주체와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설계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홍대복합역사 부지의 물리적 환경 구성에 대한 제안이 더 중심적이다. 반면 본 연구는 한정된

7) 조경진, 김수연, “시간과 이벤트, 그리고 조경”, 『환경과 조경』, 124(2), 1998, pp. 132~7.

8) 전우태, 『우리나라 가설 조경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의 업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9) 고경운, 『도시의 24시간화에 따른 도심 속 이벤트공간 디자인 : 홍대 클럽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10) 승지현, 『현대도시의 이벤트 공간에 관한 연구 : 설치기법적 특성의 도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4)

대상지의 물리적 조성에 주목하기보다 여러 주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연구의 기초에는 타 사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미흡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협력적 디자인 과정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1-1〉 일시적 공간 활용의 선행연구

구분	연구제목	구분	연구자	연도
일시적 도시 환경 조성	일시적 환경조성을 통한 도시 유희공간 활용 방안 연구 : 홍대북합역사 개발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혜미	2012
조경의 일시적 경관연출	시간과 이벤트, 그리고 조경 우리나라 가설 조경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의 업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과 조경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경진, 김수연 전우태	1998 2002
일시적 건축	일시적인 건축물을 위한 가변형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일시적 도시현상에서의 인스턴트 건축 :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정인, 이준욱, 양해종, 이상호 정복주	2003 2005
도시 이벤트 공간	일시적 거주개념을 적용한 1인용 소형주택의 공간구축유형 및 특성 현대도시의 이벤트 공간에 관한 연구: 설치기법적 특성의 도입을 중심으로 도시의 24시간화에 따른 도심 속 이벤트공간 디자인 : 홍대 클럽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	한국주거학회지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 승지현 고경운	2012 2003 2004

## 제2장 현대 도시 환경의 변화와 일시적 공간 활용

### 제1절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 1. 도시재생 개념의 부각

서울은 한국 전쟁 이후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빠른 성장은 경제적 윤택함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급격히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서울의 주택 정책은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해왔다. 이시기에 형성된 시가지의 경우 과밀한 주택, 기반시설 부족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현재에 와서는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sup>11)</sup>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대표되는 서울의 구시가지는 빠르게 아파트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에 형성된 강북의 시가지는 2000년대 들어 “뉴타운” 으로 통칭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일률적인 아파트 개발 현상이 되었다. 뉴타운은 “강북균형발전” 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초기의 목표로 하였으나, 이는 도시 문제를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협소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더 나아가 이런 물리적 환경 개선의 결과가 강남의 개발을 그대로 반영한 초고층 아파트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 이후에도 획일적인 경관과 지역성의 파괴로 비판받아왔다.

이와 같은 비판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이다. Roberts · Sykes는 도시재생에 대하여 “일정 도시지역에서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비전(Vision)과 행동” 이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도시재생이란 단어는 기존에 물리적 개선에 치중했던 재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을 총칭하는 광의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재생의 대상 중 주거지 중심의 재생 방식에 대해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주

11) 김광중,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2010, p. 47.

12) Peter Roberts, Hugh Sykes, *Urban regeneration* (London; Thousand Oaks, 2000)

거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sup>13)</sup> 이는 주로 그 이전에 전면 철거 재개발의 대상지가 되었던 저층 주거지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remodeling)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등이 이러한 주민참여형 주거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표 2-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주요사업

구분	개념	방법	관련법
주거환경관리사업	저층주거지 보존·정비·개량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주민이 주택을 스스로 개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존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정비	건축기준 완화 및 사업절차 단순화하여 활성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기성 시가지 활성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부여	건축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추진, 공공에서 행·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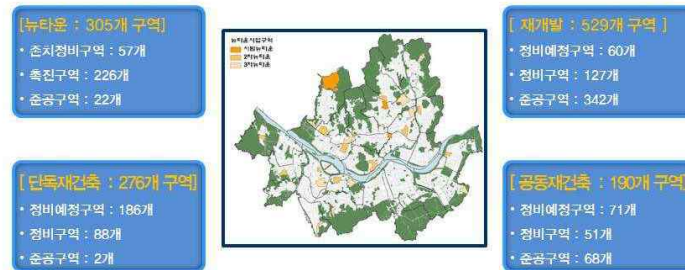
※ 출처 : 서울시 주택도시계획부동산 <http://citybuild.seoul.go.kr> (2012-9-7마지막접속)

이 중 특히 마을만들기는 저층 주거지의 노후한 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다른 정비 사업에 비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마을만들기는 2012년 3월에 들어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들의 협의에 의한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으로의 변화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국내 도시 개발 문화의 여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13) 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단이 분류한 방식으로는 1.도시개발방식, 2.주택개선방식, 3.물리적 개선방식, 4.사회경제적개선방식, 5. 복지개선방식, 6.문화진흥방식, 7.관광진흥방식, 8.산업 유치방식, 9.산업진흥방식, 10.기반시설확충방식, 11.기타방식이 있다.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한국 도시의 쇠퇴실태와 특성” 토론회 자료집, 2010)

14) 2000년대 들어서 서울시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1,300개 구역에 이를 만큼 무분별하게 지정이 되었다. 이는 총 61.6km<sup>2</sup>에 이르며 서울시 주거지역(309.35km<sup>2</sup>)의 20%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범위였다. (진희선,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지 종합관리 방안” 주거지 재생 공청회 자료집(2012), p. 5.)



출처 : 진희선, “사람과 장소 중심의 주거지 종합관리 방안” 주거지 재생 공청회 자료집(2012) p. 5.

〈그림 2-1〉 2000년대에 지정된 서울 내 정비 구역

재생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들어서 대부분의 정비 구역이 해제되었고 해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Paradigm)의 급격한 변화로 서울 내에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구체적 대안이 부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 2.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계획 과정의 중요성

### (1) 협력적 계획이론의 등장

기존 도시개발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한 사람의 계획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계획과 도시민의 실제 삶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성의 파괴와 지역 공동체의 와해 등이 그 결과이다. 이에 시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계획 과정에서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현지 주민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는 계획의 초기부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이후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등장한 것이 협력적 계획이론이다.

기존에 도시 계획을 지배해왔던 합리적 계획이론은 계몽주의, 논리 실증주의, 도구적 합리주의 등에 기초하고 있다.<sup>15)</sup> 합리적 계획이론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15) 오희택, 『문래동의 장소성 변화와 문화 매개 도시재생 가능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단순화에 있다. 제임스 C. 스콧(James C. Scott)은 근대 국가의 도시 계획 설계는 현장 관습 속에 용해되어 있는 “메티스”(Metis : 실행지)를 배제하고, 계획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표준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밝혔다.<sup>16)</sup> 하지만 실제로 현대의 계획 과정은 다양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가치를 투영하는 과정이며, 의사소통을 통해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강력한 하나의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 (2) 협력적 계획이론의 개념과 의의

협력적 계획 이론(Collaborative Planning Theory)은 크게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A Theory of Structuration)’ 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이론(A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기든스(Anthony Giddens)는 “능동적 행위자”의 개념을 통해 구조화 이론을 설명한다. 능동적 행위자와 구조는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행위자는 사회구조 속에서 규정됨과 동시에 구조를 생성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각 개인은 사회적인 틀 속에서 영향을 받지만 개인들은 능동적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재구성하기도 한다. 즉, 이는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상호작용과정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는 복합사회에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은 “성찰적 형태(Reflexive gestalt)”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18)</sup> 성찰적 형태란 정체

석사학위 논문(2011), p. 15.

16) 근대 국가는 국토에 대해 가독성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고전적 기능을 단순화 하는 과정을 거친다. 스콧은 이를 ‘국가주도의 사회공학’이라고 일컬으며 이에 대한 네 가지 요소로 1. 국가 단순화 2. 사회질서에 대한 합리적 설계에 대한 강력한 자기확신인 하이모더니즘 3. 하이모더니즘 계획을 실현할 강력한 의지를 가진 권위주의적 국가 4. 저항할 능력을 상실한 시민사회를 꼽았다. 결론적으로 근대 국가가 국토를 단순하게 재단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계획가의 선한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James C. Scott, *Seeing like a State*, 전상인 (역), 『국가처럼 보기』 (서울 : 예코리브르, 2010), pp. 23-30.)

17) 이경환, 안건혁,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 과정이 사회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학회지』, 42(2), 2007, p. 10.

18) 김찬호,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의사소통이론”, 『사회발전연구학회지』, 6(12),

성 형성이 끊임없이 학습되는 가운데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한다는 평등한 기회 의식이 주어져야 가능하다. 이는 의사소통의 한 주체로서 시민 의식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합리적 도시계획 이론은 추상적 시민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행위 이론에서의 시민은 그에 대한 저항을 담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현대 도시계획의 문제는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고, 실패를 조절해가는 문제이고, 도시의 삶의 세계를 침범하고 도시의 실체를 말살하려는 익명의 체제 명령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이다.<sup>19)</sup>

위와 같은 두 가지 이론을 배경으로 한 협력적 계획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적인 의사소통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적 계획을 실행하는 것은 이러한 상호 작용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가의 역할은 기존의 기술적 전문가가 아닌 협상가로 변화한다. 협상가로서의 계획가는 전체의 체계와 의사소통 전략에 더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다.

〈표 2-2〉 전통적 (합리적) 계획과 협력적 계획의 특성 비교

구분	전통적 (합리적) 계획	협력적 계획
참여	이슈가 못됨	광범위한 참여
의사소통	전문가로부터 의사결정자에게	상호주관적
계획가의 역할	기술적 전문가	협상가, 촉진자
권력	기획부서에 집중	분절되고 분산되어 있음
통제의 형식	암묵적	명시적
계획의 유형	경험적 산물	몰입 패키지
주요 강조 논리	기술적, 과학적 논리	의사소통적 논리
인과관계	주요 이슈	중요치 않음
효과성	목표 달성 정도	합의 도달 정도
투명성	전문가에게만	참여자들에게 전부

※출처 : 문정호, 양하벽, 김선희, 장은교 외, “참여시대 공공계획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2006), 오희택, 앞에 든 논문, p. 18에서 재인용

2000, p. 190.

19) 김우창,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 (서울: 민음사, 1993) p. 415., 오희택, 『문래동의 장소성 변화와 문화 매개 도시재생 가능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1), p. 18.에서 재인용



이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로 결과보다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획 과정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상호 합의의 대상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지역의 조건과 그를 둘러싼 주민의 생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공간에 대한 요구나 수요는 빠르게 변화한다. 이는 도시 계획, 설계에서 일방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함을 뜻한다. 세 번째로 이는 곧 빠르게 변모하며 날로 복잡해지는 현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획가가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삶을 섬세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제2절 도시공간의 협력적 디자인

### 1. 도시공간의 새로운 접근

시민을 의사소통의 주체로 보는 협력적 과정은 도시공간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공간에 대한 접근 역시 기존의 공공 주도의 일방적인 접근에서 시민의 실제 이용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얀겔(J.Gehl)은 *Cities for People*에서 만남의 장소로서 도시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인간 척도(Human dimension)에 의한 도시를 언급한다. 여기서 인간 척도란 실제 도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관점을 말한다. 수십 년 동안 인간 척도에 대한 강조는 도시설계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주도적인 계획 이념, 특히 근대 모더니즘(Modernism)이 지배하는 도시설계는 사회적 만남의 장으로서의 도시공간에 대해 깊게 고려하지 못하였다.<sup>20)</sup>

도시공간은 얀겔(J.Gehl)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에서 사회적인 만남의 장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을 말한다. 사회적 만남의 장소는 이전에는 단순히 공공이 시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공간에 한정되어 여겨졌다. 하지만 도시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공공이 소유한 좁은 의미의 공공공간 외에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이를 크게 도시 공공공간과 도시 유희공간으로 구분하였다.

#### (1) 도시 공공공간의 개념과 유형

공공공간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sup>21)</sup>이다. 하지만 도시공간에서 공공성의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존재한다. 소유주체에 따라 구분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소유한 공간이라는 좁은 범위의 정의가 가능하다. 이는 법적인 정의에서 잘 드러나는데, 법적인 정의를 따르면 공공공간은 ‘가로,공

20) Jan Gehl, *Cities for People* (Washington, DC: Island Press, 2010) p. 3.

21) 김영익, 『도심부 가로 보행공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을지로입구 사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6), 이상민, 차주영, 임유경,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7), p. 14.에서 재인용

원, 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을 의미한다.<sup>22)</sup>

반면에 광의로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소유 주체와는 상관없이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공공적으로 활용되는 종교 시설이나 시장 등도 포함한다.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에 따라 공공공간을 좁게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 으로, 더 넓게는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 이라 정의하였다. 이 범위는 공익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익 활동이 중요해 지면서 많은 기업들에서는 저층부를 공공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권은 사유지만 내용상으로는 공공공간이라고 여길 수 있다.

〈표 2-3〉 이용자 측면에서 본 공공공간의 범위

구분	소유에 의한 분류	특성	물리적 특성에 의한 분류	이용자 측면
도시공간	공유지	공적 공간	폐쇄적인 공적 공간	공공공간
	사유지	사적공간	개방적인 공적 공간	
			개방적인 사적 공간	
			폐쇄적인 사적 공간	

※출처 : 이상민, 엄운진, 앞에 든 보고서, p. 16., 재구성

이 중 주민의 일상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 내에 공공공간은 도시의 생활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 이에 대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이라는 용어로 이를 정의하였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시의 공공공간' 을 뜻한다.<sup>23)</sup>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도시소공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달리 규모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공원, 수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공원, 공원의 용도가 이용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양한 쓰임을 가진 공원,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 도시 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sup>24)</sup> 이러한 소규모 공공공간 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2) 건축기본법 제3조3항, 이상민, 엄운진,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1), p. 9.에서 재인용

23) 이상민, 엄운진, 앞에 든 보고서, p. 18.

24) 같은 보고서, p. 18.

## (2) 도시 유희공간의 개념과 유형

1996년 스페인(Spain)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개최된 UIA 총회에서는 현대도시의 상태를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변이(Mutation), 거주(Habitation), 흐름(Flows), 그릇(Container), 모호한 영역(Terrain Vague) 다섯 영역이 그것이다. 그 중 모호한 영역은 도시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진, 불확정적이고 중간적 성격을 지닌 영역을 말한다. 이러한 영역은 아직 개척되지 않은 도시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유연한 공간으로 변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sup>25)</sup>

유희(遊休)공간은 이와 같은 모호한 영역으로서 도시공간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져 방치되거나 방기된 공간을 뜻한다. 이에겐 버려진 대기 공간, 자투리 공간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다. 유희공간의 재생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면서 유희공간을 재정의 하고 유형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구의 범위에 따라 이를 유형화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①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이 연구는 유희공간을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sup>26)</sup> 여기서 유희공간의 유형은 존재하고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비활용 공간과 활용되나 적합하지 않은 비적합 공간으로 구분된다. 비활용 공간은 예를 들어 도로의 다양한 교통섬과 다리나 고가도로의 하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건축물의 옥상부 등을 들 수 있다.

### ② 유희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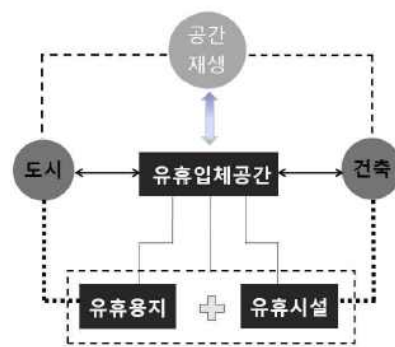
---

25) 김경호, 『움직임을 통한 도시의 건축화 양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p. 43.

26) 백나영,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남대문시장 유희공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 p. 9.

“유휴 입체공간의 개념과 ‘공간재생’ 계획 특성 연구”에서는 기존 유휴 공간에 대한 단순한 접근을 세분화 시키고 구체적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유휴 용지와 유휴시설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유휴 입체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7)

유휴용지는 건축물이 없어졌거나 건축물의 가치가 전혀 없이 용지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오준걸, 김광현 (2011)

〈그림 2-2〉 유휴입체공간의 개념과 관계

### ③ 유휴시설

유휴시설은 외부공간의 범위가 작은 유휴 건축물만 남아있는 경우이다. 이런 형태의 유휴공간은 주로 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발생한다.

## 2. 협력적 디자인의 역할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자칫 물리적 환경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오해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시공간에서 협력적 디자인<sup>28)</sup>은 기획 및 구상단계

27) 오준걸, 김광현, “유휴 입체공간의 개념과 ‘공간재생’ 계획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7(273), 2011, p. 88.

28) 유사한 개념으로는 참여적 디자인이 있다. 참여적 디자인(Participatory Design)이란 디자인의 과정 중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디자인에 피드백(Feedback)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을 비롯해서 공공디자인 등에서도 널리 쓰이는 방법이다. 하지만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의미의 ‘참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디자인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디자이너의 과정에 이용자가 개입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보다는 전체 과정을 여러 주체가 주도하는 협력적 디자인이 더

에서부터 실행단계, 그리고 유지관리 단계까지의 총체적 과정에 영향을 준다. 최근에 협력적 디자인이 중요해지는 것은 물리적 조성만 아니라 기획, 향후의 유지 관리에 대한 고려가 중요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협력적 디자인은 전문가 간의 협력에서 실제 이용자가 되는 시민을 포함하는 단계까지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다. 디자인의 과정에 시민을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함양시키고 실제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많은 도시공간들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 폐쇄적인 과정으로 인해 실제 수요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조성되어 있다. 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디자인 거버넌스(Governance)<sup>29)</sup>가 부재하다는 것도 큰 원인이 된다. 협력적 디자인은 주민의 지속적 관심을 이끌어 내어 이후의 공간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좋은 공간 환경 디자인’<sup>30)</sup>을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 디자인(Collaborative Design), 프로세스 디자인(Process Design), 통합적 디자인(Holistic Design)을 뽑았다.<sup>31)</sup>

도시공간의 협력적 디자인은 시민의 도시공간에 대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주목받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가는 도시공간을 그들의 삶터에 대한 소소한 관찰로 발견해 내어 적절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도시공간이 단순히 심미적인 아름다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이용자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 주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

적절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조윤성 김문석, “모바일증강현실을 활용한 참여적 공공디자인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19, 2011, pp. 124-33.)

29)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규정, 『행정학 원론』, (서울: 법문사, 1999), pp. 11-2.)

30) 공간환경이란 Built Environment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도시 환경에서부터 개인적인 장소에 이르기까지 인간 활동을 위한 배경을 제공해주는 인공적인 주위 환경을 언급한다 (이상민, 고은정, 임유경, 앞에 든 보고서, p. 36.)

31) 프로세스 디자인이란 지속적인 삶의 토대로서 생활공간 만들기를 말하며, 통합적 디자인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을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장소 만들기를 말한다. (같은 보고서, p. 23.)

## 제3절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이해

### 1.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과 범위

#### (1)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 등장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 조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희공간이나 공공공간의 활용 중 일부가 이러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개념화되지는 않았지만 생소한 움직임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국외에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도 자생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그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도시 내에서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가 주목할 만큼 많이 발생했으며 현대 도시에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외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연구 단체인 어반 카타리스트(Urban Catalyst)로부터 등장하였다. 이 그룹은 베를린(Berlin)에 기반을 둔 건축가, 기획자, 변호사, 사회학자와 지방 정부 대표로 이루어진 단체로<sup>32)</sup>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일시적 도시공간 활용과 실천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2003년 비엔나(Vienna)에서 열린 컨퍼런스의 제목은 "일시적 도시공간 활용(Temporary Uses in Urban Space)"이었다.<sup>33)</sup> 이들은 또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주제로 한 도서인 *Urban Pioneers*를 출간하였다.

국제적 건축 의회인 어포지셔널 건축(Camp for Oppositional Architecture)은 2004년 위와 같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일시적 공간에 대한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그 밖에 2011년 11월 미국의 국립 건축 박물관(National Building Museum)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토론을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006년부터 출판물로 정리되어 구체화 되었는데 2006년부터

---

32) 최혜미, 앞의 논문, p. 21.

33) Florian Haydn, Rober Temel, *Temporary Urban Spaces* (Basel: Birkhäuser, 2006), p. 19.

2012년 현재에 걸쳐 대표적인 도서로는 2006년도의 *Temporary Urban Spaces*<sup>34)</sup> 어반 카타리스트의 *Urban Pioneers*<sup>35)</sup>와 *Pop up city*<sup>36)</sup>, 그리고 2012년의 *The Temporary City*<sup>37)</sup>가 있다. 초기의 도서들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나타난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한 것과 저자들의 논문 형식으로 나타나 있다. *Urban Pioneers*는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안하였으며 *The Temporary City*는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뿐 아니라 계획적인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일시적 공간 활용(Temporary uses)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면서 도시설계 프로젝트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전면적으로 드러낸 사례들이 등장하였다.

〈표 2-4〉 일시적 공간 활용의 등장 과정

단계	실행과정	연구과정	특징	출판도서 / 프로젝트
1	민간영역의 일시적 공간 활용 증대		현대 도시의 문제에 대한 자발적 대처	
2		민간영역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	자생적 사례 취합, 분석	<i>Pop up city</i> <i>Loose Space</i> <i>Insurgent Public Space</i>
3		일시적 공간 활용 (Temporary uses) 개념화	일시적 공간 활용의 도시설계적 시사점 확인, 유연한 설계의 방식으로 주목	<i>Temporary Urban Space</i> <i>Urban Pioneers</i> <i>The Temporary City</i>
4	일시적 공간 활용을 포함한 계획 설계		대형 개발, 외부공간 설계, 마을만들기, 장소만들기 등 다양한 설계 분야에서 등장	King' s Cross Making Space in Dalston Industrial Sites (Infill Philadelphia) Bankside Urban Forest

## (2)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과 범위

일시적인 공간 활용에서 일시적(Temporary)이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또한 일시적이라는 것은 사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라짐으로써 증명된다.

34) Florian Haydn, Rober Temel, *op. cit.*

35) Jill Denton, *Urban pioneers* (Berlin: Jovis, 2007).

36) Terry Schwarz , *Pop Up City* (London: Cleveland Urban Design Collaborative, 2009)

37) Peter Bishop, Lesley Williams, *The Temporary City* (London: Routledge, 2012)



‘일시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시키며 이러한 접근은 실제의 적용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시적인 공간 활용은 실제의 사례를 통해 접근하여 그의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일시적 공간 활용이라고 규정되어 질 수 있는 것은 그 주체가 공공이나 민간이냐,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아닌가, 혹은 기간의 길고 짧음,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다. 공간의 이용자와 개발자, 설계가의 의도가 그 용도를 일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가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의 범위를 결정한다. 38)

넓은 의미의 일시적 공간을 보았을 때, 도시의 역사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은 그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임시주거의 형태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근대에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서 도시가 완성되고 나서 이후의 움직임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의의가 경직된 계획적 접근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공간의 가능성을 일시적 활용을 통해 발견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방적인 도시 계획, 설계가 가지는 단점에 대한 대안적인 가능성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초기의 일시적 공간 활용 움직임은 1973년의 게릴라 가드닝(Guerilla Gardening) 운동<sup>39)</sup>과 1970년대의 유럽에서 일어난 스쿼팅(Squatting) 운동<sup>40)</sup>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일시적 공간 활용은 2000년대부터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횡수에 따라서 일회적으로 나타나는 이벤트성 공간 점유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하루, 혹은 며칠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으며 몇 주, 몇 달이 지속되기도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종류는 물리적 측면에서는 공간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며 공공공간 등 주로 기존에 다른 용도로 활용되던 공간에서 벌어지는

---

38) *ibid.* p. 6.

39)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3장 2절 여성환경연대 사례의 공간 유형 분석 참조.

40)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3장 2절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의 공간 유형 분석 참조.

경우가 많다.

또는 몇 사례에서 보이듯이 일정 규모의 공간을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일시적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경우 전자와는 달리 공간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물리적 개입을 하지만 이 또한 영구적 의도의 공간과는 달리 적은 비용으로 조성된다. 여기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이란 대체로 공간의 중간적인 활용, 즉 임시, 과도기의(Interim, Stop-gap)<sup>41)</sup> 사용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시적 공간 활용은 흔히 주 용도를 위한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오히려 일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활용이 있으며 이는 도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범위 내에는 올림픽, 엑스포와 같은 메가 이벤트 역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일상적인 환경에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현대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과 특징

### (1) 현대 도시 환경과 일시적 활용

일시적 공간 활용의 등장 배경은 최근에 변화하는 현대 도시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밝혔듯 최근의 도시계획은 한 사람의 계획가의 비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Peter · Lesley는 “이제까지 계획가는 영원성의 환상에 빠져있었다.”<sup>42)</sup>고 언급하며 세계는 “고정된 근대성(Solid modernity)에서 유동의 단계(Liquid phase)로 전환”<sup>43)</sup>되고 있다고 인용하였다.

---

41) 이후 4장에서 다루는 용산구 보광동 대상지의 경우에는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활용 방안이기 때문에 ‘임시적’ 활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미 중 하나로 일상적인 도시공간의 재발견을 다루고 있다. 이에 공공공간의 활력을 위한 일시적 프로그램의 사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42) Peter Bishop, Lesley Williams, *op. cit.* p. 21.

43) Zygmunt Bauman, “Liquid Modernity”, *ANSE Conference* (2004), *Ibid.*, p. 21.에서 재인용

이는 현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여건들과 결부된다. 세계는 글로벌 시대라는 표현에 걸맞게 더욱 작아졌지만 그로 인해 서로의 영향권 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2007과 2008년에 걸친 세계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그로 인해 이전의 공급위주의 사업 방식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도시계획의 사업 속도가 늦춰졌다는 것은 도시 유희공간의 증대를 낳는다. 예전과 같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뉴타운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화와 그에 적절한 지원이나 대응의 부족으로 계속해서 빈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경직된 도시계획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도시 내에서의 행위는 더욱 복잡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자생적 사례들은 이러한 경직된 도시계획 시스템에 대한 자발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도시 계획법상의 용도와는 크게 상관없이 도시의 욕구에 현장에서 대응해가면서 발생한다. 이는 때로는 사유지가 공공적 성격의 공동체 텃밭이 되기도 하고 빈 철로가 극장이 되기도 하면서 의미 없이 방치되었던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출처 : 어셈블스튜디오(Assemblestudio) 공식 홈페이지 <http://assemblestudio.co.kr>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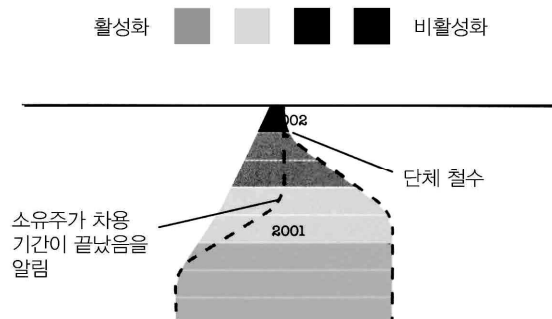
〈그림 2-3〉 일시적 설치물을 통해 고가도로 밑의 애매한 공간을 활용한 〈폴리 포 어 플라이오버(Folly for a Flyover)〉

## (2) 일시적 공간 활용의 특징

### 1)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적 디자인 과정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생적인 사례들은 하향식의 일반적 공간 조성과는 달리 도시민의 요구와 필요가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각 주체 간의 협력은 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공간소유주와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주체 간의 협력이 조성 가능성 자체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사례 연구 중 *Urban Pioneers*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공간소유주와의 협력과 일시적 공간의 활성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Commune)과 토지 소유주(Owners)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법적 도구, 재정적 지원 등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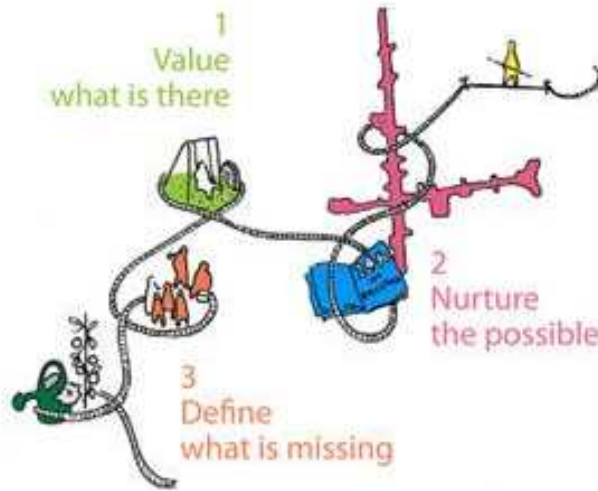
출처 : Urban Catalyst (2007) 재구성

〈그림 2-4〉 *Urban Pioneers*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 표현

최근에는 계획적 접근에서 일시적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중요하게 고려된다.

영국 런던의 사례 중 하나인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과정은 지역의 가치 찾기(Value what is there), 가능성 육성하기(Nurture the possible), 부족한 것을 정의하기(Define what is missing)로 나

누어 설명되어 있다. 각 단계는 완전히 구분되기보다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 muf architectur/art, J&L Gibbons LLP (2009)

〈그림 2-5〉 *Making Spcae in Dalston*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 과정 표현

## 2)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일시적 공간 활용은 여러 용도, 여러 방식,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2006년도에 출간된 *Temporary Urban Spaces*는 유럽 지역의 총 35개의 자생적 사례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각 사례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특성상 공간의 용도 등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범주를 정하기보다는 서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sup>44)</sup>

〈표 2-5〉 *Temporary Urban Spaces*에서 구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구분	종류	내용
유형(Type of use)	문화(Cultural) / 계획과정에 활용(Planning) / 여흥(Entertainment) / 식당(Gastronomical) / 정치적 활용(Political) / 사회적 활용(Social) / 예술(Artistic) / 사회문화적 활용(Socio-cultural) / 상업(Commercial)	활용의 성격을 분류

이후 2007년의 *Urban Pioneers*는 베를린 지역의 43개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크게 식음료업소(Gastronomie), 스포츠(Sport), 문화(Kultur), 공원(Park), 대체 주거(Alternative Wohnform)로 분류하여 표현하고 있다.<sup>45)</sup>

44) Floria Haydn, Rober Temel, *op. cit.*

45) Jill Denton, *op. cit.*

〈표 2-6〉 *Urban Pioneers*에서 구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구분	종류	내용
유형(Type)	식음료업소(Gastronomie), 스포츠(Sport), 문화(Kultur), 공원(Park), 일시적인 대체 주거(Alternative Wohnform)	4가지 종류로 프로젝트를 나눔

*The Temporary City*의 경우 도시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역할에 따라 사례를 구분하였다. 7가지의 장 속에는 총 68가지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에 는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sup>46)</sup>

〈표 2-7〉 *The Temporary City*에서 구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챕터 제목 (유형)	사례의 종류
민간영역의 대응(The Private Sector Response)	런던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던 민간영역의 초기 사례
소비의 일시적 영역(Temporary Arenas for Consumption)	팝업 스토어(Pop-up Store)등 상품 소비의 영역에서의 사례
무대로서의 도시(The City as a Stage)	일시적 공연이나 전시사례
문화와 반문화(Culture and Counterculture)	그래피티 <sup>47)</sup> (Graffiti)나 거리미술(Street art)등의 사례
액티비즘과 공동체 사용(Activism and Community Use)	시위, 환경운동, 무단점거와 공동체 텃밭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일시적 활용 사례
창조도시와 젠트리피케이션 딜레마(Creative Cities and the Gentrification Dilemma)	자생적인 창작 집단의 유입과 그를 존속하게끔 지원하는 중간 지대로 일시적 활용의 사례
도시를 다시 꿈꾸다 : 일시적 활동을 위한 계획(Reimagining the City: Planning for Temporary Activity)	일시적 공간 활용을 포함한 계획 사례

*The Temporary City*가 이전 도서에서의 사례 소개와 다른 점은 세부 장을 통해 기존 도시 계획이나 설계에서의 문제를 분야별로 자세히 다루고 있어 일시적 활용의 도시에서의 역할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여 최근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Urban Pioneers*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반해, *The Temporary City*는 설계가, 계획가의 관점에서 자생적인 움직임의 가능성을 계획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도시설계 분야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에서의 역할에 따른 유형 분류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46) Peter Bishop, Lesley Williams, *op. cit.*

47) (공공장소에 하는) 낙서, 주로 스프레이 등을 사용한다.

## 제3장 국내외 일시적 공간 활용의 사례 분석

### 제1절 사례분석의 틀

#### 1. 사례 대상 선정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간의 조성 의도 자체가 일시적인 공간 중에 선정하였다. 또한 하나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단발적인 사례가 아니라 동일한 공간 활용주체나 상위 프로젝트(Project)에 의해 일시적 공간 활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는 단발적인 사례의 경우에 보기 힘든 협력 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 대상은 크게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로 구분된다. 국외 사례의 경우에 현재 서울과 도시 개발 상황이 비슷한 대만 타이페이(Taipei)의 사례를 포함해 영국 런던(London)과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살펴본다. 이 중 특히 영국 런던의 사례는 자생적인 다른 사례와는 달리 시에서 적극적인 주도 하에 조성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사례이기 때문에 협업체계와 계획 과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국내 사례의 경우 따로 수집, 분석된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여 사례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내 사례의 분석은 국내에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 의의와 국외 사례와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표 3-1〉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분석 대상 선정

주체별 구분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공공공간 활용	유희공간 활용	공공공간 활용	유희공간 활용
국내				서울시, 자립음악생산조합
				수원시, 대안공간 눈
			서울시, 여성환경연대	
대만		타이페이,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Taipei Beautiful' Plan)		
영국	런던, banks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			
	런던,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 Space in Dalston)			
미국			샌프란시스코, 리바 (Rebar)	
스위스	로잔, 로잔 자딩 2009 (Lausanne Jadins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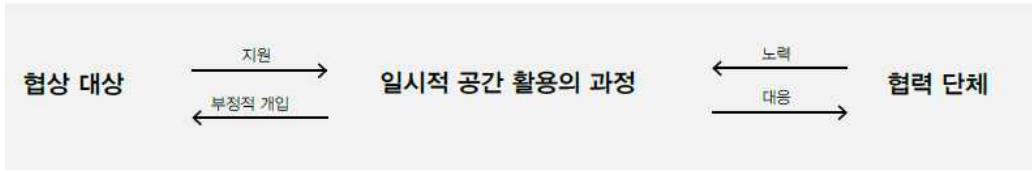
## 2. 사례분석 기준 설정

사례 분석의 틀은 협력 과정 분석과 공간적 분석으로 나뉜다. 협력 과정 분석은 일시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도움을 얻기 위해 실행 과정과 그에 따른 협력 체계를 살펴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공간적 분석은 각 프로젝트가 주변 지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맥락과 공간 활용 유형을 통해 도시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단계이다.

### (1) 협력 과정 분석

협력 과정 분석은 일시적 공간 활용의 주체가 된 단체, 혹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실행 과정을 표현하고 각 과정마다 어떤 주체가 개입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3-1〉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적 과정 분석 틀

세로축은 일시적 공간 활용의 수행 과정을 표현하며 가로축은 각 과정별로 주체 간 관계를 표현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주체는 주로 공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공간 활용주체와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제공자, 그리고 그 둘을 결합시키는 중간자로서의 주체이다.



〈그림 3-2〉 일시적 공간 활용에 개입하는 각 주체

또한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와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대상지와 활용주체와의 관계는 관계있는 정도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지와 관계가 없는 활용주체부터 지역 공동체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중에는 지역 단체 등 대상지의 사회적 관계망 내부에만 관심을 가지는 활용주체, 혹은 대상지의 주변 맥락을 보고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가 있을 수 있다.

〈표 3-2〉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관계없음	① 대상지와 관계없는 활용주체
관계있는 정도		② 대상지의 사회적 관계망 내부에만 관심이 있는 활용주체
		③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
	밀접	④ 지역 공동체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일시적 활용과 대상지의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도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는 총 8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표 3-3〉 일시적 공간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①	②
영향 없음 Stand in	자극 Impulse
향후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빈 땅을 가능한 시간 내에 활용하는 경우	대상지에 존재하는 미래의 계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게 되거나 하는 경우
③	④
병합 Consolidation	공존 Coexistence
영구적 용도를 변화	공식적인 활용이 시작되고 나서도 그 장소의 일시적 활용이 지속되는 경우
⑤	⑥
기생 Parasite	전복 Subversion
공식적인 활용을 통해서 일시적 활용이 이득을 얻거나 의존하는 경우	공식적 활용을 점거 등을 통해서 방해하는 경우
⑦	⑧
개척 Pioneer	대체 Displacement
대상지를 처음으로 도시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나대지에 정착)	영구적 활용이 변경되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시적 공간 활용을 사용하는 경우

※ 출처 : Urban Catalysts, *Strategies for Temporary Uses* (2003), pp. 14-5.

## (2) 공간적 분석

각 일시적 공간 활용마다 주변 도시의 맥락과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유형별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3-4〉 각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개요

<b>유형</b>	지역 공동체 활용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반발 무대로서의 도시 계획적 접근	<b>개발계획</b>	○/×
<b>프로그램 유형</b>	청년문화 미술 도시농업 야외 여가 활동 이주자를 위한 문화 사회 서비스 벼룩시장	<b>공간형태</b>	유휴공간 유휴용지 유휴시설 데드 스페이스
			공공공간 도로 광장 도시공원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b>위치</b>		<b>이용자</b>	
<b>기간</b>		<b>장애사항</b>	

위치, 개발계획과 공간형태는 주변 지역 맥락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유형, 용도, 공간형태, 기간, 이용자는 개별 공간의 프로그램 특성을 보여준다.

### ①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구분

유형은 일시적 공간 활용이 도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구분하였다. 여기에는 지역 공동체 활용,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반발, 무대로서의 도시, 계획적 접근이 포함된다. 48)

48) 각 유형에 대한 분류는 *The Temporary City* (2012)의 유형 분류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The Temporary City*에서 구분하고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민간영역의 대응(The Private Sector Response)/소비의 일시적 영역(Temporary Arenas for Consumption)/무대로서의 도시(The City as a Stage)/문화와 반문화(Culture and Counterculture)/액티비즘과 공동체 사용(Activism and Community Use)/창조도시와 젠트리피케이션 딜레마(Creative Cities and the Gentrification Dilemma)/도시를 다시 꿈꾸다 : 일시적 활동을 위한 계획(Reimagining the City: Planning for Temporary Activity)

〈표 3-5〉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유형	사례의 종류
지역 공동체 활용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일시적 활용 사례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반발	자생적인 창작 집단의 유입과 그를 존속하게끔 지원하는 중간 지대로 일시적 활용의 사례
무대로서의 도시	도시 외부 공간의 일시적 공연이나 전시사례
계획적 접근	일시적 공간 활용을 포함한 계획 사례

②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Program) 유형 구분

프로그램은 이용자와 공간 활용주체를 고려하여 7가지로 구분하였다.<sup>49)</sup>

〈표 3-6〉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Program) 유형

프로그램 유형	세부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내용
미술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 거리 미술 전시회 전시회 레지던스(Residence) <sup>50)</sup>	미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청년문화	밴드 공연 연극 거리 공연 디제잉(DJing) 클럽방(Clubbing)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	도시농업 프로그램
야외 여가 활동	야외 스포츠 활동 어린이 야외 활동 프로그램 일시적 야외 설치물	야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이주자를 위한 문화	세계 음식 종교 문화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	노인 복지 서비스 아동 돌봄 서비스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벼룩시장	플리 마켓(Flea Market) 카부츠 마켓(Car Boots Sales) <sup>51)</sup> 거리 축제의 판매 프로그램	임시적인 판매 프로그램

49) *Strategies for temporary Uses* (2003) 참조 : 청년문화(Youth Culture) / 미술(The Art World) / 여가/스포츠(Leisure/Sports) / 신생기업(Start-Up-Businesses) / 대안문화(Alternative Cultures) / 이주자 문화(Migrant Cultures) / 사회 서비스(Social Services) / 벼룩시장(Flea Market) / 카부츠마켓(Car Boot Sales)

50) ‘전숙’, ‘입주’ 작가의 의미로 레지던스(Residence), 혹은 레지던시(Residency)라는 표현을 쓴다. 작가들에게 공모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작업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51) 자동차 트렁크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벼룩시장의 일종.

## 제2절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 1. [지역 공동체 활용] 수원시, 대안공간 눈

#### (1) 개요

수원시 대안공간 눈은 오랫동안 수원 화성 내의 구도심인 행궁동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 전시 기획 공간이다. 이 공간은 40년 동안 주거공간으로 사용되던 곳을 개조하여 카페와 전시실 두 곳을 보유하고 있다.

대안공간 눈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숙, 김정집 부부는 수원시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지역 주민이며 지역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수원시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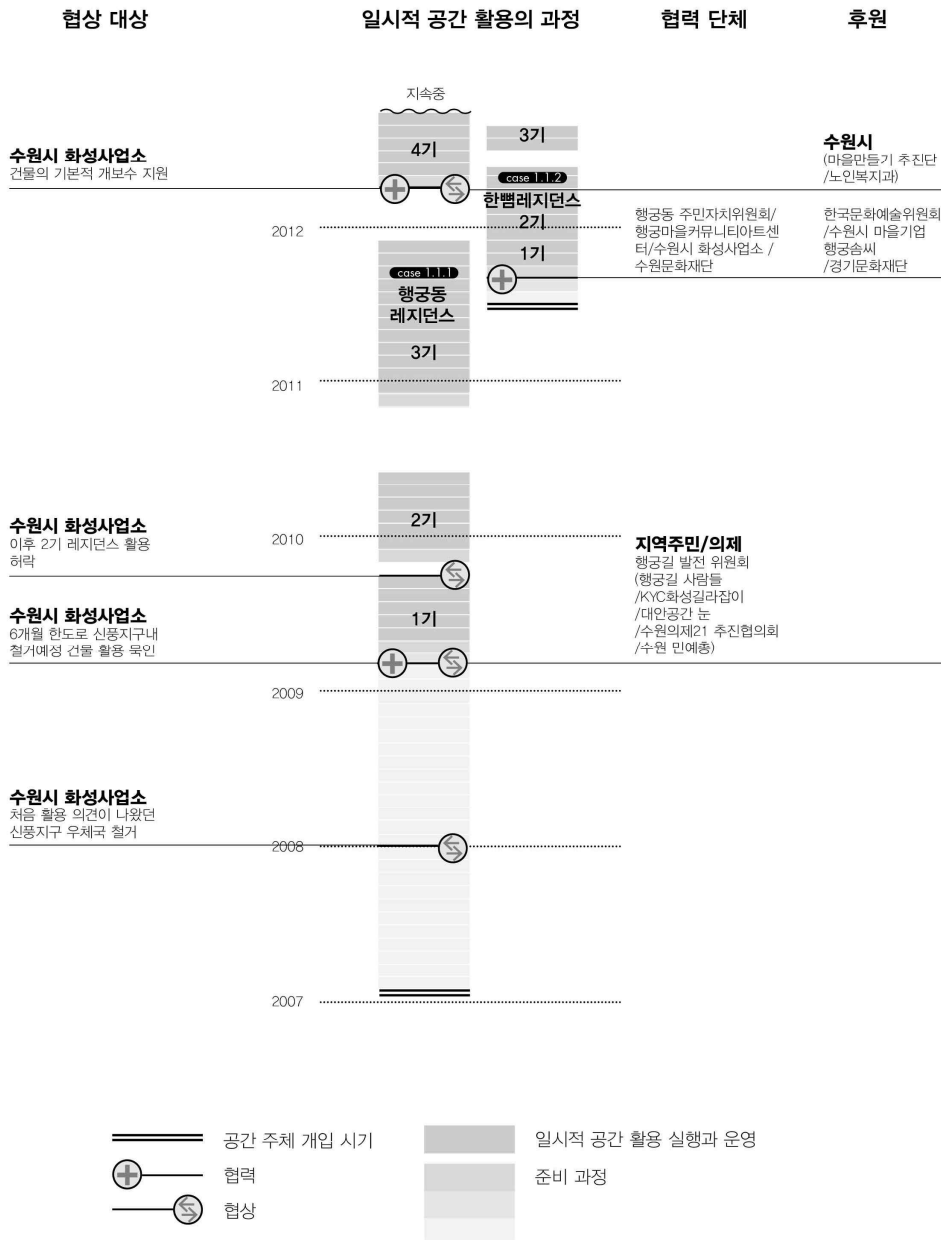
대안공간 눈에서 진행한 일시적 공간 활용은 행궁동의 골목길을 중심으로 한 ‘행궁동 점거 예술 축제’의 프로그램 중 일부인 ‘빈 점포 갤러리(Gallery)’를 포함하여 철거 예정의 빈 건물을 작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행궁동 레지던스(Residence)’, ‘한뼘 레지던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대안공간 눈 다음 공식 카페 <http://cafe.daum.net/artspacen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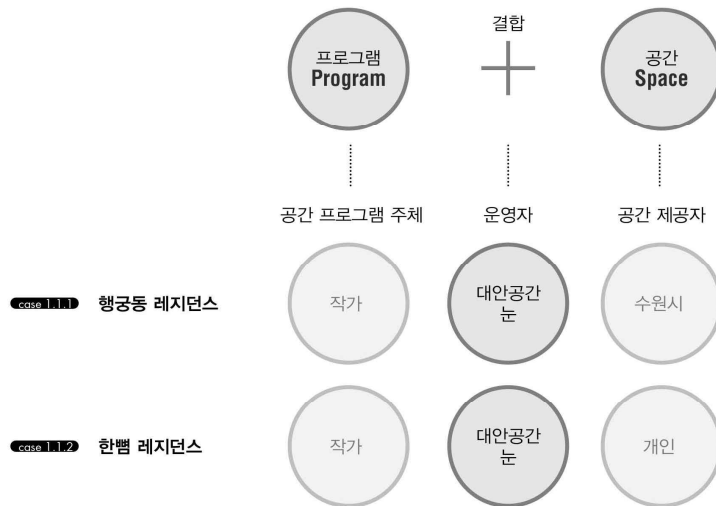
〈그림 3-3〉 대안공간 눈

## (2) 협력 과정 분석



〈그림 3-4〉 대안공간 눈의 협력 과정 분석

지역의 문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공간 눈은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공간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작가와 빈 공간을 연계하는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3-5〉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대안공간 눈의 역할

이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 주민과 대안공간 눈의 관계이다. 대안공간 눈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신흥지구의 철거예정 건물들을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협력과 지방 당국의 정치적 노선 변경이 있었다.<sup>52)</sup>

대안공간 눈이 2005년도에 설립한 이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7년이였다. 당시 처음으로 ‘행궁동역사문화마을만들기’ 라는 목적 아래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 프로젝트 -행궁동 사람들’ 을 진행하면서 지역 간판 바꾸기, 벽화 그리기 등의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지역의 노인정과 예술가를 연결하여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의 노인 복지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노력 끝에 지역 주민과 긍정적인 관계를 설정하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행궁동 레지던스에서 시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오랜 활동을 통해 수원시에서 대안공간 눈의 역할이 인정받았

52) 2012년 11월 8일 대안공간 눈의 대표 이윤숙과의 인터뷰

기 때문에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sup>53)</sup>가 이에 협력하면서 시에서는 행정적 책임을 위임할 수 있었다.

또한 행궁동 레지던스가 가능했던 것에는 지방당국의 정치적 노선 변경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행궁동 레지던스가 위치하고 있는 행궁동의 신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도로, 화성 행궁 앞 광장 주변 정비와 대규모 이벤트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주변 지역을 시에서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개발안의 변경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신평 지구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빈 건물들만 남게 되었다. 이에 대안공간 눈에서는 초기에 현재의 레지던스 건물 외에 구(舊) 우체국 건물을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하였으나 건물은 곧 철거되었고 이후에 지방 당국의 정치적 노선 변경이 있고 나서야 다른 개발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대안공간 눈의 이윤숙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시에서는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 등으로 건물을 출입 통제하거나 철거하고, 울타리를 치는 등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낙후가 가속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례가 없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 시 공무원들의 입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악순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대안공간 눈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행궁동 레지던스가 운영되며 이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로 이후 주변 지역에 문화 관련 업종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안공간 눈이 위치해 있는 곳을 비롯해 행궁동 벽화 골목들이 관심을 얻기 시작하면서 방문객도 증가하여 주민들은 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대안공간 눈의 사례에서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는 “지역 공동체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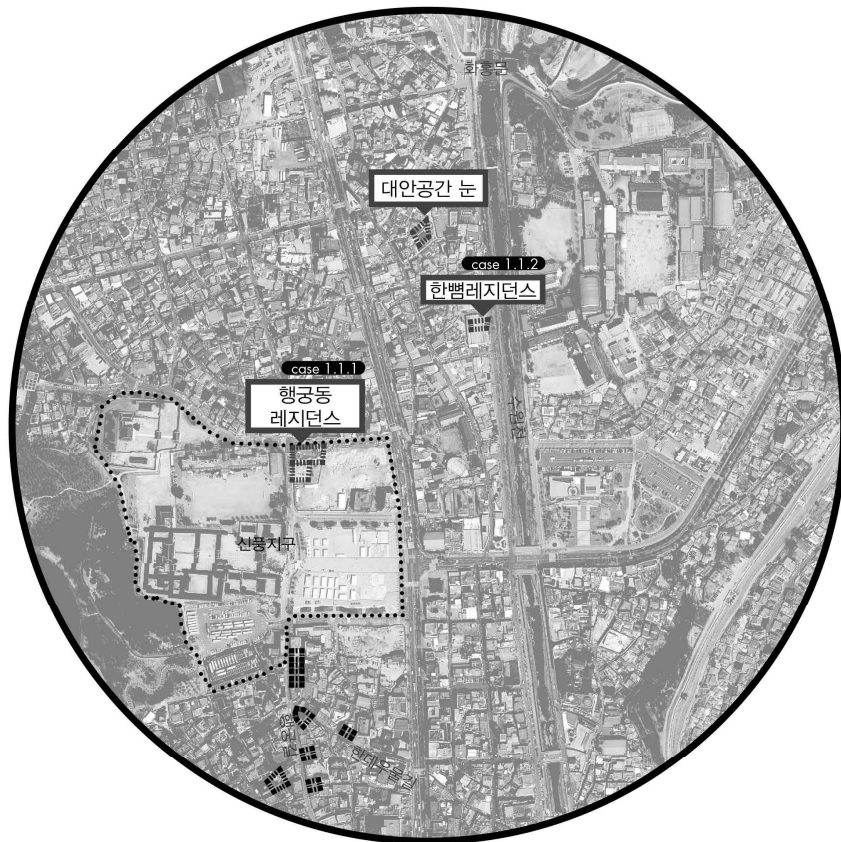
53)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는 1992년 유연환경개발회의(UNCED)의 권고를 기초로 설립한 ‘지방의제21추진기구’로서, 수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민,관협력기구이다. (<http://www.suwonagenda21.or.kr/> 2012년 12월 5일 마지막 접속)




##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행궁동 레지던스는 향후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빈 땅을 가능한 시간 내에 활용하는 ‘영향 없음(Stand in)’의 관계였으나 행궁동 레지던스의 활발한 이용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유사한 문화 관련 업소들이 입점하고, 이에 신흥 지구계획이 기존에 저층 한옥 위주의 전통 마을계획에서 미술관계획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대안공간 논의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는 대상지에 존재하는 미래의 계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포함시키게 되는 ‘자극(impulse)’ 유형으로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 (3) 공간적 분석



 2007년 이후 입점한 문화 관련 업소

〈그림 3-6〉 대안공간 논의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들과 주변 지역 맥락

〈표 3-7〉 2007년 이후 새로 입주한 문화관련 업소 현황(2011년 말 기준)

이름	업종	년도	이름	업종	년도
선인장	갤러리 + 카페	2009	한대우물 문화공간	갤러리	2008
행궁공방	공방 + 카페	2009	임아트갤러리	갤러리	2008
가향산방	전통 찻집(한국)	2009	사랑방선수손님 과 어머니	특색있는 술집 - 작품 전시	2010
거기다원	찻집(보이차 전문)	2008	화성갤러리	공방	2010
찻집	커피 전문	2008	망치와 두치	공방	2009
다림꽃문화원	공방	2010	핑크리본 케익	간판이 예쁜 케익 전문점	2010
수 한지공예	공방	2009	크로키	특색있는 술집 - 내부 벽화	2009
숲	꽃집 + 카페	2010	가빈	갤러리	2008
은빛나무	공방	2009	우주	갤러리	2008
나무자전거	자전거 수리, 대여	2009	빨리	갤러리	2008
한대우물 창작촌	작가 작업실(4명 입주)	2008	시드	갤러리	2008

※출처 : 행궁동 사람들(2011)

### 1) 행궁동 레지던스

〈표 3-8〉 행궁동 레지던스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행궁동 레지던스 (<http://www.galleryartnet.com>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7〉 행궁동 레지던스

유형	지역 공동체 활용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미술	공간형태	유희시설
위치	수원시 행궁동	이용자	지역 작가 (사진, 회화, 설치, 공예, 디자인, 영상, 퍼포먼스)/지역주민
기간	2009년 이후 매년 6~8개월	장애사항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행궁동 레지던스는 수원시 화성지역의 철거대상 건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철거 건물을 활용해 지역 작가들이 입주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전시를 진행한다. 이는 “행궁동역사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성 신흥지구 지정 이후 사람들이 떠나고 건물이 철거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2012년에 들어서 건물의 창문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였다. 지역 활성화에 대한 대안공간 논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간 구성도 그를 반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작가의 작업공간이지만 밖에서 24시간 불을 켜서 창문을 통해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전시장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몇몇 작가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하지만 공간 제공을 위한 공모에서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진 작가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한다.

## 2) 한뼘 레지던스

〈표 3-9〉 한뼘 레지던스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행궁동 레지던스 <http://www.galleryartnet.com>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8〉 한뼘 레지던스

유형	지역 공동체 활용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미술	공간형태	유희시설
위치	수원시 행궁동	이용자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
기간	2011년 9월~2012년 9월	장애사항	임대료 문제

한뼘 레지던스는 대안공간 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웃과 공감하는 예술프로젝트-행궁동 사람들’의 일환으로 행궁동 레지던스와 연계하여 수원천변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한 공간이다. 예술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수원천변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변의 3평 규모의 빈 점포를 임대하여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작가에게 활용하게 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대안공간 눈은 수원시 내에 활력을 주기 위한 전략적 장소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3) 대안공간 눈 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지역 공동체 활용

대안공간 눈의 경우 초반에는 지방 당국의 암묵적 동의 수준에서 공간 활용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수원시도 이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인 상태는 불법적인 점거라고 할 수 있다.

점거의 형태는 공간의 소유주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지방당국은 전략적으로 통제 가능한 짧은 기간의 점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의 도시 정주 장려 정책 ‘홈스테딩(Homesteading)’ 제도와 같이<sup>54)</sup> 빈 건물을 방치하는 것 보다 사용하는 것이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 당국에서 유희시설의 일시적 공간 활용을 고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첫 번째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방 당국의 통제 하에 지원할 경우 이는 범죄에 의한 손상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에서 대규모로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가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지방 당국에서 그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용도가 아닌 일시적 활용도 주변의 상업 시설을 끌어 들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sup>55)</sup> 이는 행궁동 레지던스로 인해 유입된 상업 시설들과 지역의 행사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대안공간 눈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대안공간 눈의 사례를 통해 빈 건물의 일시적인 활용이 근린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활용의 용도가 지역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인 경우엔 더욱 두드러지지만 그 외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빈 건물을 방치하는 것 보다 활용하는 것 자체가 도움을 준다.<sup>56)</sup>

---

54) 도시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빈 건물에의 입주를 장려하는 연방 정부의 정책 ; 일정 기간 후 소유권 인정

55) Peter Bishop, Lesley Williams, *op. cit.* p. 40.

56) 국외에서는 향후 경제적 조건이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대기 상황에 놓여있는 부동산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지방 당국은 지역의 쇠락을 막기 위해 임시적 활용을 적극

## 2. [지역 공동체 활용] 서울시, 여성환경연대

### (1) 개요

여성환경연대는 1996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99년에 정식으로 조직되었다. 여성환경연대는 7가지 ‘여성환경인의 다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네 번째는 ‘우리는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풀뿌리 녹색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여기서 풀뿌리 녹색 민주주의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건강, 대안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을 지역의 리더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여성환경연대의 주요 사업이다.

여성환경연대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도시 생활을 위한 대안 운동으로 도시 텃밭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판매하는 유기농 식품 장터인 ‘마르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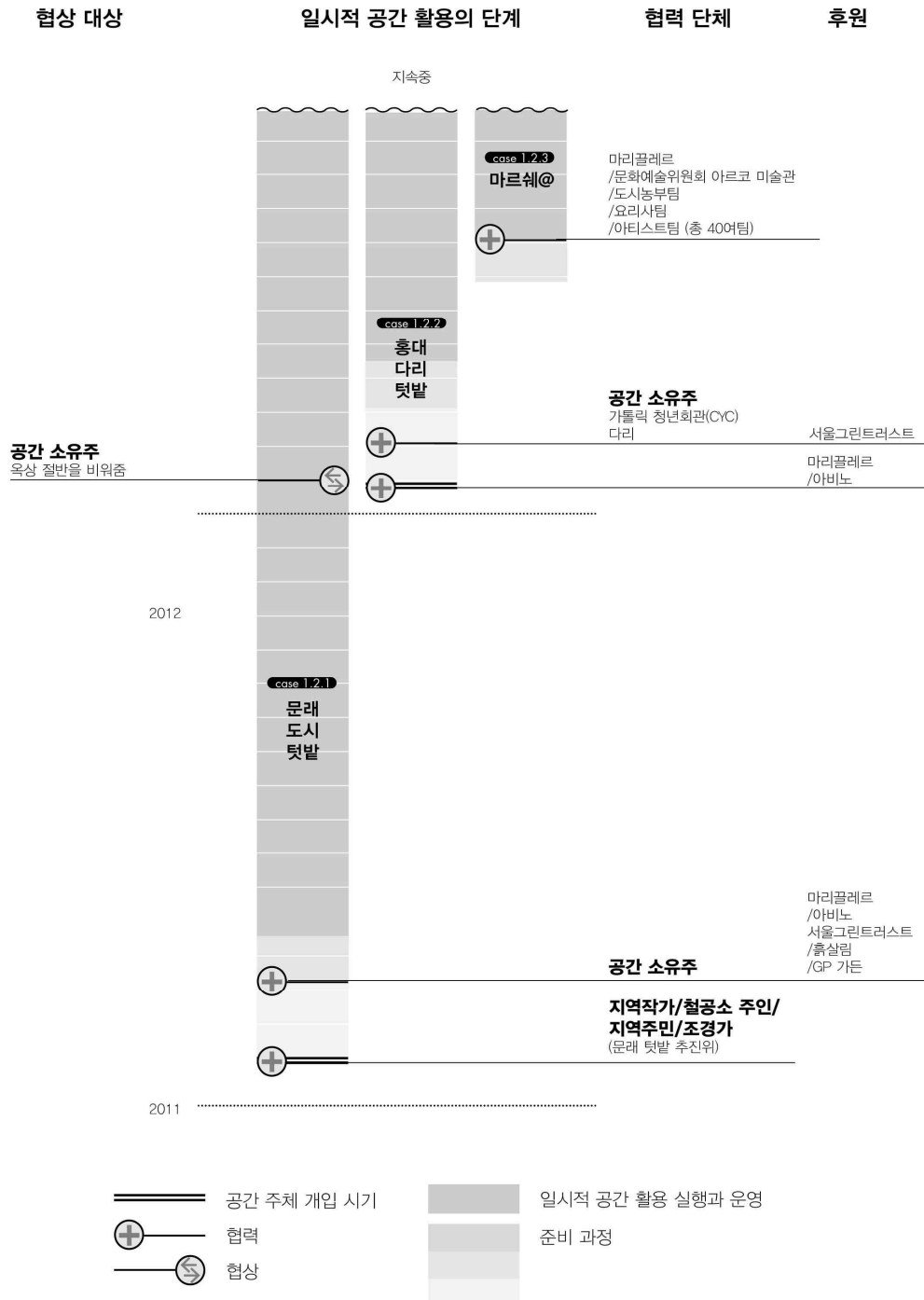


출처 : 여성환경연대 공식 홈페이지 <http://www.Ecofem.or.kr>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9〉 여성환경연대의 주요 사업

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의 부록을 참조)

(2) 협력 과정 분석



〈그림 3-10〉 여성환경연대의 협력 과정 분석

서울시 여성환경연대의 도시텃밭 운동은 문래동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문래동은 2000년대 들어서 홍대지역에서 이주한 작가들이 모여들면서 ‘문래 예술촌’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2001년에 시작된 움직임으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2009년도에는 90여개의 작업실에 약 180여명의 작가들이 작업하고 있다. 문래동 철공 단지에 이들이 입주하게 된 최초의 원인은 저렴한 임대료였지만 예술촌이 점차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예술인과의 교류 등도 정착의 이유가 되고 있다.

문래 예술촌은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하여 도시의 공격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NGO단체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문래동의 젊은 작가들의 호응에 힘입어 여성환경연대는 패션잡지 ‘마리끌레르’의 지원 아래 문래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서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래동에는 빈 땅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환경연대는 건물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주변 철공소 건물의 옥상을 물색하였다. 철공소 옥상의 경우 대부분 산업 쓰레기로 가득 찬 쓸모없는 공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공소 주인들은 공간을 빌려주길 거부했다. 그 중 동의하는 한 곳을 어렵게 찾아 텃밭을 조성할 수 있었으나 문래동은 주변의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의 개발 등에 힘입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소유주들이 예술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들이 재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여기게 되어 문래텃밭도 소유주의 반대로 절반을 다시 비워주게 되었다.

도시농업이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문래 도시텃밭은 ‘2011생활녹화대상(서울시장상)’을 수상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기초해 지역의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다음의 대상지로 홍대 부근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청년들에게 자급적 삶의 기술로 농사를 익힐 기회를 주고 특히 소비의 중심지인 홍대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다.

홍대 지역에서는 가톨릭 청년회관 ‘다리’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공간을 얻

을 수 있었다. 가톨릭 청년 회관은 기존에도 청년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여성환경연대의 도시 텃밭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다.

이후 여성환경연대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또다른 움직임으로 마르쉐@이라는 도시장터를 기획하여 현재 2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마르쉐@에서 @는 영어로 at으로, 마르쉐@혜화동 등 다양한 장소를 이동하면서 열리는 도시 장터를 위한 제목이다. 기존에 여성환경연대가 운영해오던 문래동과 홍대의 도시 텃밭과 타 지역의 도시텃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요리사들도 참여하여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나눈다는 목적 아래 진행하고 있다.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여성환경연대 사례에서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는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이다. 여성환경연대는 특정한 지역에 깊은 관계를 맺는 대신에 문래동, 홍대 앞 등 도시 내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을 고려하여 도시텃밭 활동을 벌이고 있다.

####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여성환경연대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향후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빈 땅을 가능한 시간 내에 활용하는 ‘영향 없음(Stand in)’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소유주의 충분한 동의 아래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래동 사례와 같이 향후 재개발에 지해가 된다는 주변 지역 소유주의 입장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2) 공간적 분석



철공단지 내에 작가 작업실  
문래 창작촌 작업실 지도 참조 (2011년 12월, 문래 예술공장)

<그림 3-11> 여성환경연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위치도 / 그 중 문래도시텃밭과 주변의 문래 창작촌 현황

1) 문래도시텃밭

<표 3-10> 문래도시텃밭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조현지 촬영, 2012년 8월 24일

<그림 3-12> 문래도시텃밭

유형	지역 공동체 활용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도시농업	공간형태	데드 스페이스(건물 옥상)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11년 5월 ~	장애사항	건물 소유주와의 계약 연장 문제 / 재개발을 원하는 주변 건물 소유주와의 마찰

이들이 문래도시텃밭을 운영하면서 가진 목적 중에 하나는 새롭게 유입된 젊은 창작 집단과 기존에 철공소를 운영하던 주민들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공동체 증진을 위한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함이다.

세현 정밀 사장인 덕진 씨는 예술가들이 지역에 들어온 이후로 지역의 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친절한 덕진 씨’로 이름 붙이며 지역의 활성화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친절한 덕진 씨’ 57)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통 공장 주인들은 작가들의 활동들에 무관심하며 처음 작가들이 유입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에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또한 철공소는 아침부터 낮 시간, 작가들은 저녁시간으로 생활시간이 달라 서로 소통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작가들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텃밭을 통해서 그 관계는 더 성장하였다.

철공소 주인들이 낮 시간에 텃밭을 방문할 기회는 적지만 텃밭 운영자들이 이동형 텃밭을 철공소에 제공하면서 이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단체의 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 현재는 기존의 철공소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홍대텃밭 다리

〈표 3-11〉 홍대텃밭 다리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마리끌레르 공식 블로그 <http://Wannabem.co.kr>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13〉 홍대텃밭 다리

유형	지역 공동체 활용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도시농업	공간형태	데드 스페이스(건물 옥상)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12년 7월 ~	장애사항	해당없음

57) 8월 24일 인터뷰

홍대텃밭 다리는 현재 8개의 팀이 분양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 그린디자이너 (Green designer)들로 구성된 ‘그린핀’, 궁궐길라잡이들의 모임인 ‘수랏간’, 마포주민 모임 ‘마포농민’, 홍대 정문 앞 스튜디오 ‘로프트D’, 레게 밴드 ‘와다다 사운드’, 독립잡지 순진의 ‘순진한 텃밭’, 가톨릭 청년회관 내 문화사업부 ‘동네방네’, 홍대 앞 카페 ‘수카라’ 가 그 팀이다.

문래도시텃밭에 비해 홍대텃밭 마리는 홍대라는 지역 특성상 좀 더 다양한 구성원이 텃밭에 참여하게 되었다. 행사가 있을 때 마다 주변 지역의 홍대 밴드들이 축하공연을 하는 등 텃밭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문래도시텃밭과는 달리 문화 행사를 위한 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 3) 마르쉐@(Marche at)

〈표 3-12〉 마르쉐@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박은영, “철공단지 옥산 텃밭,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오마이뉴스』 (2012 10월 15일)

〈그림 3-14〉 마르쉐@ 혜화동

유형	지역 공동체 활용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벼룩시장	공간형태	공공공간(공개공지)
위치	서울시 곳곳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12년 10월~ (2013년 6월까지 매월 둘째 주 토요일/2013년 5월부터 장소 고정 정례화)	장애사항	해당없음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열린 마르쉐@은 벼룩시장의 형태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장소를 옮기며 개최된다. 첫 번째 마르쉐인 마르쉐@혜화동은 아르고 미술관의 앞 공개 공지에서 열렸으며 벽제, 성북동, 암사동 등 서울 근교의 작은 텃밭을 지닌 40여 팀의 농부와 요리사, 아티스트(Artist) 팀이 협력하였다.

#### 4) 여성환경연대 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지역 공동체 활용

##### ① 도시농업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많이 나타나는 용도 중 하나는 공동체 텃밭 등의 도시 농업 프로그램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공간 조성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설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농업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대형 유통 시장으로 인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유기농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농업 활동 중에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게릴라 가드닝(Guerrilla Gardening)’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도시민 사이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직접 재배에 대한 욕구가 성장하는 가운데, 접근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장 오래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유형 중 하나로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용어는 작가 리즈 크리스티(Liz Christy)와 그의 1973년 뉴욕(New York)의 바우어리 허우스턴(Bowery Houston) 지역에서 조직된 그린 게릴라(Green Guerrilla)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sup>58)</sup> 이들은 맨해튼(Manhattan)의 로어 이스트사이드(Lower East Side)의 이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정원으로 가꾸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는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운동가들이 이에 참여하였다. 이어 1978년에는 뉴욕 시에서 ‘그린 텀(Green Thumb)’을 설립하여 공동체 텃밭(Community Garden)을 위해 토지를 임대하는 것을 돕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뉴욕의 공동체 텃밭은 750개에 이르고 있다.<sup>59)</sup>

이러한 움직임은 사유지를 공동체를 위한 공공적 용도로 변형하여 대중에게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지역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적은 오래된 지역의 경우 이와 같은 시도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다. 문래동의 경우에는 도시공간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옥상 공간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58) 그린게릴라(Green Guerrilla) 공식 홈페이지 <http://www.greenguerrillas.org/> (2012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59) Florian Haydn, Robert Temel, *ibid.* p. 251.

## ② 농산물 직판장(Farmer' s Market)

상업적 목적의 일시적 공간 활용의 시작은 매우 오래되었다. 길거리 장터들이나 노점상 등이 그러한 예로, 이는 또한 법적 허용을 벗어난 공공공간의 일시적인 점유 형태이다. 길거리 장터는 소비자와 더 근접한 곳에서 상행위를 벌일 수 있으며 부산하고 활발한 도시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그 중 특히 농산물 직판장(Farmer' s Market)은 약 10,000여 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도시와 분리되어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농민과 도시민이 직접 대면할 기회는 거의 없어졌다.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 될 경우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농사 인구가 도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이들이 도시 내에서 유지되게끔 도와주는 것은 도시 내에 자연 자원들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동시에 도시 인구가 신선한 먹거리를 직접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게 한다.<sup>60)</sup>

농산물 직판장은 도시 내에서 소비와 생산의 순환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도시 농부들의 대안적인 삶을 지속하게 한다. 이는 도시 내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원할 수 있다.

### 3.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서울시, 자립음악생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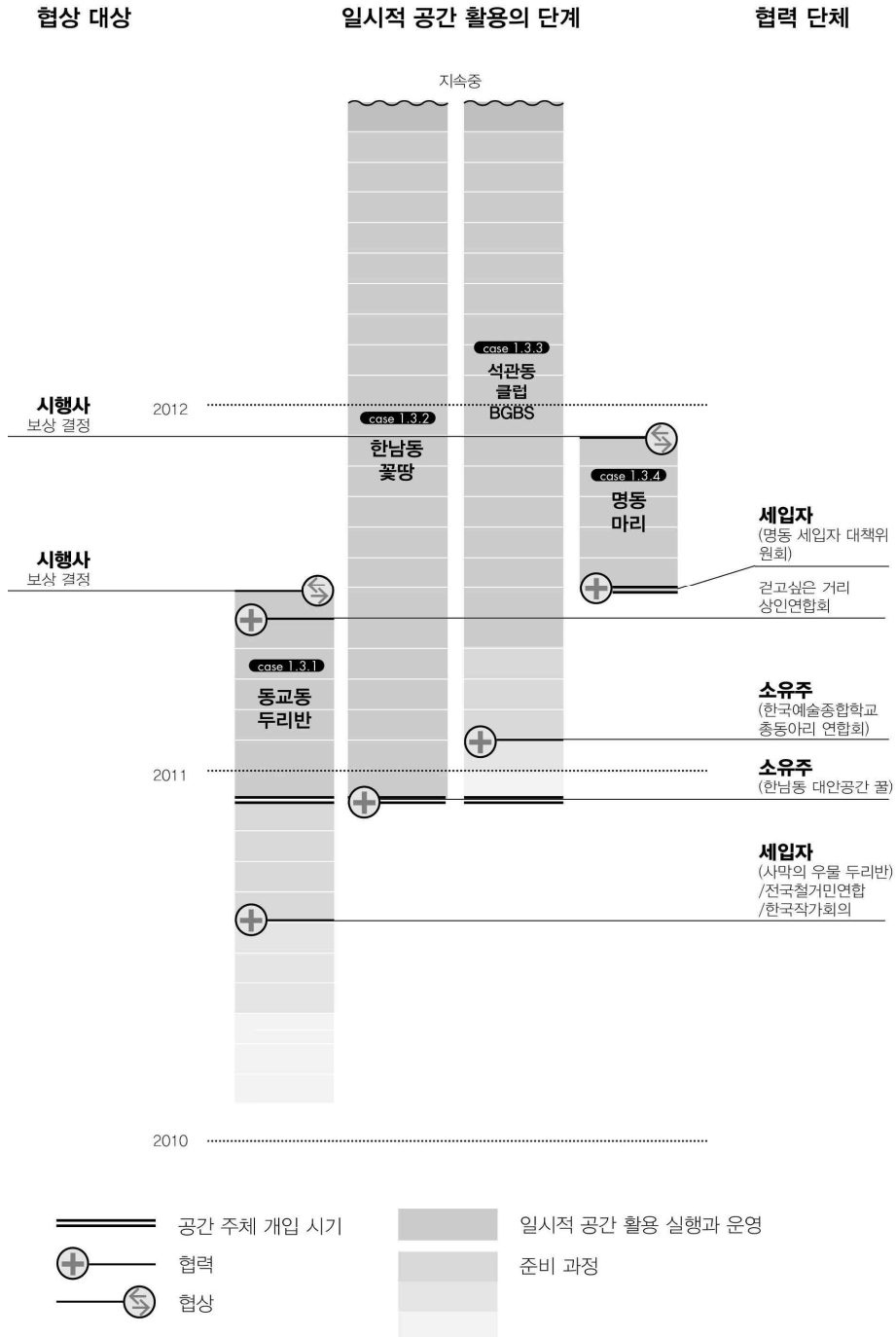
#### (1) 개요

자립음악생산조합은 2010년에 조직된 독립 음악가 단체로 2010년 후반 동교동 두리반에서 재개발 반대 운동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결성 이후 이들은 상업화된 홍대 독립 음악 씬(Scene)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60) Friends of the Earth for the Planet for People, *The Economic Benefits of Farmers' Markets* (2000)

(2) 협력 과정 분석



<그림 3-15> 자립음악생산조합의 협력 과정 분석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례에서 중요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자립음악생산조합이 공간 주체로 개입한 시기에 따라서 각 공간과 주체의 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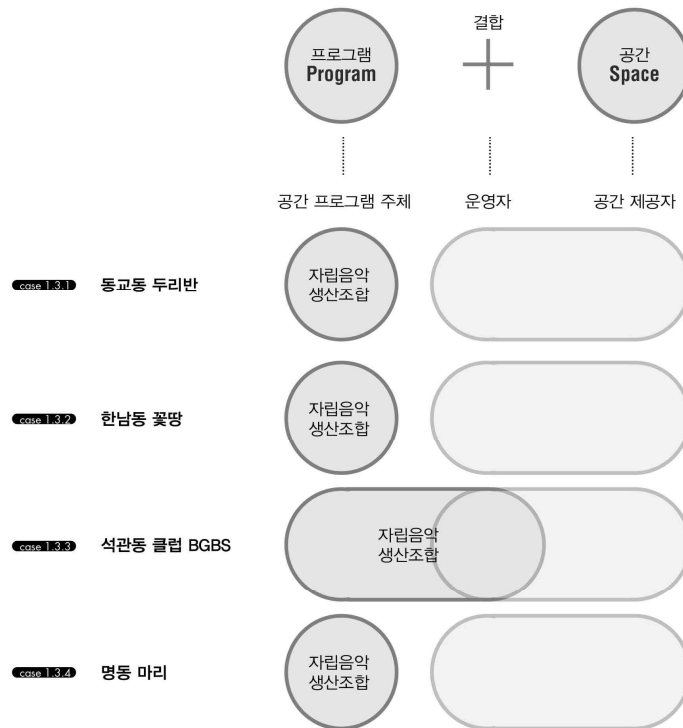
〈그림 3-16〉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별 공간 주체 개입 시기

첫 번째 종류인 동교동 두리반의 경우 처음부터 공간이 주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는 차이점이 있다<sup>61)</sup>. 2010년 1월에 세입자가 재개발 반대 농성을 시작하면서 지인인 시인들과 홍대 밴드들을 불러 모았으며, 이후 2월 〈그룹51〉이라는 이름의 자립음악생산조합 준비 모임이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홍대 밴드의 대안공연장의 성격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자립음악생산조합이 공식적으로 결성된 것은 2010년 11월로, 두리반이라는 일시적 공간은 이 예술 공동체의 육성 공간, 인큐베이터(Incubator)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종류인 석관동 클럽 BGBS는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처음부터 공간 조성 주체로서 역할하였다. 조합 준비와 동시에 홍대 두리반 이후의 공연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빈 동아리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후 자립음악생산조합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동아리 총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클럽 BGBS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즉 초기의 일시적 공간인 두리반은 주체를 강화하면서 이후의 클럽 BGBS 등 일시적 활용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한 역할을 하였다.

세 번째 종류인 클럽 꽃땅과 명동 마리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조성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유주나 세입자가 취지에 동의하여 이후 활용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주 역할을 하였다.

61) 이전의 농성 장소로서의 두리반도 일시적 공간 활용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자립음악생산조합이 설립되면서 홍대 밴드의 대안공연장의 성격으로 크게 달라졌으며, 이 성격이 이후의 공간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추어 도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3-17〉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역할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역할은 각 사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동교동 두리반과 한남동 꽃땅, 명동 마리에서는 운영의 역할을 공간소유주가 하며 자립음악생산조합은 단순히 공연이라는 공간의 프로그램(Program)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석관동 클럽 BGS에서는 자립음악생산조합이 공간소유주와 협력하여 직접 공간 운영까지 담당하고 있다.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례의 경우 ‘대상지와 관계없는 활용주체’ 유형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보다 지역에 상관없이 취지에 맞는 공간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취지에 맞는 공간이란 사회적 관계망과도 큰 관계없이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저렴하게 운영되는 공간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공간소유주와의 협력 관계 외에 지역 기반의 타 단체 등과의 협력이나 후원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공연비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례에서 협력과 협상의 관계가 공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가 각 공간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동교동 두리반과 명동 마리는 장기적 계획을 점거 등을 통해서 방해하는 ‘전복(Subversion)’의 유형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클럽 DGBS와 한남동 꽃땅의 경우 공간소유주의 동의하에 향후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용인 ‘영향 없음(Stand in)’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 (3) 공간적 분석



〈그림 3-18〉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주변 환경

## 1) 동교동 두리반

〈표 3-13〉 동교동 두리반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s1326> (2012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19〉 동교동 두리반에서의 공연 모습

유형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청년문화	공간형태	유희시설
위치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이용자	시인/작가/홍대인디밴드/관객
기간	2010년 2월~ 2011년 6월 (531일간/50여회 공연)	장애사항	농성기간 동안 물리적 충돌

두리반을 중심으로 자립음악생산조합이 결성된 데에는 주변 지역의 홍대 문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홍대의 독립 음악가 사이에서는 홍대 지역의 상업화에 대한 반발이 있었으며 두리반은 비슷한 사회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는 독립음악가를 비롯해 시인,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였으며, 기존에 주류 상업문화에 반대하는 대안문화의 중심지로서 홍대 지역이 가지고 있던 장소성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두리반은 공간을 제공한 세입자의 관점에서는 농성장의 역할을 하면서 홍대의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새로운 대안 공연장의 역할을 하였다. 공간의 이용자들도 다양하게 확장되었는데, 자립음악생산조합에 다수의 밴드들이 참여하면서 그들의 관객인 홍대 지역의 소비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 2) 한남동 클럽 꽃땅

〈표 3-14〉 한남동 클럽 꽃땅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꽃땅 <http://ccott-ddang.com/> (2012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0〉 한남동 클럽 꽃땅에서의 공연 모습

유형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청년문화	공간형태	유희시설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이용자	관객
기간	2010년 11월~(2011년 말 예정이었으나 2013년 봄까지 연장)	장애사항	철거 예정 문제

꽃땅은 대안공간 끝에 달려있는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연장이다. 2010년 8월에 문을 연 한남동의 대안 전시 공간 끝은 30여 년간 중국집, 쌀집, 꽃집 등으로 쓰인 2층짜리 건물을 활용하여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공간의 운영자는 설치 미술 작가 최정화로 권위적인 미술관과는 다른 종합 문화 공간으로 끝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러한 목적이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취지와 잘 부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2010년 11월부터 건물의 창고를 공연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변의 이태원 지역과는 달리 한남동 지역은 삼성 미술관 리움(Leeum)을 중심으로 고급 상점들이 들어서 있지만 대안공간 끝과 꽃땅이 개관하면서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젊은 독립 디자이너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에 공간들을 연계한 ‘사이사이’ 프로젝트 등이 열리고 있으며, 독특함을 원하는 이태원 지역의 소비층을 끌어들이고 있다. <sup>62)</sup>

62)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의 4장 2절 참조.

### 3) 석관동 클럽 DGBS

〈표 3-15〉 석관동 클럽 DGBS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박수환 촬영, 2012년 5월  
〈그림 3-21〉 〈51+〉 공연 (옥상)

유형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청년문화	공간형태	유희시설/유희용지/데드 스페이스 (옥상)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이용자	관객
기간	2010년 11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이후에 자립음악생산조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동아리 연합회의 협력으로 기존 동아리 연합회 건물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의 소유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조성되었으며 동아리 연합회와 조합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지하를 주로 사용하지만 큰 공연이 열릴 때에는 다른 층의 빈 공간도 함께 사용하며 주차장에서 베틀시장을 함께 열기도 한다. 하지만 캠퍼스 주변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된다.

### 4) 명동 카페마리

〈표 3-16〉 명동 카페마리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블로그 <http://asuravle.tistory.com/14> (2013년 1월 4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2〉 명동 카페마리에서의 공연 모습

유형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청년문화	공간형태	유희시설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이용자	관객
기간	2011년 4월~2011년 9월 8일	장애사항	사용 기간 동안 물리적 충돌

카페마리는 동교동 두리반과 유사한 사례로, 강제 철거 대상인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마리의 활동에서 두드러진 것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 SNS)을 활용한 공간 활용주체와 이용자의 소집이다. 이는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에서 전반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조합원들의 소통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공연 홍보, 앨범 발매 안내 등도 대체로 이를 위주로 한다. 특히 마리에서는 활용 기간 동안 시행사와의 물리적 충돌이 잦았으나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주변 협력을 요청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등 대응책으로 활용되었다.

##### 5) 자립음악생산조합 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창작 공동체의 상업화 대응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례는 홍대 지역의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sup>63</sup>에 대한 독립 음악가 공동체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이 초기에는 점거(스콧팅, Squatting)와 정치적 시위의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 이후의 활동에서는 단체의 목적이 구체화되어 홍대 앞 독립음악 씬(Scene)의 대안을 찾고자 하며 이에 공연 장소로서 값싼 임대료의 유희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는 독립 음악가뿐만 아니라 홍대 지역의 공연장들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경향이다. 클럽 꽃땅 외에도 2011년 7월에는 문래동에서 철공소 공장을 활용한 문래동 공연장 로라이즈(Low-rise)가 개관하였으며, 홍대의 라이브 클럽(Live Club) SSAM이 용산전자상가의 지하 창고로 이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주로 이렇듯 홍대 지역에서 밀려난 새로운 대안적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으며 이 공연장들

---

63)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에 주거에 한정되어 비교적 빈곤 계층이 많이 사는 정체 지역에 고소득계층이 모여드는 현상을 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도심의 시설이 현대의 “트렌디” 한 시설에 밀려날 때를 통칭하고 있다. (Neil Smith, Peter Williams, “Alternatives to Orthodoxy : Invitation to a Debate” *Gentrification of the City*(1986), Loretta Lees, Tom Slater, Elvin Wyly, *The Gentrification Reader*(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p. 9-10에서 재인용)

은 자립음악생산조합의 강력한 협력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연장은 값싼 운영비로 공연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여 오히려 홍대 공연장의 원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교동 두리반과 명동 마리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의식에 적극적인 공간의 후원자로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가 협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① 스콧팅(Squatting)운동

스콧(Squat)은 사전적 의미로는 ‘그 자신으로 웅크리들거나 숨는다’, ‘남의 땅, 또는 공유지에 무단으로 정착하다’, ‘미개간지에 정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sup>64)</sup> 자립음악생산조합의 두리반, 마리 사례는 예술 스콧의 성격과 도시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스콧 운동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이는 이들이 독립 음악가로서 기존의 경쟁적인 상업 음악과 대항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목적과 동시에 재개발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러한 사회 운동을 본인들의 무대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가 상업화에 대항하여 무단 점거를 통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적 질서가 요청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과 예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sup>65)</sup> 1980년대 프랑스(France) 파리(Paris)에서는 아르 크로쉬(Art Cloche)라는 이름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기존의 폭탄 창고였던 이곳은 화가, 조각가, 문인, 배우, 음악가, 무용가 등 모든 장르의 다국적 예술가들에 의해서 점거되었다. 1981년부터 1986년 강제 철거당하기까지 이들은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와 논쟁하길 바라며 혁명 정신을 가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콧을 사용하였다.

스콧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확장되어 이후 주거권 투쟁으로도 나타났는데, 이의 대표적인 단체인 ‘주거권(D.A.L: Droit Au Logement)’ 은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거리 캠프를 진행하였다. 동시에 쫓겨날 사람들을 위해 빈 집을 ‘징발(Requistions Populaires)’ 하고자 하는 운동을 진행하였다. <sup>66)</sup>

64) 김강, 『삶과 예술의 실험실스콧=Squat』 (서울: 문화과학사, 2008), p. 4.

65) 같은 책, p. 6.

66) 당시 파리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빈 공간이 증대되는 한편 부동산 가격은 급증하여 80년대 당시 방 한 칸짜리 공간의 약 47%가 비어있었고, 방이 두세 칸인 것 역시 45%가

이런 스쿼트 운동은 예술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여 다른 지점을 만들어 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도시공간의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로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공간의 다른 가능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논쟁적인 지점에 위치하지만 자립음악생산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 점거의 행위는 사회적 문제의식 표출의 계기가 되며 또한 공간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습득해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Squatting” 항목 <http://en.wikipedia.org/wiki/Squattin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3〉 스쿼터(Squater) 문양과 스페인 도심에서 발견된 문양

## ②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과 중간 지대

창작 집단의 상업화 대응을 도시적 측면에서 다루는데 있어서 도시의 창조적 환경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는 도시에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창조적 환경을 생각과 의견을 확장시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소프트(Soft)’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와 만남의 장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드(Hard)’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춘 장소로 정의하였다.<sup>67)</sup> 찰스 랜드리 이후의 *The Art of City Making*을 통해 창조성의 범위는 창조 산업과 미디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일상의 평범한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up>68)</sup>

창조적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창조 계층이나 예술가 등에 대한 지원으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이 생성 될 수 있는 도시의 다양

비어있었던 반면 주거 불안정자들은 30만명에 육박하였다. (D.AL, Droit au Logement(1996), p. 33, 김강, 같은 책, p. 47.에서 재인용)

67) Charles Landry, *The Art of City Making* (London: Earthscan, 2006) p. 163

68) *Ibid.* p. 29.

성을 담보하는 것에 있다.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일시적 공간은 창조적 환경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도시에서 창작 집단을 불러들일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하향식 접근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적절한 비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자 하는 노력에 일시적 활용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이에 *The Shadow City*에서는 리처드 플로리다의 창조도시론에 입각하여 사람들이 마주치고, 반대자들이 모이고, 새로운 생각들이 생성될 수 있는 용광로(Melting Pot)로서의 도시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러한 창조적 분위기를 북돋을 수 있는 도시에서의 역할로 자유 구역(Free-zone)을 논의 한다. 다양한 집단이 도시에 유입되는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움직임들은 주로 싸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원한다.<sup>69)</sup>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러한 공간의 예시가 될 수 있다.

#### 4. [무대로서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리바(Rebar)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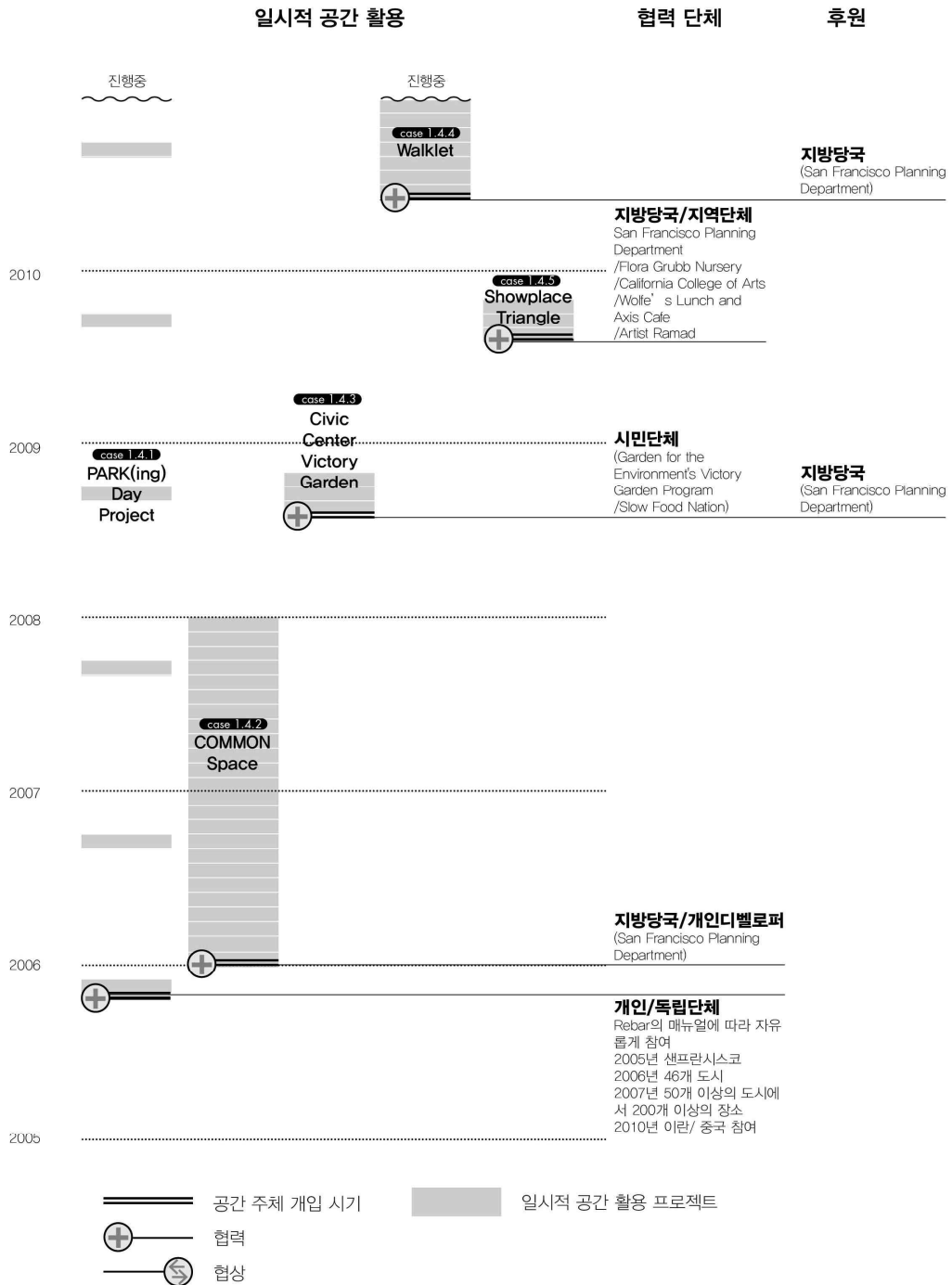
리바(Rebar)는 2004년에 설립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기반으로 한 작가와 활동가, 그리고 디자이너(Designer) 그룹이다. 이들은 조경 분야와 공공 영역에 대한 디자인 대안을 제시하는 설계 그룹이며 사회적 접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 연구한다.

---

69) Urban Unlimited Rotterdam, *The Shadow City : Freezones in Brussels and Rotterdam* (2004), p. 18-20.



(2) 협력 과정 분석



〈그림 3-24〉 리바(Rebar)의 협력 과정 분석

리바(Rebar)는 주로 공개 공지나 주차장, 주차차선 등 공공공간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고 활력을 잃은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파킹 데이 프로젝트(PARK(ing) Day Project)로 이들은 2005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주차 차선에 임시적 설치물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변형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이를 오픈 소스<sup>70)</sup> 플래닝(Open Source Planning)방식으로 매뉴얼(Manual)을 공개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어 2007년에는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200개 이상의 장소가 만들어졌고 뉴욕(New York) 등에서는 하나의 도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는 협의 과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자발적 협력을 통해 활동을 확장시킨 사례이다.

이후에도 리바는 같은 취지의 활동을 지속하여 상업 시설의 공개공지를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인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등을 진행하였다. Rebar의 취지는 점차 시민들과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에서 도시농업을 실험한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 프로젝트는 빅토리 가든 프로그램(Victory Garden Program)과 슬로우 푸드 네이션(Slow Food Nation)의 협력,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방당국의 후원 아래 실행되었다.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

리바 사례에서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는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이다.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지역공동체 자체와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기보다는 공공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략적 장소를 선택하여 일시적 활용을 실행한다. 이러한 의도는 파킹데이 프로젝트의

---

70) 오픈소스는 주로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용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혹은 OSS라고도 한다. 이는 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또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이것을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2012년 12월 6일 마지막 접속)

매뉴얼에서도 잘 드러난다.<sup>71)</sup>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리바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향후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빈 땅을 가능한 시간 내에 활용하는 ‘영향 없음(Stand in)’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임시 설치(Intervention)의 형태를 보인다.

(3) 공간적 분석

1) 파킹데이 프로젝트(PARK(ing) Day Project)

〈표 3-17〉 파킹데이 프로젝트(PARK(ing) Day Project)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파킹데이 프로젝트(PARK(ing) Day Project) 공식 홈페이지 <http://my.parkingday.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5〉 뉴욕의 파킹데이 프로젝트(PARK(ing) Day Project)

유형	무대로서의 도시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공공공간 (도로 - 주차차선)
위치	세계 곳곳 <sup>72)</sup>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05년~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	장애사항	해당없음

파킹 데이 프로젝트는 리바의 초창기 작업이다. 이들은 2005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주차 차선에 임시적 설치물을 조성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변형

71) 파킹데이 프로젝트 매뉴얼에서는 “추징 더 스팟(Choosing the Spot)” 장을 통해 공간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72) 2010년 : 800개 장소, 183개 도시, 30개국(2개 령 포함), 6개 대륙

2009년 : 750개 장소, 140개 도시, 21개국, 6개 대륙

2008년 : 600개 장소, 100개 도시, 13개국, 4개 대륙

2007년 : 200개 장소, 50개 도시, 9개국, 4개 대륙

2006년 : 47개 장소, 13개 도시, 3개국, 2개대륙 (이상민, 엄운진, 앞에 든 보고서, p. 133.)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후 이를 매뉴얼 통해 공개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뉴얼은 웹(Web)상에서 쉽게 내려받기(Download) 가능하며 취지와 방법에 대한 소개가 담겨있다. 주차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바닥 설치 방법, 그리고 지방 당국의 공공공간 정책에 대한 접근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담을 통해 각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소개 하고 있다.

파킹 데이의 프로그램은 피크닉(Picnic), 결혼식, 요가(Yoga), 기타 스포츠(Sports) 활동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밖에 동성결혼, 고용평등, 물 관리와 같은 정치적 이슈(Issue)에서부터 특정한 커뮤니티(Community)가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이벤트(Event) 장소 등 사회적 논의가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권장되고 있다. <sup>73)</sup>

주차 비용은 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안 설치하는 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법적인 절차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보이는 시민과 공무원에게 공간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주된 내용은 이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며 건강하고 활발한 도시공간을 위한 행위임을 주변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활동은 주로 웹상의 파킹데이 네트워크(PARK(ing) Day Network)<sup>74)</sup>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유롭게 참여한 세계 곳곳의 파킹데이 참가자들은 이후에 활동 사진과 기록, 위치를 웹상에 기재하게 된다.

---

73) 같은 책 p. 135.

74) PARK(ing) Day 공식 홈페이지 <http://my.parkingday.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 2)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

〈표 3-18〉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리바 공식 홈페이지 <http://rebargroup.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6〉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의 퍼포먼스(Performance)

유형	무대로서의 도시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공공공간(공개공지)
위치	샌프란시스코 곳곳의 공개 공지 14곳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06년 5월~2007년	장애사항	해당없음

커먼 스페이스(COMMON Space)는 상업 시설의 공개공지를 공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공개공지는 1985년에 다운타운 플랜(Downtown Plan)에 의해서 높은 용적률의 상업 지구를 건설하면서 공공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곳곳에 총 14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되었다. 하지만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공개 공지는 대체로 CCTV등 강력한 사적 감시 속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리바는 첫 단계로 웹 기반의 포럼(Forum)을 작성하였다. 14개의 공개 공지에 대한 정보와 지도를 공유하고 누구나 이 장소를 찾은 사람들이 답사 후에 공간에 대한 의견을 남기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스냅 아웃 오브 잇(Snap Out of It)이라는 퍼포먼스(Performance) 그룹과 함께 이 14개의 공개 공지에서 파라포먼스(Paraformances)라는 이름의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퍼포먼스는 ‘연 날리기(Kiteflying)’, ‘낮잠자기(Napping)’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답사 보고서와 협의를 통해 기획되었다.

이는 향후의 샌프란시스코 시 당국의 관심을 이끌어내 샌프란시스코 도시 계획 연구 그룹(San Francisco Planning and Urban Research Association , SPUR)에서 공개 공지의 공공 개방을 위해 이에 대한 새로운 권고 사항을 추가 하게 되었다.

### 3)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

〈표 3-19〉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리바 공식 홈페이지 <http://rebargroup.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7〉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의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

유형	무대로서의 도시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도시농업	공간형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위치	샌프란시스코 시청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08년 7월~2008년 9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은 빅토리 가든 2008+(Victory Garden 2008+)의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로 시작하였다. 빅토리 가든은 본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 전쟁으로 인해 공공의 음식에 대한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나타난 프

로젝트이다. 이는 워 가든(War Gardens) 혹은 푸드 가든 포 디펜스(Food Gardens for Defense)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생활권 내에 접근 가능한, 일상적인 농업 행위로서의 빅토리 가든에 초점을 맞춰 2008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빅토리 가든 2008+이다.

샌프란시스코 시청은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옥상을 유기농 식품의 재배 장소로 제공하였다. 929㎡에 이르는 총 공간에서 매주 45kg에 달하는 신선한 유기농 채소가 생산되었고 이는 모두 샌프란시스코 푸드뱅크(Food Bank)<sup>75</sup>에 기부되어 시의 전 지역에 식사로 제공되었다. 이는 생산 경관(Productive landscap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도시 공공공간의 새로운 역할을 실험한 대표적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 4) 워크렛(Walklet)

〈표 3-20〉 워크렛(Walklet)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리바 공식 홈페이지 <http://rebargroup.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8〉 워크렛(Walklet)의 설치 모습

유형	무대로서의 도시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공공공간 (도로 - 주차차선)
위치	샌프란시스코 거리 곳곳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10년 5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워크렛(Walklet)은 파킹데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리바에서 주차차선을 위한 임시 설치물을 디자인 한 것으로 4개의 모듈(Module)로 이루어져 있어 이동이 가능한 쉼터를 마련할 수 있다.

75) 식품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받아 이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시 서비스 단체 (두산백과 “푸드뱅크” 항목, <http://terms.naver.com>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 5) 쇼플레이스 트라이앵글(Showplace Triangle)

〈표 3-21〉 쇼플레이스 트라이앵글(Showplace Triangle)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리바 공식 홈페이지 <http://re bargroup.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그림 3-29〉 쇼플레이스 트라이앵글(Showplace Triangle)

유형	무대로서의 도시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공공공간 (옥외주차장)
위치	샌프란시스코 Potrero Hill neighborhood	이용자	지역 주민
기간	2009년 가을	장애사항	해당없음

쇼플레이스 트라이앵글(Showplace Triangle)은 샌프란시스코 시의 요청으로 시작한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샌프란시스코의 토지 중 25%는 시 소유로 공원 외의 면적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sup>76)</sup> 이에 리바는 쓸모없이 남겨진 공공소유의 삼각형 모양 부지를 주변 지역의 주민을 위한 쉼터로 조성하였다.

### 6) 리바(Rebar)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무대로서의 도시 - 애매한 도시공간의 활용

리바 사례는 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활용되지 않는 애매한 공간을 공공을 위한 장소로 바꾸는데 의의가 있다 이런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Loose Space*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sup>77)</sup>

*Loose Space*에서는 도시 공공공간은 도시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는 데에 큰 목적을 두지만 안전을 위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다양한 도시 이용자를 반영하는 데에는 더 큰 한계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Deuthche는 오히려 “공공선” (The Common Good)의 개념을 어디에나 적용하고자 하는

76) 리바 공식 홈페이지 <http://re bargroup.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77) Frank, Karen A., Stevens Quentin, *Loose Space*(London: Routledge, 2007)



통념적인 모델(Model)로서의 공공공간으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의 특징과 장소가 위협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sup>78)</sup> 이들은 디자인을 통해 암묵적으로, 하지만 강제적으로 주변부를 제거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강한 규제가 없는 느슨한 공간들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연한 발견들을 돕는다. 이와 같은 느슨한 공간은 도시성의 몇 가지 특성을 잘 보여준다. 그 특성들은 접근성, 선택의 자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과 활동, 관계 맺기와 밀집이다.<sup>79)</sup> 여기서 말하는 느슨한 공간이란 공공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빈 공간들(Urban Void), 애매한 공간(Vague Terrain), 경계 공간 등을 의미한다.

리바는 이러한 공간들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도로와 인도의 경계 공간에 머무르던 주차 차선은 가로를 따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우연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접근성을 가진 공공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마찬가지로 공공공간이지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던 애매한 공공공간인 공개 공지도 각자의 정체성을 투영한 무대로서 새롭게 기능할 수 있었다. 리바의 사례를 비롯한 많은 일시적 공간 활용은 도시의 잠재된 공간들을 발굴해 내 시민에게 개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5. 소결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공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공간 활용주체와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소유주, 그리고 그 둘을 결합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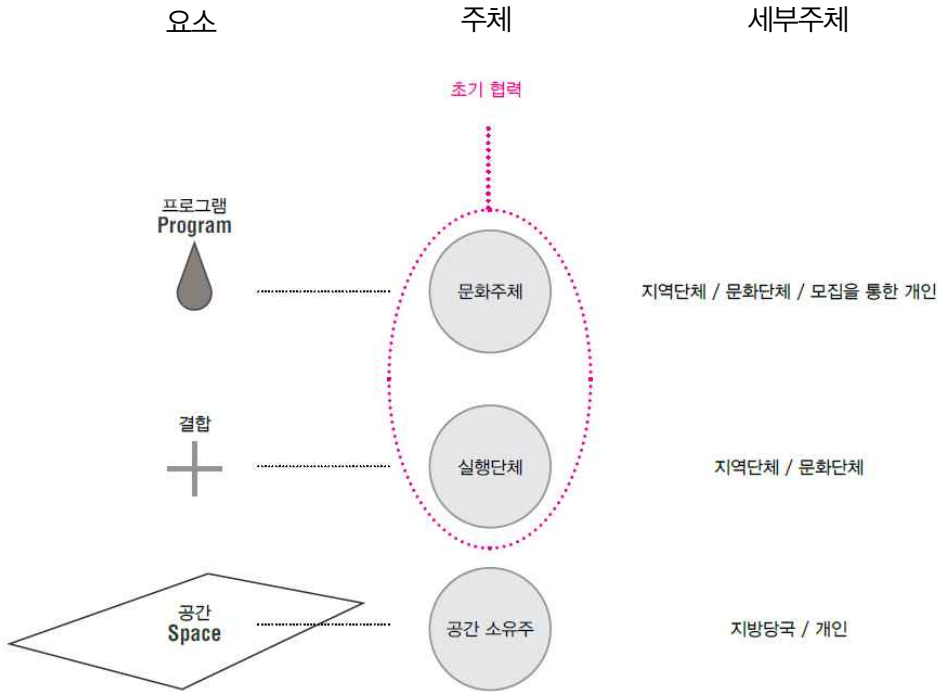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공간 활용주체는 지역 단체, 문화단체, 모임을 통해 결집된 개인 등 다양하다. 이를 문화주체라고 표현한다. 이 문화주체와 획득한 공간 간에 결합을 이루는 것은 사례에 따라서 문화주체와 동일한 집단일 수도 있고 지역단체, 문화단체 등으로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실행단

---

78) Deutsche, R, *Evictions: Art and Spatial Politics* (Cambridge: MIT Press, 1996), *Ibid*, p. 2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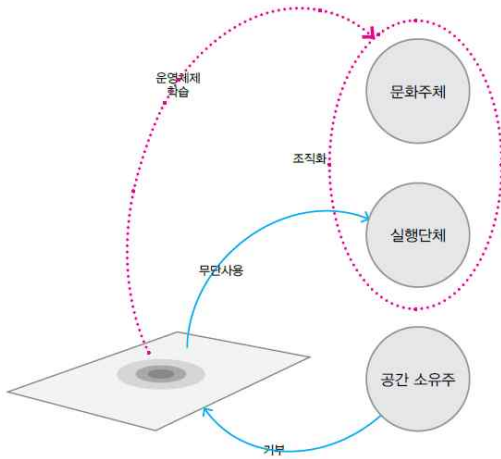
79) *Ibid*, p. 23.

체라고 표현한다.



〈그림 3-30〉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협력주체 간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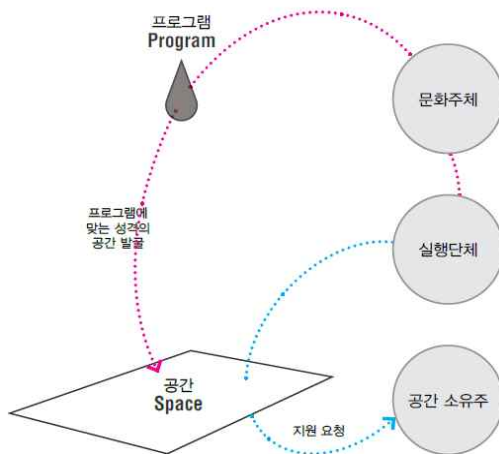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협력주체 간의 특징은 계획적 접근과 비교했을 때 문화주체와 실행단체 간에 초기 협력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자생적 일시적 공간 활용의 협력 과정은 주로 문화주체와 협력하고 있는 실행단체가 프로그램에 맞는 공간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뚜렷한 단계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3-31〉 공간발굴 과정

### ① 공간 발굴

첫 번째 과정은 필요한 공간을 발굴해 내는 과정으로, 문화주체와 협력하고 있는 실행주체는 프로그램에 맞는 성격의 공간을 발굴해내 공간소유주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임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림 3-32〉 공간소유주와의 협상 / 운영체제 학습 과정

### ② 공간소유주와의 협상 / 운영체제 학습

공간소유주가 임시 활용을 알아차리고 거부하거나 지원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공간소유주가 적극적인 협력 관계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에 저해가 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소유주의 거부 의사 표현과 암묵적 활용 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부정적임에도 묵인해주는 경우, 혹은 물리적 충돌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문화주체가 시위의 성격을 가지고 활용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실행단체와 문화주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강력한 거부 의사에도 활용을 지속 하는 경우는 주로 무단 점거 행위 자체가 단체의 성격을 드러내거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경우 대상지의 장기적 계획과 일시적 공간 활용 간의 관계는 ‘전복(Subversion)’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과 일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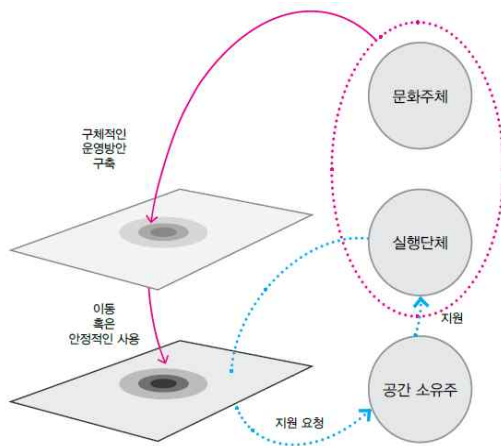
공간 활용주체 간의 관계 구분으로 보면 대상지와 관계없는 활용자이거나 대상지의 사회적 관계망 내부에만 관심이 있는 활용자인 경우가 주로 이러한 유형이다. 여기서의 사회적 관계망이란 목적이 같은 문화단체 등을 이른다.

이 무단 사용, 혹은 암묵적 사용에서 문화주체와 실행단체는 외부에 대응하며 운영체제를 학습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이 두 주체간의 협력을 공고하게 하는 과정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간을 물색하거나 협력 단체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 3-22〉 각 사례에서 ② 공간소유주와의 협상 /운영체제 학습의 단계

사례	공간소유주와의 협상	운영체제 학습
자립음악생산조합	공간소유주의 강력한 거부 의사 표현과 지속적 활용	조합 설립
대안공간 눈	수원화성사업소의 묵인과 실험적 활용	레지던스로 인한 지역 문화 업체 유입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긍정적인 설정
여성환경연대	공간소유주의 부정적 의사 표현과 절반의 텃밭 철회	문래도시텃밭을 통한 도시농업 실험과 긍정적 평가
Rebar	첫 번째 파킹 프로젝트에서 지방 당국의 거부 의사 표현과 장소 이동	이후 인지도 확장

### ③ 안정적 활용



〈그림 3-33〉 안정적 활용 과정

세 번째는 안정적 활용에 접어드는 시기이다. 많은 일시적 활용이 안정적 활용까지 지속되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진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문화주체와 실행단체간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 과정을 통해 이 관계가 공고해지거나 확장하는 경우 안정적인 활용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주체와 실행단체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 소유주의 동의를 얻게 된다. 기존의 공간에서 일시적 활용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동하는 경우 공간소유주는 이들의 취지에 동의하여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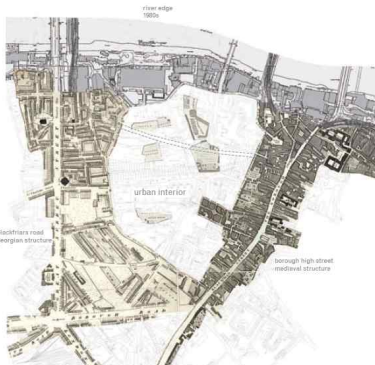
### 제3절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 1. 런던,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Bankside Urban Forest)

##### (1) 개요

2008년부터 서더크(Southwark)당국<sup>80</sup>과 베리 뱅크사이드(Better Bankside), 테이트(Tate)의 주도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템스(Thames) 강의 남쪽 내부지역의 가로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로 이루어졌다. 주로 뱅크사이드(Bankside)지역의 새로운 개발과 기존에 존재하던 공공공간들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는 2000년대 들어서 테이트 모던(Tate Modern)<sup>81</sup> 등을 통해 템스 강의 사우스 뱅크(South Bank) 지역이 발달한 것에 비해 내부지역(Urban interior) 지역은 아직 어떠한 특징도 없이 중간 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강변과 오래된 전후(Post-war) 공공 임대 주택 사이에 끼인 지역으로 버려진 오래된 창고와 공장 건물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고가교(高架橋)로 이등분되어 분절되어 있다.



출처 : Better Bankside(2010)

〈그림 3-34〉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대상 구역인 내부지역



출처 : 조현지 촬영, 2012년 7월

〈그림 3-35〉 고가교 하부에 공간을 조성하는 모습과 입주해있는 작업실

80) 템스 강 남안에 위치한 런던의 자치구.  
81) 2000년에 완성된 현대미술을 위한 미술관.

(2) 협력 과정 분석



<그림 3-36>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협력 과정 분석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는 베리 뱅크사이드(Batter Bankside) 테이트(TATE), 위더폴드 왓슨 만 건축(Witherford Watson Mann Architects)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프로젝트다. 그 외에 위의 세 그룹을 포함하여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크로스 리버 파트너십(Cross River Partnership), 랜드 시큐리티(Land Securities), GC 뱅크사이드 LLP(GC Bankside LLP), 런던 건축 재단(London Architecture Foundation), 그리고 지역 이해당사자(Stakeholders)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주체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같은 목표 하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의 다섯 가지 목표 중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4. 도심 재생은 작은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mall-scale)과 연결(Networking)에 기반한다. 이는 경제, 사회, 문화 그룹간의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다.

5.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개별 프로젝트들은 공통의 원칙에 기반한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는 공공과 민간 파트너, 투자자의 공공 목표를 재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Witherford Watson Mann Architects, *Bankside Urban Forest* (2008), p. 4.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대상 구역인 내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이 등장한 것은 리도(Lido) 프로젝트로 이는 공공의 주도와는 상관없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개인 토지 소유주이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로저 조골로비치(Roger Zogolovich)의 주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였다. 그는 리도 프로젝트가 발생한 100유니온 스트리트(Union Street)의 유희용지를 약 10년간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런던 지역에서 초기의 일시적 공간 활용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크게 관심을 받았다.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로 참여한 EXYZT는 이후에 같은 공간인 100 유니온 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해크니(Hackney)의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프로젝트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프로젝트 디렉터로

도 참여하게 되었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0년으로 100 유니온 스트리트에서는 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매해 런던 건축 박람회를 열게 되었다. 그 밖에도 뱅크 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이자 지역의 관리 운영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지구개선프로그램(BID :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up>82)</sup>인 베리 뱅크사이드가 빈 상업 공간을 제공하여 일시적 공간 활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대상지와 주체와의 관계는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 유형과 ‘지역 공동체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시재생에서 지역 문화주체 개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사례도 이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주로 전략적으로 지역의 주요 지점의 사유지를 공공 용도로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가로 환경과 외부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동시에 지역 인적 자원을 공간 활용주체로 끌어들여 활발한 이용을 도모한다.

###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사례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는 특정한 대상지 내에서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활용이 일어나는 공간은 향후의 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빈 공간으로서, 일시적 활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므로 빈 땅을 가능한 시간 내에 활용하는 ‘영향 없음(Stand in)’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접한 지역의 장기적 계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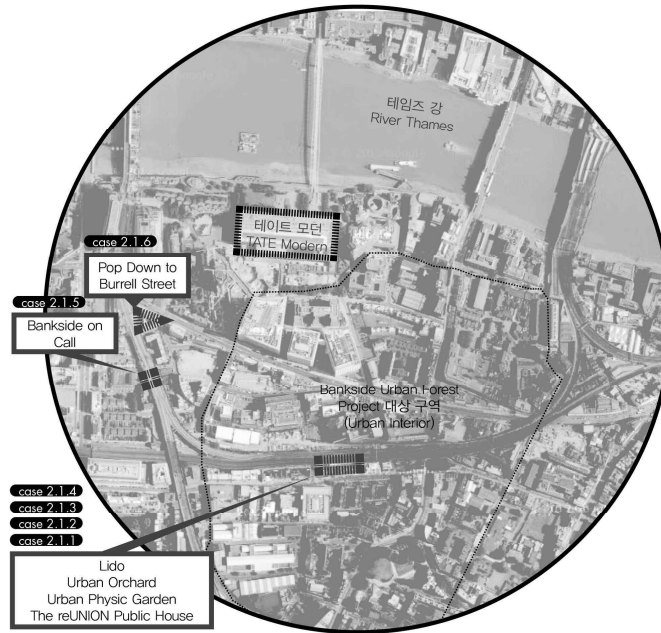
---

82) BID는 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 상인 혹은 사업주들이 그들이 속한 지역의 치안 유지와 공공시설 유지 보수 등의 공공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지역관리 운영수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TMO 및 Area Management 등이 있다. (조상운,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의 관리운영수법도입에 관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010)



고려해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고려하면 장기적 계획을 촉진시키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3) 공간적 분석



<그림 3-37>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와 주변 지역 맥락

1) 리도(Lido)

<표 3-23> 리도(Lido)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Better Bankside(2010)

<그림 3-38> 리도(Lido)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x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유희용지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08년 여름	장애사항	해당없음

100 유니온 스트리트는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중요한 프로젝트 대상지 중에 하나이다. 약 800제곱미터에 이르는 이 장소는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시적 공간 활용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2008년 진행된 리도(Lido)는 커뮤니티(Community) 중심의 문화 공간 프로젝트로 야외 사우나, 바(Bar), 수영장 등을 임시적으로 설치하였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내, 혹은 그 외부인과의 우연한 만남을 만들면서 일상적이면서도 비밀 상적인 도시 캠핑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리도가 해체된 이후 리도에 설치에 사용되었던 모든 재료들은 다시 도시와 지역 주민 등에게 환원되었다. 두 개의 해변 오두막은 뱅크사이드 오픈 스페이스 트러스트(Bankside Open Spaces Trust)에 기부되어 서터크의 다른 공간에서 사용되었고, 다른 두 개는 버로우 마켓(Borough Market)으로, 나머지 여섯 개는 후원자에 의해 구매되었다. 식물은 이웃과 뱅크사이드 오픈 스페이스 트러스트에 전달되어 지역의 공동체 정원(Community Garden)에 심어졌다. 갑판 의자는 프로젝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 지원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가장 많이 쓰였던 나무와 파이프는 재료는 기후 캠프를 위한 생태 캠프장에 기증되었고 이후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를 설치하는 데에도 쓰였다.<sup>83)</sup>

## 2)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

〈표 3-24〉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Better Bankside(2010)

〈그림 3-39〉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x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유휴용지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10년 6월~9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83) 최혜미, 앞에 든 논문, p. 37.

두 번째 프로젝트는 2010년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로 도시농업 프로젝트로 진행되었다. 어반 오차드는 과수원 용도 이외에도 파티,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한 대여도 가능하게 운영되었다.

어반 오차드는 조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을 잘 보여준다. 시민들은 자신이 키우기 어려운 식물을 어반 오차드에 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정원 일부분에서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어반 오차드가 해체될 때 식물을 기부한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식물과 교환할 수 있었고 나머지 식물은 지역의 학교와 이외의 공동체 텃밭에 기부되었다. 이 전 과정은 책으로 엮어져 시민들과 공유되었다. 이러한 어반 오차드의 시스템은 일시적인 공간 활용이 물리적인 조성 자체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지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안을 보여준다.

### 3) 도시 약초 정원(Urban Physic Garden)

〈표 3-25〉 도시 약초 정원(Urban Physic Garden)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Urban Physic Garden 공식 페이스북

〈그림 3-40〉 도시 약초 정원(Urban Physic Garden)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x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유희용지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11 6월 ~9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약초 정원은 100 유니온 스트리트의 세 번째 프로젝트이다. 200여명의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치료 목적의 약초를 재배하였다. 이는 이전의 어반 오차드와 비슷한 조성 과정을 활용하였다. 약초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약초는 주변의 병원과 약국을 통해서 지원 받았다. 이후 이 장소에서 재배된 수천 개의 약초들은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환원되었다.

4) 더 리유니온 도시 캠핑(The reUNION Public House)

〈표 3-26〉 더 리유니온 도시 캠핑(The reUNION Public House)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 7월 16일

〈그림 3-41〉 더 리유니온 도시 캠핑(The reUNION Public House)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x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유휴용지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12 6월 ~9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리유니온 도시 캠핑(The reUNION Public House)은 100 유니온 스트리트의 네 번째 프로젝트이다. 이는 최초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EXYZT가 마찬가지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집단 캠핑을 통해 도시공간을 지역 공동체에 되돌려 준다는 취지로 진행하였다. 특히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과 맞물려 올림픽 관람객들의 캠핑 장소를 마련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간 구성에는 바(Bar), 수영장을 비롯하여 캠핑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목공소도 포함되었다. 이에 이용자는 게임 도구, 벤치, 쉼터 등 필요한 물건을 공간에서 바로 제작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리유니온 도시캠핑은 기존 100 유니온 스트리트에서의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내에서 지역 공동체의 만남의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도시민들에게 색다른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5) 뱅크사이드 온 콜(Bankside on Call)

〈표 3-27〉 뱅크사이드 온 콜(Bankside on Call)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Better Bankside(2010)

〈그림 3-42〉 뱅크사이드 온 콜(Bankside on Call)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x
프로그램 유형	미술 (전시, 퍼포먼스)	공간형태	유휴시설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10년 6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주요 주체중 하나인 베러 뱅크사이드(Better Bankside)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팝업 스페이스(Pop-up Space)이다. 런던 건축 박람회 기간에 그를 위한 장소로 제공되었다. 지역의 부동산 소유주로 이루어진 베러 뱅크사이드는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목적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빈 건물과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협력하고 있다.

뱅크사이드 온 콜은 주로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의견을 얻는 전시장 역할을 하였다. 이와 함께 미술 전시장의 역할도 하였는데 뱅크사이드 온 콜의 미술 전시는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취지를 담아 개인의 일상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과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을 묘사하는 일련의 작업들로 구성되었다.<sup>84)</sup>

이 공간의 성공을 통해 베러 뱅크사이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팝 다운 투 버렐 스트리트(Pop Down to Burrell Street) 등의 일시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84) 뱅크사이드 온 콜의 전시 중에는 아티스트 Bruce Gillbert의 사운드 설치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작업은 지역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을 담은 주민의 인터뷰를 이용한 작업이었다. (<http://www.artvehicle.com/events/288> 2012년 12월 3일 마지막 접속)

6) 팝 다운 투 뷰렐 스트리트(Pop Down to Burrell Street)

〈표 3-28〉 팝 다운 투 뷰렐 스트리트(Pop Down to Burrell Street)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Better Bankside(2010)

〈그림 3-43〉 팝 다운 투 뷰렐 스트리트(Pop Down to Burrell Street)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x
프로그램 유형	미술 (전시, 퍼포먼스)	공간형태	유희시설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10년 9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뷰렐 스트리트(Burrell Street)는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전체 마스터플랜(Master Plan) 상 주요한 연결지점에 해당한다. 이에 베러 뱅크사이드는 뷰렐 스트리트의 빈 공간을 누구나 신청하는 이에게 전시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공간의 사용자는 주변 대학 런던 사우스뱅크 대학(London South Bank University)출신인 사진과 그래픽 디자인(Graphic Design) 전공 학생들의 전시로 이루어졌다. 전시와 함께 공공 비평의 기회를 마련하여 뱅크사이드 지역의 대학생,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는 지역의 인재들을 서로 만날 수 있고 담론이 교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7)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계획적 접근  
-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촉매수법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사례에서 보이는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은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촉매수법으로서의 일시적 활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도시촉매 이론은 1970년대에 발생한 이론 중 하나로서, 교외화로 인해 쇠퇴한 도심부를 재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촉매적 요소를 통해 도시 구조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재활성화 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대적 의미로서 도시촉매이론은 막연한 도시재생을 통해 “결과적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의 선정, 진행방식 등의 “과정을 통해 도시재생을 관리”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sup>85)</sup>

여기서 말하는 촉매적 요소에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이벤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촉매적 도시 구성 요소는 개별적인 독립체가 아니라 주변 지역을 활성화 하는 중간 역할을 하며 주변 지역의 도시 구조를 변형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다. 주변지역의 맥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주변 개별 필지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사례에서 소규모 필지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과도한 조작을 하는 대신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연계하려고 시도하는 데에서 잘 알 수 있다.

도시촉매이론은 독특한 물리적 디자인이 아닌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기초한다. 고전적인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는 달리 도시촉매기법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기회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급적 효과를 유도하는데 필요한 유동적인 프로그램과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뱅크사이드 사례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동적인 프로그램은 매년 열리는 런던의 건축 박람회라고 할 수 있다. 런던 건축 연합회가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에 협력함으로써 건축 박람회 기간에 뱅크사이드 지역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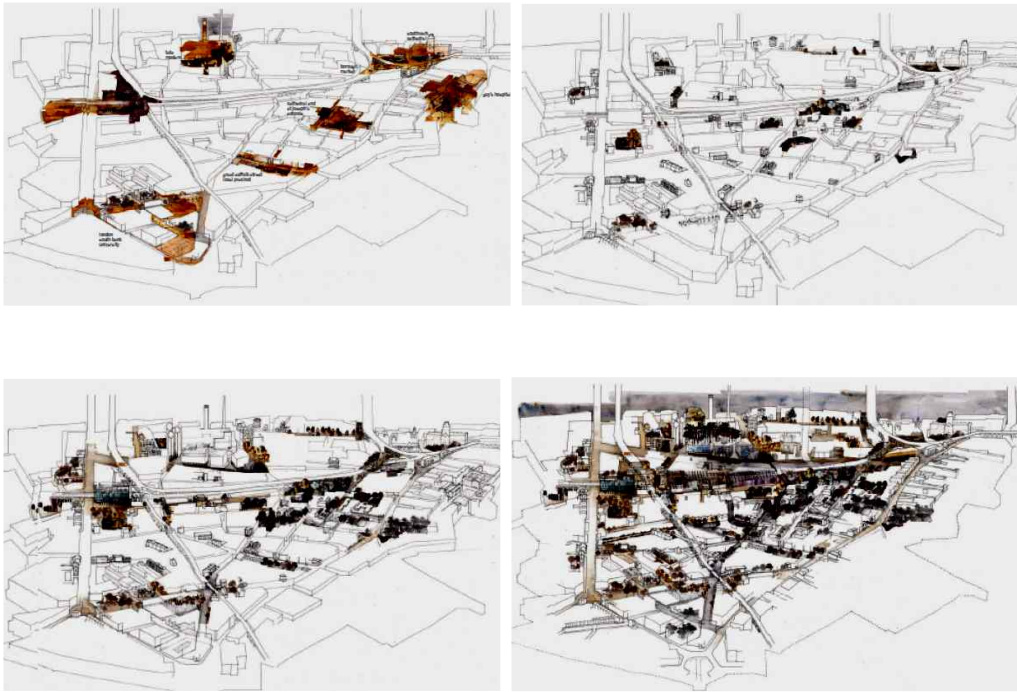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에서 이러한 도시촉매수법은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는 네 단계로 주요 지점 탐색, 씨뿌리기(The Seed of Framework), 뿌리내리기(Spreading Roots), 숙성하기(Maturing of the Framework)로 진행된다. 씨뿌리기 단계는 주요지점과 연결 부위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포함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

85) 이정형, 송준환,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에 있어 도시촉매수법(Urban Catalyst)에 관한연구”, 『대한도시설계학회논문집』, 25(1), 2009, p. 233.



단계들은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장기적 목표를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주변에 연결된 단기적 프로젝트들을 촉매적 구성 요소로서 진행하여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보완하고 있다.



출처 : Better Bankside(2010)

〈그림 3-44〉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프로젝트 과정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 2. 타이페이,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 ‘Taipei Beautiful’ Plan)

### (1) 개요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 ‘Taipei Beautiful’ Plan)은 2009년도에 2010년도 타이페이 원예 박람회(Taipei Flora Expo)를 앞두고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이는 4년간(2009~2012) 진행되고 있으며 8개의 기획으로 구성되어 있다.<sup>86)</sup>

86) 1. 타이페이의 랜드마크 빌딩을 위한 공공 오픈 스페이스의 확충 2. 도시 환경 재생과 쓸모없는 건물들의 수 감소시키기 3. 건물 외벽 정돈 4. 간판 정비 5. 학교 담장 정비 6. 사용



## (2) 협력 과정 분석

타이페이의 경우 도시 재개발을 할 경우 법에 의해 건물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재개발 계획이 시작되기 이전에 건물을 허물 수 있는 어떠한 법적 방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오래된 건물들을 울타리로 둘러치는 등 최소한의 노력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sup>87)</sup> 이런 오래된 건물들은 타이페이 도시 경관과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에는 사용되지 않는 건물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유주에게 용적률 인상의 인센티브(Incentive) 조건으로 오래된 건물을 없애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협의 과정에서는 오래된 건물이 사라진 빈 땅에 새 건물이 들어오기 전 18개월 이상의 임시 정원으로 활용하기를 전제하였다.

그에 한편 타이페이 도시 재개발청에서 진행하는 ‘그린 라이프 액시스(Green Life Axis Along Roosevelt Rd.)’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NGO들을 새로운 도시의 생활의 주체로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임시 정원을 비롯한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개념은 이 워크숍(Workshop)을 통해 더욱 진전되었다. 일시적 정원이 건설된 후에 NGO단체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기존에 관에서 주도하여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로 주어진 용적률 상향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 끝에 타이페이 시 당국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조건을 폐지하기로 하고 일시적 공간 활용을 확장시키기 위해 그에 대한 더 나은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결과는 ‘공간 공유 센터(Space Share Center)’로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자발적으로 공간의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는 가능

---

하지 않는 도시공간 정원으로 이용 7. 야간 경관 정비 8. 공공 미술 (Taipei Year Book 2009 <http://ebook.taipei.gov.tw/yearbook/2009/iscommand/englich.pdf>, 2012년 12월 6일 마지막 방문)

87) Chen-yu Lien, “The Changing Meaning of Public Space” 『Green Community Design』 (2012)

성을 가진다. 토지소유주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빈 땅이나 빌딩을 다른 시민들에게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시 네트워크(Network)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타이페이 도시 재개발청은 최근 이 건의를 받아들여 NGO들과 이를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88)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에서 타이페이 사례는 다른 계획적 접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 이면서도 ‘지역커뮤니티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 유형이다. 하지만 다른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간 협력 주체가 개입하는데 비해 타이페이 시의 경우 도시 개발청이 직접 공간 조성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타이페이 사례의 경우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는 ‘병합(Consolidation)’ 유형이다. 일시적 정원 사례 중 하나인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은 공원 예정지로 이에 대한 대기 상태에서 임시 정원 조성에 신청하였다.

---

88) Chen-yu Lien, “The Changing Meaning of Public Space”, 『Green Community Design』 (2012) p. 77.

(3) 공간적 분석

1)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

〈표 3-29〉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Chen-yu Lien (2012)

〈그림 3-45〉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야외 여가 활동	공간형태	유휴용지
위치	타이완 타이페이시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09년~	장애사항	해당없음

퍼머컬처 정원(Permaculture Garden), 그린 스테이지 정원(Green Stage Garden), 생태 관찰 정원(Ecology Observation Garden), 웬 루오 덩 약초 정원(Wen Luo Ding Medicinal Herb Reading Garden)외에 최초의 5개의 일시적 정원 중에 하나인 루즈벨트 거리(Roosevelt Rd.)의 이 공간은 ‘빗물 정원(Rainwater Garden)’ 으로 불린다. 이 지역에는 어떤 공공 공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에서는 주변의 토지를 합필하여 공원을 조성하기를 원한다. 이 대기 상태의 토지는 일시적 공동체 정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법적 소유는 개인이지만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이다. 이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져다주는데 법상 용도와 상관없이 유연한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공공 공원에서는 불가능한 농업 활동이나 기타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다.

지역 주민과 NGO단체의 워크샵 끝에 빗물 정원은 환경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게 되었다. 주변 주민들과 학교 학생들은 이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2)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 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계획적 접근 -재개발을 예정 지역의 임시 공동체 정원

타이페이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는 우리나라와 개발 문화와 환경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재산권 행사의 목적으로만 노후 건물을 방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동체 정원으로 변형시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하지만 타이페이의 사례는 재개발 문화로 인해 토지를 재산으로 인식하는 소유주의 경우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으로 설득하는 도구 역시 용적률 상향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으며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 다른 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활발한 이용을 이끌어낸 다른 일시적 공간 활용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공공의 역할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조성 단계까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중요할 수 있다.

### 3. 런던,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

#### (1) 개요

2009년 해크니(Hackney)시의 적극적인 주도하에 낙후된 달스톤(Dalston)지역을 재생하고자 하는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는 설계 단체인 머프 아키텍처 아트(muf architecture/art) , J&L 기본스 LLP(J&L, Gibbons LLP)가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는 최종 결과물을 제안하기보다 일련의 76개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10개의 프로젝트 테마(Theme)로 구분된다. ① 하이 스트리트(The

High Street), ② 막힌 골목 연결(Release Space), ③ 주요 장소 설계(Host Space), ④ 리들리 로드(Ridley Road), ⑤ 길찾기(Wayfinding), ⑥ 자원 연결(Heritage), ⑦ 일시적 증진(Temporary enhancements), ⑧ 녹지 연결(Green Routes), ⑨ 준 공공공간(Semi Public Space), ⑩ 문화 프로그램(Cultural programming)가 10개의 테마이다. 이는 주로 가로를 중심으로 생활권 내에 공공 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있다. 물리적 설계는 기존의 도시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테마인 주요 장소 설계의 경우 지역의 유휴공간을 공공적 목적으로 재조성하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일곱 번째 테마인 ‘일시적 증진’ 으로 명시되었다.<sup>8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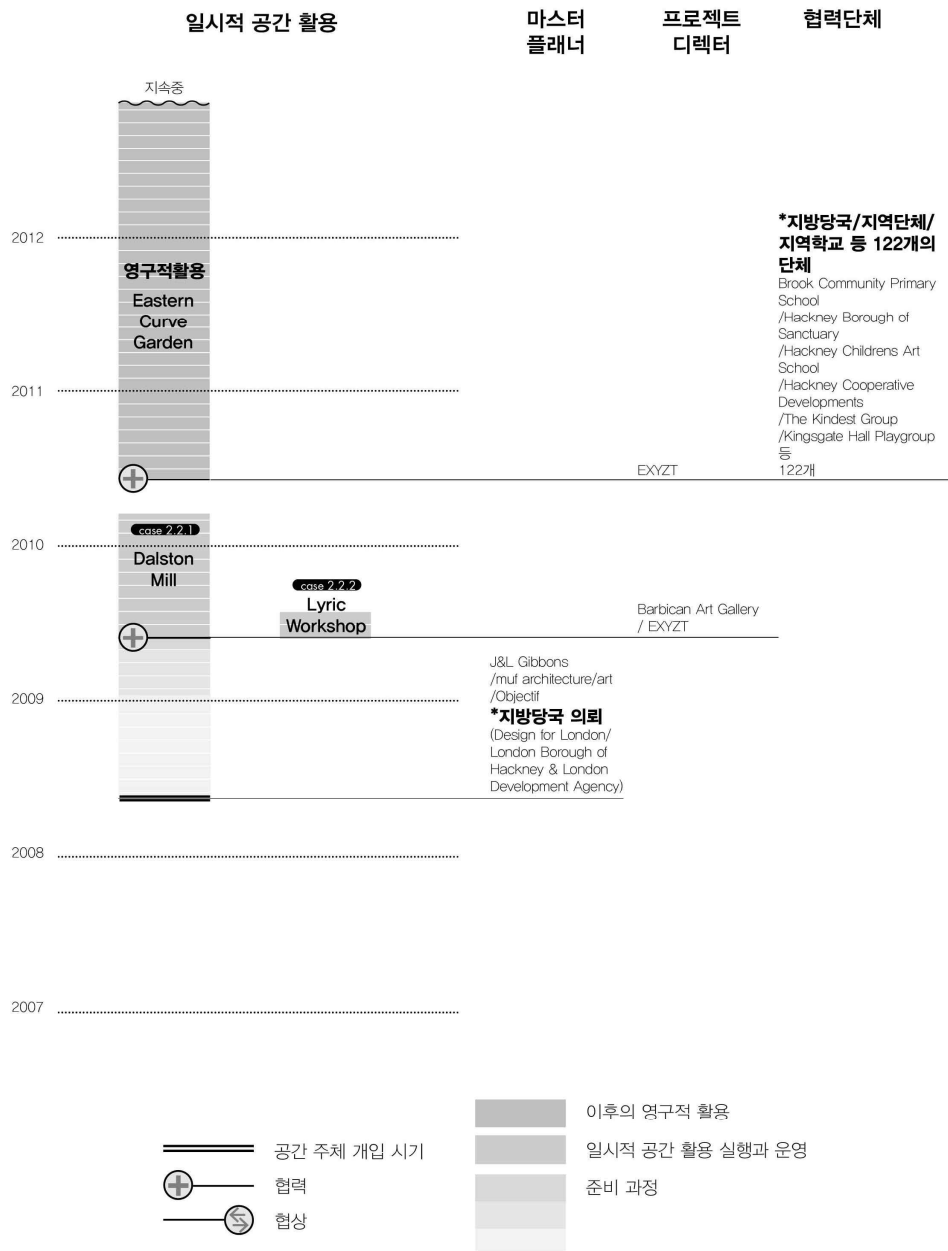


출처 : <http://www.muf.co.uk/> (2013년 1월 4일 마지막 접속)

〈그림 3-46〉 달스톤(Dalston)의 거리

89) muf architectur/art, J&L, Gibbons LLP, *Making Space in Dalston* (2009), p. 6

(2) 협력 과정 분석



<그림 3-47>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의 협력 과정 분석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사례는 협력을 통한 설계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의 보고서에는 각 과정이 어떤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명시되어있다. 프로젝트의 발주는 2008년에 시작되었으며 기존의 자원을 찾는 문화 지도(Cultural Map)과정은 2008년 여름 완료되어 6월과 7월에 걸쳐 아콜라 극장(Arcola Theatre)에서 전시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 단계는 세부 프로젝트의 단계를 마련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를 위한 협의체는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2008년 9월에 만들어졌고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완결 과정을 거쳤다. 완결된 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10월에는 각 프로젝트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체를 개입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후 이스턴 커브 가든(Eastern Curve Garden) 등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2010년 6월 완료되었다.

달스톤 밀(Dalston Mill)을 비롯한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프로젝트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의 계획 과정상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들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였다.

달스톤 밀은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의 계획 아래,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의 많은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젝트를 담당한 프랑스 공간 건축 디자인 그룹 EXYZT와 예술 그룹 바비칸(Barbican)이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 과정 동안 애쉬윈 스트리트(Ashwin Street)와 킹슬랜드 로드(Kingsland Road)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해크니 영 케어러 프로젝트(Hackney Young Carers Project)를 중심으로 로제타 라이프(Rosetta Life)와 지역의 그래픽 디자이너 알렉산더 베틀러(Alexandre Bettler)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 지역의 대안적인 전시 공간인 카페 오토(Cafe Oto)와 아봇 스트리트 스튜디오(Abbot Street Studio)등이 이 청소년 그룹에 협력하였고 이는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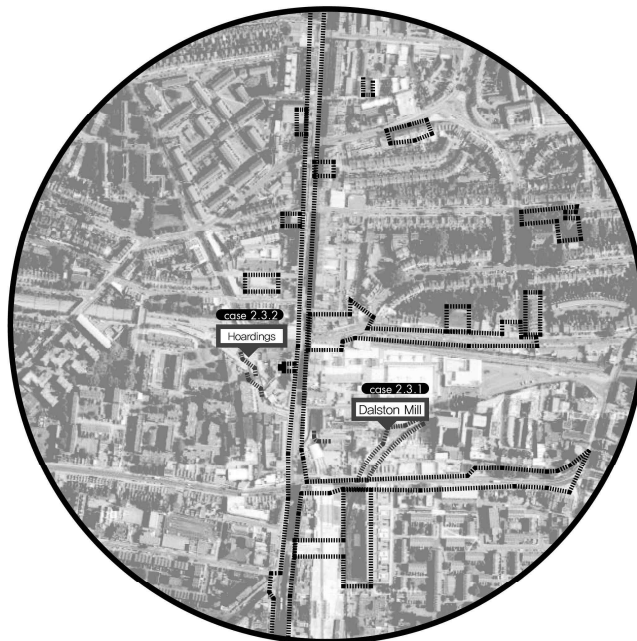
### ①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에서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사례는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 유형이다. 이는 주변 공공공간 계획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활용이 필요한 장소들을 선정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 ②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의 경우 ‘병합(Consolidation)’ 유형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대상지인 피스 뮤럴 플레이스(Peace Mural Place)와 이스턴 커브(Eastern Curve)는 이후 일시적 활용의 프로그램을 이어 받아 공동체 텃밭으로 조성되었다.

### (3) 공간적 분석



 Making Space in Dalston 프로젝트에서 함께 제안된 주변 지역 계획  
Making Space in Dalston 프로젝트 보고서 참조 (2009, mul architectur/art, J&L Gibbons LLP)

〈그림 3-48〉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와 주변 지역 계획



1) 달스톤 밀(Dalston Mill)

〈표 3-30〉 달스톤 밀(Dalston Mill)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muf architectur/art , J&L Gibbons LLP (2009)

〈그림 3-49〉 달스톤 밀(Dalston Mill)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도시농업	공간형태	유휴용지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기간	2009년 6월 ~ 2010년 3월	장애사항	해당없음

프랑스 설계 그룹 EXYZT는 피스 뮤랄 플레이스(Peace Mural Place)<sup>90)</sup>와 이스턴 커브(Eastern Curve) 지역을 연결하고 있는 공간을 위한 일시적 공간 활용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밀 재배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공간은 폐철로로 인한 유휴공간이었으나 달스톤 정션(Dalston Junction) 역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시의 주요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달스톤 밀 프로젝트는 역 주변의 하이 스트리트(High Street) 계획, 그리고 녹지 연결(Green Routes) 프로젝트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

달스톤 밀은 16미터 높이로 분당 약 60회전으로 운전하는 풍차를 설치하여 지역의 주요 지점에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냈다. 이 장소에서는 매 주말 소머포

90) 피스 뮤랄이라는 이름은 공간의 옆 건물에 그려진 벽화로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1985년에 그려진 벽화는 1983년 해크니 피스 카니발에 기반을 두고 조성되었다. 반핵과 평화를 의미하는 그림이다.

드 그로브 유스 그룹(Somerford Grove Youth Group)의 주도로 지역의 제빵사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베이킹 워크샵(Baking Workshop)이 운영되었다. 매그니피센트 레볼루션(Magnificent Revolution)의 협력을 통해 자가 동력을 이용한 음악 축제, 그리고 정신분석 전문가 로렌스 프티(Laurence Petit)를 중심으로 달스톤 지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달스톤 밀 프로젝트에는 하루에 400명에서 1,500여명이 방문하여 9개월 동안 총 방문객은 12,000명에 달하였다. 이 방문객들을 통해 이스턴 커브에 조성 예정인 공공녹지 공간의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의 영구적 공간 조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부지는 주민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 제공될 개발 예정지로 달스톤 밀 프로젝트는 버려진 땅을 재생하고 자연적 환경으로 육성하는데 토양관리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영구적 활용안에서 이 공간은 초기에 이스턴 커브 에코 파크(Eco Park)로 예정되어 그 마스터플랜이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의 마스터플랜 보고서에서 제안된 바 있다.

실제로 달스톤 밀 프로젝트는 토양 관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엔 유동적이었던 주민 커뮤니티가 공고해지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이스턴 커브 지역은 예정되어 있던 에코 파크 대신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체 텃밭인 이스턴 커브 커뮤니티 가든(Eastern Curve Community Garden)으로 조성되었다.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 7월 16일

<그림 3-50> 이스턴 커브 커뮤니티 가든(Eastern Curve Community Garden)

이는 현재 재배된 농산물을 외부 지역에 판매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한다. 현재 이 공동체 텃밭은 지역 이벤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과 외부 후원 업체가 122개에 달해 활발한 활용이 이어지고 있다.

## 2) 작시 워크숍(Lyric Workshop for Hackney Young Carers)

〈표 3-31〉 작시 워크숍(Lyric Workshop for Hackney Young Carers)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개요



출처 : muf architectur/art , J&L, Gibbons LLP (2009)

〈그림 3-51〉 작시 워크숍(Lyric Workshop for Hackney Young Carers)

유형	계획적 접근	개발계획	○
프로그램 유형	사회적 서비스	공간형태	공공공간 (가로)
위치	영국 런던	이용자	지역주민 / 청년 예술 단체
기간	2009년	장애사항	해당없음

애쉬윈 스트리트(Ashwin Street)와 킹슬랜드 로드(Kingsland Road)의 가림막을 위한 작시(作詩)워크숍은 액션 포 칠드런(Action for Children)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 단체인 해크니 영 케어러 프로젝트(Hackney Young Carers Project)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다. 이 단체는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젊은 간병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는 오랜 시간의 간병으로 인해 주변의 또래나 학교에서 어울릴 시간이 적은 어린 간병인들에게 정서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을 위한 문화행사로 기획된 작시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은 시는 그래픽 디자이너 알렉산더 베틀러(Alexandre Bettler)의 협력으로 런던 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에서 관리하고 있는 역 공사 현장의 가림막에 일시적으로 전시되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애쉬윈 스트리트는 달스톤 지역의 문화적 지

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역의 개발 과정동안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 도로화 되었으며 많은 도시 이벤트가 거리에서 벌어졌다. 문화 관련 업종이 이 거리를 따라 입점하게 되었다. 가림막을 포함한 가로외의 일시적 활용은 공사로 인해 활력을 잃었던 장소를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증진시킬 수 있었다.

### 3)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사례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계획적 접근 -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확충과 공동체 만들기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은 생활권 내 공공공간을 확충하는 목표 아래 영구적 용도의 공공공간 조성 이전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발 기간 동안 비어있는 땅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계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주민 공동체가 아직 유동적일 때, 일시적인 공간 활용을 통한 공동체 형성의 시도는 기회를 재발견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들은 영구적인 환경 조성만큼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견 교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결과들은 마스터플랜 속에서 개발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관심과 즐거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줄 수 있다.<sup>91)</sup>

## 4. 로잔, 로잔 자딩 2009(Lausanne Jadin 2009)

### (1) 개요

1997년 시작되어 3-5년에 한번 씩 열리는 로잔 자딩(Lausanne Jadin)은 스위스(Switzerland)의 로잔(Lausanne) 시에서 개최되는 도심 속 정원 조성 예술 축제이다.

특히 로잔 자딩은 로잔 시 주변의 소외된 지역이나 활용되지 않는 애매한 도시공간들을 발굴해내 자연을 덧입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데 기여해왔다. 2009

91) muf architectur/art , J&L, Gibbons LLP, *Making Space in Dalston*, 2009,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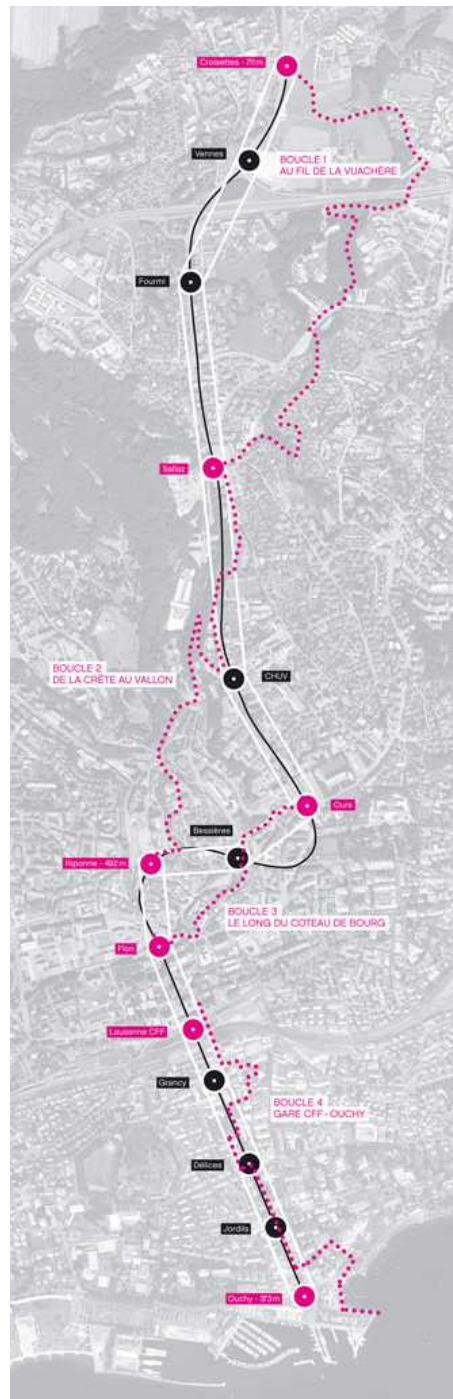
년 로잔 자택은 6월 20일부터 10월 24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이는 새로 개통되는 로잔의 지하철 M2 노선 주변의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노선은 호수변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시의 고지대로 연결된다. 로잔 자택 2009는 이 새로운 노선이 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킬 것을 고려하여 기획되었다, 이에 로잔 자택 2009의 제목은 ‘아래, 그리고 위의 정원(Gardens over and under : Jardins dessus dessous)’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하철의 역과 주변의 보행자 도로를 연결하는 루트를 제안하여 지하철의 지하 공간들에서부터 제네바(Geneva) 호수와 알프스(Alps) 산맥의 경관이 펼쳐지는 열린 새로운 경관을 제공한다.

로잔 자택은 ‘일시성’에 대한 개념을 고찰한다. 로잔 자택은 정원이 새로운 상황과 관점, 관습들을 시험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도시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고 변화의 시작점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한다.

## (2) 협력 과정 분석

로잔 자택은 기획자가 공간 활용주체로서 조경 전문가를 섭외하고 시민을 이용자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조경 전문가에는 초청을



출처 : <http://2009.lausannejardins.ch> (2013년 1월 4일 마지막 접속)

〈그림 3-52〉 로잔 자택 2009(Lausanne Jardin 2009)의 전체 루트(Route)



통해 섭외된 조경가 외에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경가가 포함된다.<sup>92)</sup>

공간의 섭외는 기획자의 역할이 아니다. 기획자는 전체적인 루트(Route)만을 제시하고 각 조경가가 루트 상에서 작품의 의도를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하여 직접 소유주와 협의한다. 이에 대해 로잔 자뎡에서는 이는 공공공간 외에 사유지도 무방하며 각 조경가는 관련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얻기 이전에 공간소유주와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협의의 과정은 예상되지 않는 우연한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강력한 동업 관계를 일수도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원 봉사 차원의 참여일 수도 있다. 이는 타 축제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협력의 모델(Model)을 가능하게 한다.<sup>93)</sup>

### (3) 공간적 분석

#### 1) 첫 번째 루트 : 크로와제프(Croisettes) - 라 살라(La Sallaz)

첫 번째 루트인 크로와제프(Croisettes)역에서 라 살라(La Sallaz)까지는 강을 따라 이루어진 주거지이다. 이 지역은 거대한 경관을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이 루트의 작품들은 이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진행되었다.



출처 : <http://lausanne.over-blog.org>

〈그림 3-53〉 〈플란톤!(Planton!)〉

92) 로잔 자뎡은 한해 전 국제 공모전을 통해 작업을 공모한다.

93) 로잔 자뎡 공식 보도 자료

(<http://2009.lausannejardins.ch/site/images/stories/2009/text/cp%20j%2018%20juin%202009%20eng.pdf> 2012년 12월 5일 마지막 접속)

〈플란톤!(Plantons!)〉은 이 지역에 1960년대에 지어진 두 개의 아파트 블록 사이에 버려진 땅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도시 농장으로 변형하였다. 재배된 채소를 통해서 2009년 로잔 자맹 축제 기간 동안 지역의 먹거리를 제공하였고 이에는 지역의 문화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사의 협력으로 축제 이후에 이 장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 2) 두 번째 루트 : 라 살라(La Sallaz)-리폰(Riponne)

두 번째 루트는 높은 고도의 도시 중심부에서 중세 도시의 언덕들을 지나 그릇 형태로 끼진 계곡 지역으로 이어진다. 이 루트는 외곽지역에서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루트로서 초반에는 숲으로 된 골짜기가 주된 경관이지만 점차 도시로 변화하는 경관을 경험할 수 있다.



출처 : 조경진 촬영

### 〈그림 3-54〉 〈황금 정원(Golden Garden)〉

〈황금 정원(Golden Garden)〉은 건물 옥상에 벼를 심어 조성된 정원으로 직접 경험하기보다 옆 건물을 통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경관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

## 3) 세 번째 루트 - 우르스(Ours)-플라스 드 유럽(Place De L' europe)

세 번째 루트는 도심부의 가장 짧은 루트로 우르스(Ours) 광장에서 시작하여 베시에르(Bessières)다리를 지난다. 이 지역의 작품들은 도시 구조물과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하여 도시의 일상에서 새로운 경관을 제공한다.



출처 : 조경진 촬영

〈그림 3-55〉 〈그린 트랩(Green Trap)〉



출처 : 조경진 촬영

〈그림 3-56〉 〈그린 타워(Green Tower)〉

#### 4) 로잔 자뎅 2009(Lausanne Jadies 2009)의 일시적 공간 활용 유형 : 계획적 접근 - 공공주도의 도시 축제

공공공간은 도시 축제 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도시의 집중된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 이런 이벤트는 공공공간을 관리하고 활력을 유지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안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도심부의 대규모 광장과 같이 광역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공간 외에도 일상적으로 활용되는 비공식적인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잘 작동하고 있는 일상의 공간을 포함하는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된다. 특히 국내의 하이서울페스티벌(Hi! Seoul Festival)과 같은 기존의 도시 축제에서 도시 중심부의 대표적인 공공공간만을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로잔 자뎅의 경우 드러나지 않는 공간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전 도시적 축제이다. 이는 도시의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다양한 경관 체험을 통해 더 넓은 경험의 스펙트럼(Spectrum)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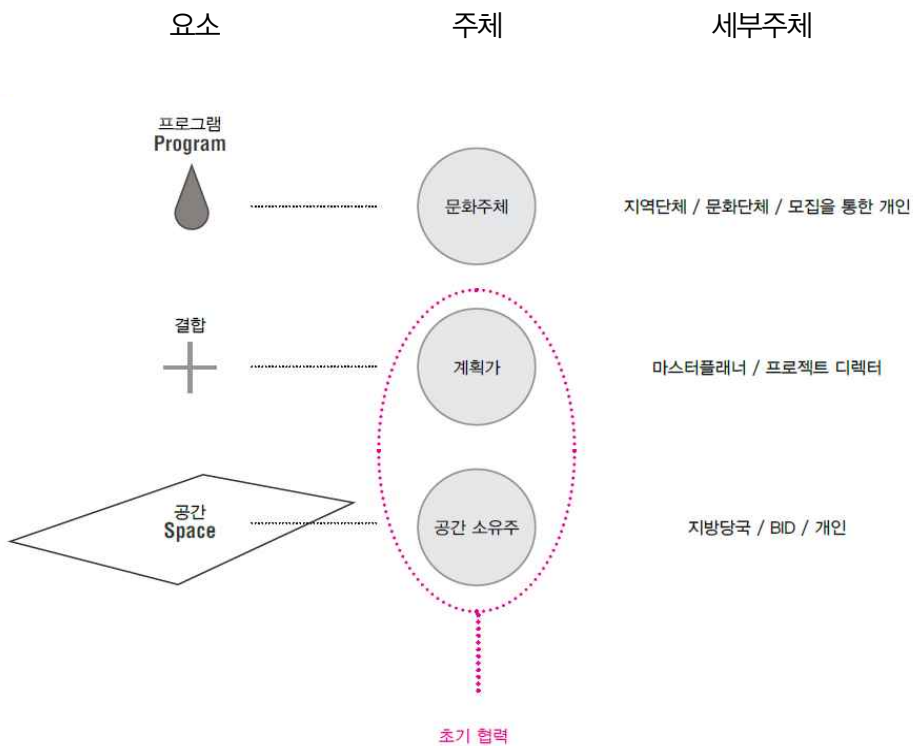
시민과 관람객 입장에서 로잔 자뎅과 같은 일시적인 공간 활용은 도시의 경험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조경가의 입장에서 이는



조경과 도시의 관계를 새롭게 실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일시적 공간 활용은 예술, 조경, 문화 등 특정 분야의 가능성을 넓히고 풍부함을 더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 5. 소결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공간과 프로그램의 결합을 이루는 중간자 역할은 계획가에게 주어진다. 이는 프로젝트마다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er), 혹은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등 다양한 명칭으로 존재한다. 이 역할을 담당 하는 이는 조경가, 건축가, 도시설계가, 지역의 사회적 기업 등 사례마다 상이하다. 공간소유주는 지방당국 혹은 개인 등 다양하지만 공간소유주가 개인인 경우에도 지방 당국이 공간의 활용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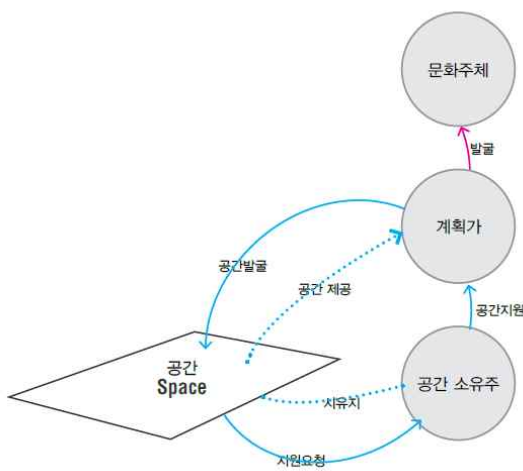


〈그림 3-57〉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협력주체 간의 특징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협력주체 간의 특징은 자생적 사례와 비

교하였을 때 계획가와 공간소유주간의 초기 협력으로 공간의 획득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은 공간을 대상으로 적절한 프로그램 부여를 위해 지역의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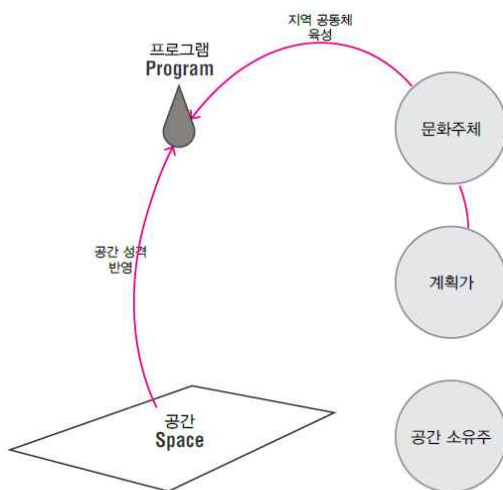
### ① 인적 자원 발굴



〈그림 3-58〉 인적 자원 발굴 과정

첫 번째 과정은 대상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계획가는 대상지의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지역의 문화주체들을 탐색한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공간은 지방당국이 초기에 제공할 수도 있고 계획가가 공간을 발굴하여 지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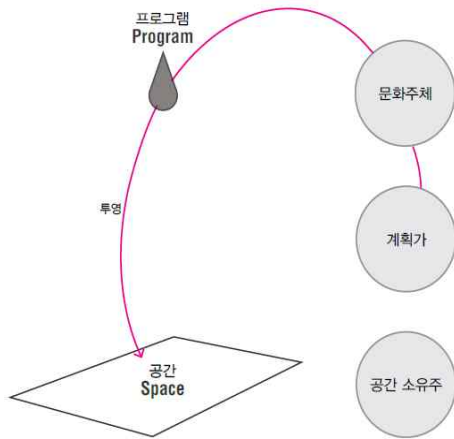
### ② 공동체 육성



〈그림 3-59〉 공동체 육성 과정

계획가는 공간에 맞는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해 탐색한 문화주체와 협의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한다. 지역의 문화주체는 지역 주민 위주이지만 대상지에 따라 성격이 다양하며 주변 지역의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협의 과정을 통해 적절한 공간 활용 방안을 도출한다.

### ③ 프로그램 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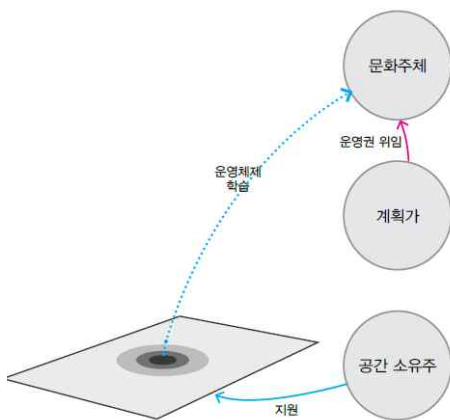


〈그림 3-60〉 프로그램 투영 과정

세 번째는 구체적인 디자인의 과정으로 계획가는 공간의 목적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공간에 투영한다. 이 과정에서 저비용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과 문화주체를 개입시키는 방법, 운영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과정은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중에서도 이후의 영구적 활용을 염두에 둔 사례의 경우에 고려되는 과정이다. 이는 일시적 공간 활용과 장기적 계획 간의 관계에서 ‘병합’ 유형으로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Tipei Beautiful’ Plan) 사례와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 사례의 경우 향후 공간 조성이 완결되지 않았지만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은 이후 활용이 시작되어 영구적 조성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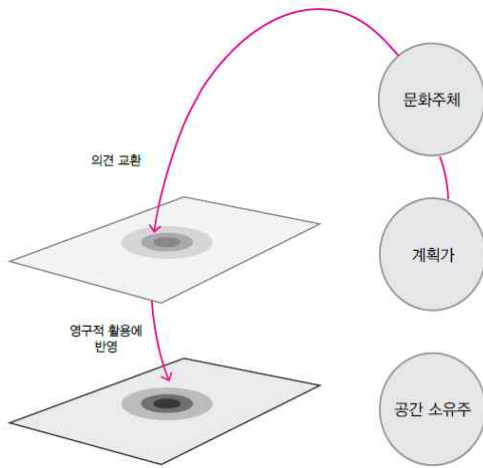
#### ④ 운영체제 학습



〈그림 3-61〉 운영체제 학습 과정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해 향후 영구적 활용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경우, 계획가는 일시적 공간 조성 이후 공간의 운영권을 지역의 문화주체에 넘겨주고 지역의 문화주체는 이를 통해 운영체제를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공동체는 공고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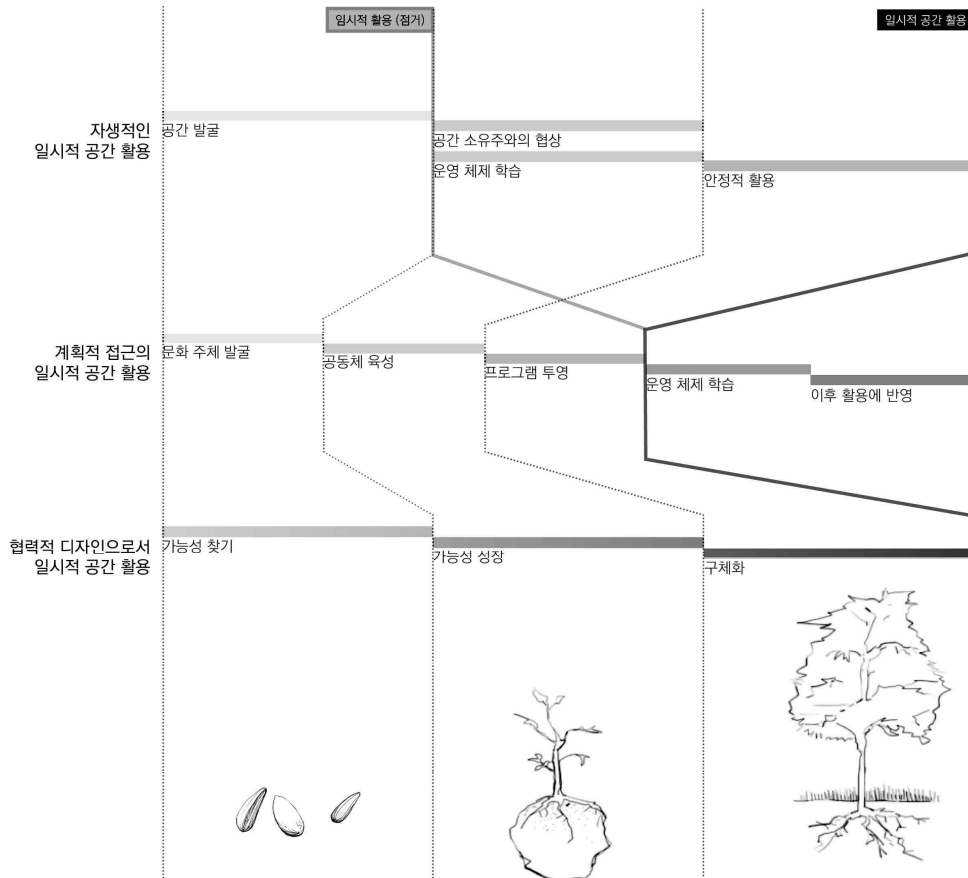
⑤ 영구적 활용에 반영



〈그림 3-62〉 영구적 활용에 반영 과정

이 경우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형성된 지역 공동체와 운영체제를 이후 영구적 활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면 계획가는 영구적 활용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도움을 얻게 된다.

## 제4절 소결: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과 고려사항






〈그림 3-66〉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과정은 크게 가능성 찾기, 가능성 성장, 구체화 단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은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와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에서 다르게 부각된다. 자생적 사례의 경우 이러한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체들이 협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의 총체적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특히 공간을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간소유주와의 협상과 주체 간 운영체제 학습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계획 사례의 경우 지역을 이해하고자 하는 설계가의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두 가지 경우에서 모두 주목해야 할 점은 일시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주체를 개입시키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의 경우에는 주체 간 협력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계획가의 입장에서도 이 과정은 중요하다. 계획가는 일시적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고비용의 물리적 조성이 아니라 지역의 활동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이것이 일시적 공간 활용이 가지는 장점임을 상기해야 한다.

이는 상위체계에서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공간 프로그램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의 운영을 위한 단체의 육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의 과정을 보는 것은 상향식 움직임을 지원하고 포괄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과 같다. 이에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각 과정과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다.

	목표	세부목표	고려사항
<b>가능성 찾기</b> 	공간 발굴	유휴공간 확인 공공공간 확인	지역 조건 고려 교통이 양호한 중심 지역 다양한 활동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진 지역
	문화 주체 발굴	지역 공동체 / 문화 공동체 확인 지역의 사회 구성원 확인	젊은 창작 집단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 유휴공간 쇠퇴 조건 / 향후 계획 이해하기
<b>가능성 성장</b> 	프로그램 주체와 공간을 결합시키기 위한 협의	공동체 육성 운영체제 학습 공간 소유주와의 협상	일시적 활용에 알맞은 프로그램 설정하기 다양한 주체 개입시키기 지속적인 관계 맺기
	<b>구체화</b> 	안정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구축	향후 운영 방안 결정 공간 조성

〈그림 3-67〉 각 과정의 목표와 고려사항

## 1. 가능성 찾기

가능성을 찾는 과정에서 계획가는 우선 일시적 공간 활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인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보다 현실적인 조건이 더 강하게 고려되지만 계획적 접근인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계획적 접근의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일시적 공간 활용을 활용하는 경우는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 사례와 같이 산재된 유휴공간들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축매수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Taipei Beautiful’ Plan) 사례는 개발을 앞두고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일시적 공간 활용을 사용하고 있다.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 사례와 같이 개발을 앞두고 공간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일시적 공간 활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로잔 자텡 2009(Lausanne Jardins 2009) 사례는 도시 축제의 유형으로 도시 전체를 전시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도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활력을 이끌어 냈다.

〈표 3-32〉 계획적 접근에서 일시적 공간의 활용 유형

구분	유형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축매수법으로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Taipei Beautiful’ Plan)	개발을 앞두고 부족한 공공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일시적 공간 활용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	개발을 앞두고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일시적 공간 활용
로잔 자텡 2009(Lausanne Jardins 2009)	도시의 일상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일시적 공간 활용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일시적 공간 활용의 기능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쇠퇴지역의 경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 방법의 일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개발 예정 지역인 경우엔 그를 위한 임시 용도로, 활발한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을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을 위한 첫 번째 과정인 가능성 찾기에서 구체적인 목표로는 공간 발굴과 문화주체 발굴이 포함된다.

### (1) 공간 발굴

공간을 발굴해 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의 소유주를 파악하는 일이다. 공공공간인 경우 지방 당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희공간인 경우에 공간의 성격에 따라 협력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희공간인 경우에는 협력과 활용에 도움을 얻기 위해 유희공간의 발생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유희공간의 발생 배경을 보는 것은 곧 그 공간의 성격과 역할을 파악하는 일이기도 하다. 즉 도시가 형성 되면서 처음부터 비어있던 유희 공간과 도시 내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다가 버려진 공간과는 매우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쇠퇴 공간의 양상은 철도, 2차 산업부지, 보존지구의 지정으로 인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쇠퇴, 지방 구도심, 개별 토지와 건물의 방치 등 매우 다양하다.<sup>94)</sup>

주목할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시적으로 활용되는 쇠퇴 공간들은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대도시에 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전에는 유희공간이 지방 중소 도시 등 사람들이 빠져나간 쇠퇴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로 나타났던 것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는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토지 소유주나 개발자가 개발을 할 경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런 배경에는 세계 경제 조건의 악화가 깔려있다.<sup>95)</sup>

그 중 특히 국내 사례와 타이페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동아시아 대도시의 점적인 쇠퇴 원인이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개발 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토지 소유주의 문제라기보다 그 이전의 대형 개발의 문화에 익숙한 상황에서 정책과 개발 조건의 변화로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쇠퇴이다. 이러한 조건들로 토지 소유주의 재산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독립적 사례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없다. ‘타이페이 뷰티풀’ 플랜의 사례에서도 토지 소유주의 인식으로 인해 토지를 활용하는데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4) 김광중,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2010, p. 44.

95) Peter Bishop, Lesley Williams, *op. cit.*



## (2) 문화주체 발굴

대도시에서의 일시적 공간 활용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자가 자체가 낮기는 하지만 도시의 주요 지점과 접근성이 좋은 곳인 경우에 더욱 활발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공간 활용주체의 성격과도 연관된다.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일시적 공간은 저비용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창작 집단이나 예술가가 많이 개입한다. 이들은 주로 대도시 삶의 활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비용의 공간을 찾는 특징을 보인다. 지역의 성격이 다양한 활동에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또한 지역의 공동체를 발견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다. 서울의 경우 일시적 공간 활용이 지역 기반의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까지 이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거나 단발적인 사례로 끝나는 원인에는 지역 공동체가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이러한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데에는 중간적인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하는 지역 단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기회에 빠르게 대응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문화주체 발굴을 통해 도시의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도시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즉 집약적인 토지 이용과 행태의 다양성이 도시의 활발함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시켰을 때, 일시적 공간 활용은 도시의 틈새들을 매워 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나 일시적 공간들은 오히려 일시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와는 다르게 주거나 일반 상업 형태가 아닌 특수한 행위를 담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런 움직임들은 집약적 이용과 도시 행태의 다양화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다.

## 2. 가능성 성장

기존의 설계 프로세스와 비교하였을 때 가능성 찾기 과정은 대상지의 이해와 자원 발굴로 치환될 수 있는 과정이며 구체화 과정이 제안의 과정으로 치환될 수 있는 과정이다. 이 반면에 가능성 성장은 생소한 과정이다. 이는 문화주체와 공간을 결합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이다. 각 주체가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계획적 접근의 경우에 지역의 문화주체와 공간과 연계시키는 협의의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중간자로서의 역할이 마스터 플래너(Master Planner)에게 주어진다. 협의를 위한 워크샵(Workshop), 계획의 전시,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샬렛(Design Charrette) 과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이와 같이 지역의 문화주체를 육성하여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이 존재했을 때 일시적 공간 활용이 더욱 안정적이고 활발하다.

자생적 사례의 경우 점진적으로 협력체제가 강화된다. 주체 간 협력의 강화는 이후의 안정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 실패한 대부분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단발성으로 등장했다가 이후의 안정적인 구체화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고 임대료, 주체 내의 분열, 혹은 공간소유주와의 협의 실패로 사라진다.

가능성 성장 과정에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은 불안한 상태로 일종의 실험적인 성격을 보인다. 이러한 실험적 성격의 초기 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시적 공간 활용은 기존의 용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대안적인 프로그램(Program)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에 실패하여 구체화 과정에 이르지 못한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용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가능성 성장 과정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주체의 존재를 드러내고 협력 주체를 탐색할 수 있는 기반 역할을 한다.

협력 주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방법이 중요하다. 이에는 지역 문화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지역 잡지를 활용, 혹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을 활용한 홍보가 있다.

〈표 3-33〉 협력 주체 탐색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방법

홍보 전략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	사례
지역 문화 플랫폼(Platform) 설정	지역 커뮤니티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	대안공간 눈
지역 잡지 활용	지역 커뮤니티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	여성환경연대 (문래 예술 창작촌 잡지 '문래동네' )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의 활용	지역 커뮤니티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	자립음악생산조합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하는 활용주체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대상지와 관계없는 활용주체	로잔 자딩

① 지역 문화 플랫폼(Platform) 이용

이는 대상지와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와의 관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강한 관계가 있는 활용주체가 사용하기 적절한 방안이다. 지역 주민과 새로 유입된 문화주체가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플랫폼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수원시의 대안공간 눈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에 걸쳐 지역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계 맺기에 성공한 지역 문화 플랫폼이 있을 경우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와 협력하여 기존의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역 관계망과 연결되기가 수월하다.

② 지역 잡지 활용

이 또한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시적 공간 활용주체에게 적절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소개하는 지역 잡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역은 주로 홍대나 해방촌, 서촌, 문래동과 같이 독특한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활동을 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끌기에 적절한 도구이다.

③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의 활용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홍보 전략이다. 이는 대상지와 관계없는 활용주체의 경우에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 대부분의 문화 기획, 전시 홍보나 지역 활

동까지도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식을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으며 자신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쉽게 발견하고 또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 이벤트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경우에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과 같은 빠른 수단은 중요할 수 있다.

### 3. 일시적 공간 활용 구체화

구체화 과정은 이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 구체적 운영방안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계획적 접근의 경우 지역 주민 등의 의견과 장기적 목적을 고려하여 계획가가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구체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저비용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이나 유지관리비용과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경우 관리의 책임 소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예방 대책 또한 고려해야 한다.

구체화 과정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지역 문화주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간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3-34〉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	공간 활용주체와 주 이용자	사례
청년문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	자립음악생산조합
미술	미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안공간 눈
도시농업	지역 공동체등 다양한 주체	여성환경연대 리바
야외 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등 다양한 주체	리바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로잔 자딩
이주자를 위한 문화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벼룩시장	지역 공동체등 다양한 주체	여성환경연대 자립음악생산조합 대안 공간 눈

또한 일시적 공간 활용이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이는 각 지역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표 3-35〉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지원 방안	사례
장기적 계획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지방당국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보증해주는 경우	타이페이 리바
소유주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	타이페이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① 장기적 계획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

이는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의 경우만 해당되는 방법이다.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Making Space in Dalston)의 사례나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Bankside Urban Forest) 사례와 같이 개발 계획 자체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중간 단계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공간 활용이 계획적인 접근으로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이러한 일시적 공간 활용은 테스트(Test)를 위한 중간 역할, 홍보의 역할 등을 담당한다.

② 지방당국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보증해주는 경우 :

타이페이의 원예 박람회 사례의 경우 공간소유주가 개발 기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에서 적극적인 보증 역할을 하여서 일시적 공간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리바(Rebar)와 같은 경우도 샌프란시스코의 시 당국의 협조가 있어서 시빅 센터 빅토리 가든(Civic Center Victory Garden)을 실행할 수 있었다.

③ 소유주의 자발적 동의가 있는 경우 :

타이페이의 사례에서 기존의 토지 획득 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공간 공유 센터(Space Share Center)의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 진다.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의 100 유니온 스트리트(100 Union Street)의 토지 소유주 경우에도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시작한 사례이다.

## 제4장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용산구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 제1절 대상지 이해

#### 1. 이태원 문화권의 이해

##### (1) 이태원 문화권의 범위

이태원 지역은 ‘서울 속의 외국’ 이라 불리며 한국 사회 안에서 드문 외국 문화지대이다. 특히 이태원 지역의 외국 문화는 그 이전에 용산 미군기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 1990년대 들어 다채로워지고 있다. 그는 미군의 지속적인 감축과 함께 제3세계의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국 내 이국적인 해외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태원은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찾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태원 문화권은 공간적 범위로 정의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한 상권이 이태원 문화권의 중심이지만 이는 현재는 동쪽의 한남동쪽, 북쪽의 경리단 길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다. 이 지역들은 서로 성격이 상이하지만 지역의 발달에 이태원 상권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태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이태원 거리와 보광동

## (2) 이태원의 역사와 보광동의 형성

### 1) 해방 이전의 이태원

용산기지가 조성된 것은 1908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용산지역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여러 외국 부대들이 주둔하는 곳이었다. 일제치하 시기에는 용산지역에 1906년 즈음부터 군사기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 강점기 이태원은 행정구역상으로 1936년 경성부로 편입되어 이태원정이 되었다.<sup>96)</sup> 경성부로 편입되기 이전의 이태원은 시골이나 다름이 없었으나 용산기지의 발달로 이태원 지역의 마을도 서서히 발전하였다. 이후 한국 서민의 거주지로 보광리가 발달하였으며 현재의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교통의 편리함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 지역의 주민의 생업은 주로 과수 재배와 같은 노동이었다.

1945년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3년간의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 1948년에 미군정이 철수하면서 잠시 비어있게 되지만 다시금 6.25 군정이 발발하였다. 이에 1953년에 미 8군 사령부가 서울대 문리대 교사에서 용산기지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이태원이 시작되었다.

## 2) 미 8군 주둔 이후 이태원 지역의 주거지 발달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이태원에는 기지촌의 형성과 함께 주거지도 크게 발전한다. 보광동과 한남동을 등지로 1960년대에 판자촌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이시기에 이태원에 미군 및 대사관을 위한 외인주택도 지어지기 시작했고 당시로 치면 상당한 고급주택들이었다. 현재의 고급주택지와 서민 주택지가 극명하게 만나는 이태원의 배후 주거지의 특징은 생성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주한미군이 닉슨 대통령의 군 감축 결정에 의해서 대대적인 감축 이전이 이루어졌다. 부평 등 지방의 미군들이 용산으로 이전해오며 지방의 기지촌 상인 및 윤락 여성들도 함께 이태원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암묵적으로 장려되었으며 이태원 중심의 윤락업은 현재 이태원 소방서 뒤편부터 이슬람중앙성원으로 이어지는 ‘소방서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동시에 이런 윤락 여성들을 위한 주거지가 이태원로 남쪽 지역의 보광동, 한남동 판자촌 지역에 형성이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무허가주택이 양성화되면서 한남동 보광동의 무허가 건물들

---

9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0), 서울역사박물관, 『이태원 : 공간과 삶』(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2010), p. 35.에서 재인용



(약24,335개동)의 양성화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2층의 연립주택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초기 정착지로 자리를 잡게 된다.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다세대 연립주택 등으로 변화하면서 안정적인 서민 거주지로 자리를 잡자 서민 대상의 재래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슬람중앙성원부터 시작하는 현재의 우사단로 10길은 텍사스촌으로 유흥업소와 배후에 무허가 여인숙이 있어 출입을 꺼릴 정도로 싸움이 잦았던 거리였다. 하지만 주택양성화 이후 그 자리에는 도깨비 시장이 생겨나 번성하기 시작한다.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안정적인 서민 거주지로서 자리를 잡는 시기에 외국인 거주지 주변으로는 내국인을 위한 호화주택단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3)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들어서 보세의류 중심이었던 이태원의 상권이 쇠퇴하고, 강남과 홍대의 클럽이 번성하면서 이태원의 유흥업이 쇠락하였다.

이후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 결정되면서 미군이 아닌 다수의 외국인이 유입되었다. 이슬람 거리의 형성과 함께 해밀턴 호텔 건너편 첫 번째 골목인 이화시장 골목에 2005년 무렵부터 아프리카 거리가 형성되었다.

또한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이태원의 변화는 외국 음식문화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 점이다. 유흥업과 쇼핑업이 쇠퇴하면서 비워준 자리에 외국음식 전문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특히 해밀턴 호텔 뒤편 골목에는 이태리, 프랑스, 그리스, 불가리아, 인도, 태국, 중국 등의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고 이태원로 주변으로 터키 케밥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외국 음식점이 이태원의 주 상권으로 부각되면서 경리단 길 등으로 이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

## 2. 보광동 대상지의 이해

### (1) 일반 현황

보광동은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일부로 약 73만㎡(22만평)의 면적을 차지하

고 있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약 19,000명, 8,594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지역의 대부분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몇몇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 7층 이하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이 된 노후 주택지로 공원은 어린이 놀이터 2개소로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주차, 방재 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림 4-2〉 보광동

## (2) 사회적 현황

보광동에는 저층 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특성과 같이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

〈표 4-1〉 보광동의 노령인구 비율

구분	서울시 전체	보광동
전체인구 (명)	9,631,482	16,533
15세 미만인구 (명)	1,355,303	1,791
비율 (%)	14.07	10.81
65세 이상 인구 (명)	928,956	1,975
비율 (%)	9.64	11.93

※출처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2010년 자료 기준)

보광동에는 외국인 875명이 살고 있으며(2010년 12월 기준) 1,946명인 이태원 1동이나 2,410명인 한남동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이태원과 한남동에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사는 데에 반해 보광동 지역은 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사원으로 인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파키스탄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출신국가로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존재하는 파키스탄인이 제일 많고 터키,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시리아, 이란 등의 아랍권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권 출신 인구가 많다. 97)

〈표 4-2〉 이태원 지역 외국인 분표

	총계	미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구 전체	12,290	1,622	194	102
이태원1동	1,946	312	67	36
한남동	2,410	351	33	24
보광동	875	96	23	25

※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2011)

〈표 4-3〉 이태원 지역 파키스탄인 분표

	성별	이태원1동	이태원2동	보광동	한남1동	서빙고동
2007	남	90	9	89	52	0
	여	18	4	22	9	0
2008	남	91	9	91	54	0
	여	15	4	28	13	0

※ 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2011)

### 1) 거주지의 성격 차이

보광동은 동쪽으로는 우사단로 10길, 서쪽으로는 오산중학교를 경계로 한다. 하지만 보광동과 면하고 있는 한남동과 서빙고동의 일부 거주지역도 저층주거지로서 물리적 성격이 흡사하며 오히려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경계는 행정동의 경계보다 인구 구성원의 성격으로 구분된다.

#### ① 보광로

이러한 성격의 차이는 보광동의 두 개의 길을 중심으로 보일 수 있다. 보광동

97) 같은 책, p. 99.

을 관통하고 있는 보광로는 이태원로에서 앤틱(Antique)가구 거리를 지나 보광동 지역으로 진입한다. 이 길을 중심으로는 일반 서민 거주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림 4-3〉 보광로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의 성격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 9월 20일

〈그림 4-4〉 앤틱가구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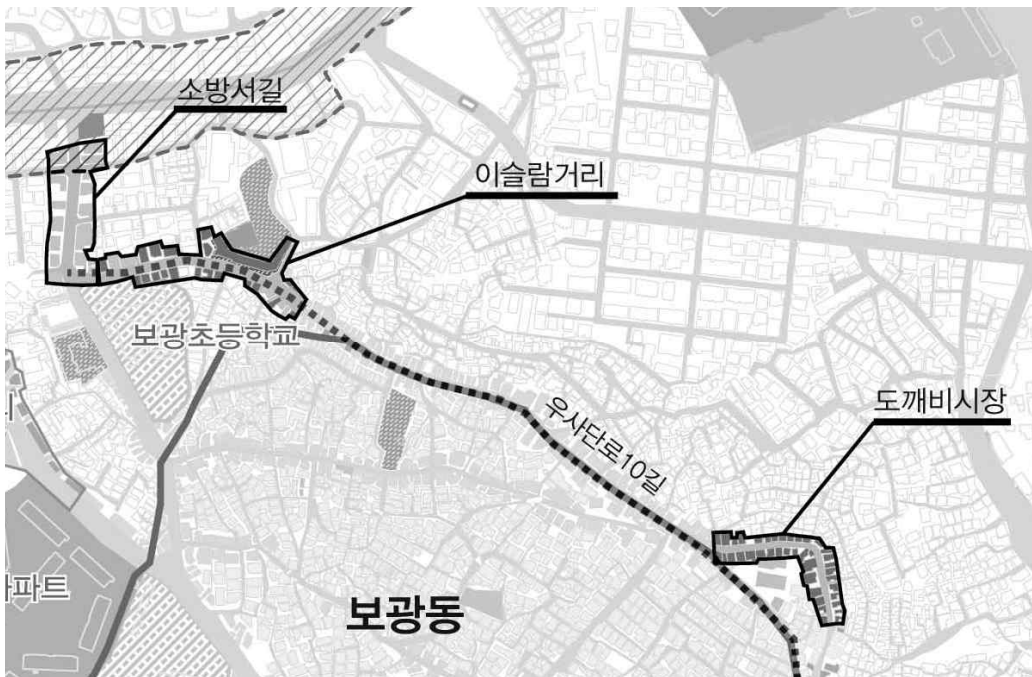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 9월 20일

〈그림 4-5〉 보광로의 중심 상업가로

앤틱가구거리는 저녁까지만 장사를 하고 이태원 유흥가 분위기를 차단하며 보광로는 보광동의 일반거주지로서 성격을 보여준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 내에서 10대 청소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부분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보광초등학교의 입학생 수는 2012년 기준으로 82명으로 학급당 25명에서 28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특별시 평균 입학생 수 121명에 크게 못 미치며 용산구 평균 입학생 수인 9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98)

보광동의 외국인은 이태원로의 외국인보다 한국화 되어있는 모습을 보이며 외국인 아동과 혼혈 아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보광초등학교의 학생들도 상당수가 다문화 가정 자녀로 보광초등학교는 다문화 가정교육을 진행 하고 있다.<sup>99)</sup>

② 우사단로 10길



<그림 4-6> 우사단로 10길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의 성격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2010)

<그림 4-7> 소방서길



출처 : 동아일보 (1978년 6월 22일)

<그림 4-8> “이태원의 텍사스 촌”

98) 학교 정보 공시 서비스 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2012년 11월 29일 마지막 접속)

99) 보광 초등학교, http://www.bogwang.es.kr (2012년 11월 29일 마지막 접속)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광동과 한남동을 구분하는 우사단로 10길은 ‘소방서 골목’ 이라고 불리는 유흥가, 트랜스젠더(Transgender) 바(Bar)와 게이(Gay) 바가 포진해 있는 ‘게이힐’ 을 끼고 있는 골목을 지나서 진입한다. 이 지역은 예전에 텍사스 촌<sup>100</sup>이라 불리며 70~80년대 외국인 대상의 유흥가 밀집 지역이었으며 위험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텍사스촌이 쇠퇴하고, 세계 음식 상권이 발달함에 따라 이태원을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 거리를 많이 방문하고 있어 이러한 인식은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

유흥가 뒤쪽으로는 보광초등학교와 이슬람중앙성원이 있으며 이슬람중앙성원을 중심으로 무슬림 대상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 5월 19일

〈그림 4-9〉 이슬람 거리 전경

100) 우뚝 솟아있는 이국풍의 회교사원건물이 보이고 소방서가 있는 작은 골목을 기고 들어가면 얼른 납득하기 어려운 낯선 냄새가 확 풍긴다. (중략)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텍사스 촌의 밤은 이렇게 깊어간다. 이곳이 서울인가 아메리카인가 분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여기도 분명 서울이다. 골목의 중간쯤에서 오른쪽으로 펼쳐있는 시장을 보고 우선 그걸 확인할 수 있다. 김밥 떡볶이, 오뎅, 막국수 등을 길바닥에 늘어놓고 파는 지저분한 시장의 풍경은 플레이보이 카스텀텔리 샵스레이스 킹클럽 등의 영문 이름 간판이 늘어선 이 텍사스 골목과 아이로니컬한 대조를 이룬다.(중략) “서울의 치외법권지대지요” 라고 20년을 이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이강식씨는 말한다. (후략) ( “텍사스 촌의 밤” , 『동아일보』 , 1978년 6월 22일)



이슬람중앙성원과 무슬림 상권 배후의 저층 주거지에는 무슬림과 한국 서민, 중국인 등이 혼재해서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 창작 집단들이 많이 유입되어 있어 독특한 상점들이 점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상권을 형성하여 길의 분위기를 바꾸기 보다는 개인 작업실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주말에만 문을 여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광로와는 바로 옆길이지만 여기는 또 성격이 아주 다르다. 이 지역에 새로 재밌는 가게들이 생겨난다고 해서 동네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동네는 정말 불안한 동네이다. 내가 대로변에서 살고 있는데 밤마다 온갖 언어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 동네가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종교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인종이 혼재되어 있어서다. 이 동네가 보광동인 이유는 보광사라는 큰 절이 있어서인데, 이슬람 사원이 생기면서 무슬림들이 많이 산다. 또 옆에 보광 중앙 교회라는 정말 큰 교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가까운 지역에 섞여서 나타나기도 쉽지 않은거 같다.*

B씨(우사단로10길 대로변 건물 1층에 거주, 비디오아트작가)와의 인터뷰(2012년 8월 19일)  
이 지역은 여러 인종과 종교의 혼재로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문화 가정을 제외하고 한국인 중 어린 자녀와 젊은 부부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은 거의 거주하지 않는 상태이다.

## 제2절 가능성 찾기: 이태원 문화권역 확대와 보광동의 변화

### 1. 공간 발굴 : 보광동의 공공공간과 유휴공간

#### (1) 보광동의 공공공간

보광동의 공공공간은 열악한 상황으로 공원은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 2개소로 협소한 상태이며 쉼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용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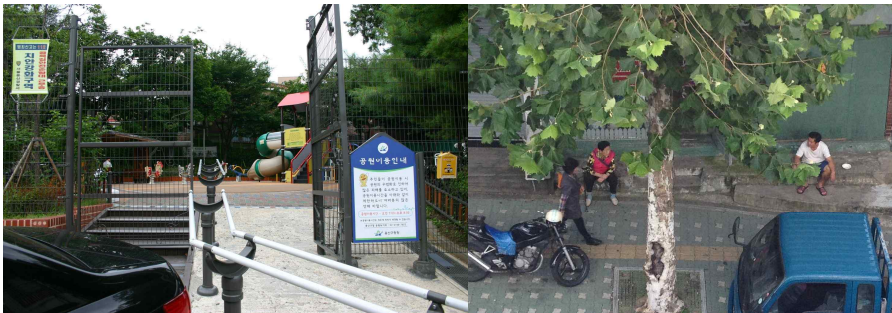
〈표 4-4〉 보광동의 공공공간 현황

	소공원	어린이 공원
면적 (m <sup>2</sup> )	135	837
면적 (평)	40.8	253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8월14일

〈그림 4-10〉 보광동의 소공원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8월14일

〈그림 4-11〉 보광동의 어린이 공원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8월14일

〈그림 4-12〉 보광로

어린이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 면적은 837m<sup>2</sup>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변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 하고 울타리 내의 공간은 약 260m<sup>2</sup>으로 소규모이다. 하지만 공



원의 이용을 저해하는 것은 면적 보다 폐쇄적인 이용 때문이라 판단된다. 공원들은 위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출입구가 봉쇄되는 폐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공원 앞의 ‘놀이터를 선량한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줍시다.’ 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통해 어린이 공원이 지역의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밖의 주민 센터도 기존의 노후한 건물을 활용한 형태로 건물 주변의 옥외공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대신 중심 가로에서 담소나 휴식 등의 옥외활동 대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2) 보광동의 유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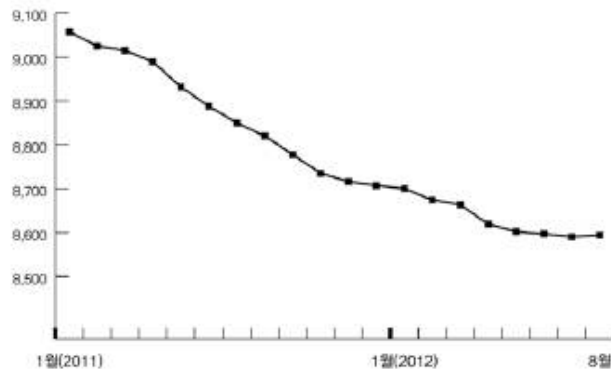
### 1) 유희시설

보광동은 한남주거정비촉진지구의 일부로서 사업이 지정된 200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원주민 대신 세입자로 구성원이 대체되었다. 최근에 개발 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지며 주거지가 관리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면서 급속하게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광동의 쇠퇴하고 있는 환경은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었다.

*보광동 지역 집값은 5년 전과 비교해서 반값으로 떨어졌다. 바로 건너편에 다세대 건물들이 디자인어 골목으로 바뀌면서 배로 가격이 뛴 것과 대조적이다. 월세가 그쪽과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미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들이고 집이 낡거나 해도 크게 관심이 없다.*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인터뷰(2012년 8월 14일)

용산구청에서 매달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 8,993세대에서 2012년 8월 8,594세대로 보광동의 세대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출처: 용산구청, 조현지 재구성

〈그림 4-13〉 보광동 주민등록세대수 현황

용산구청 직원과의 인터뷰<sup>101)</sup>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한남뉴타운 지역 기준으로 2010년 2월 58동에 머물렀던 공가 현황은 2011년 12월 89동으로, 최근 2012년 6월에는 126동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빈 공간들의 범죄의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구청직원과 지구대,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율 방법대를 결성하여 동네를 순찰하고 있다.

중심 가로변에서는 여전히 주거지 내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내부 지역의 복잡한 골목들 사이로 공가들이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광동 지역의 공가 증대는 지역의 위험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8월14일

〈그림 4-14〉 보광동 공가 현황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 9월 19일

〈그림 4-15〉 보광동의 빈 가게

101) 2012년 6월 전화 인터뷰

## 2) 유희용지와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



출처: 조현지 촬영, 2012년8월14일

〈그림 4-16〉 보광동의 주차장



출처: 노보 아키텍처

<http://novoarchi.com/>

〈그림 4-17〉 보광동 공가가  
불에 탄 잔해

출처: 구가도시건축 <http://www.guga.co.kr/>

〈그림 4-18〉 보광동 빈 땅을 활용한 텃밭

보광동에서 빈 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공지는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공가를 철거한 곳이 빈 땅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과 같이 화재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밖에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골목의 애매한 공간이나 주거지 옥상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텃밭 활용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태이다.

## 2. 인적 자원 발굴 : 보광동 사회 구성원의 변화

### (1) 무슬림의 증가

보광동의 사회 구성원 변화에는 한남주거촉진지구의 제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의 첫 번째 변화는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무슬림의 증가이며 두 번째는 2010년대에 들어서 나타난 창작집단의 증가이다.

보광동의 무슬림 증가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슬람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이전에 이슬람중앙성원은 한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금요일의 합동 예배 때도 한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외국인은 이슬람권 국가의 대사관의 무슬림이 전부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 연수생제도를 통해 무슬림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약 천 여명의 무슬림이 금요일 합동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2010년에 이슬람중앙성원에서는 국내 무슬림의 수를 약 1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무슬림 숫자가 10만 여명정도로 추산된다. <sup>102)</sup>

한남주거촉진지구의 제정은 무슬림 상권의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sup>103)</sup> 2008년 홍승표의 조사를 기준으로 총 22곳의 무슬림 대상의 상점 중 30년 동안 입주해 있었던 할랄(Halal)정육점 외에는 대부분의 상점이 3년 이내에 입주하였다. 이는 한남주거촉진지구로 인한 투기 자본의 유입 이후, 건물에 대한 시설 투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싼 임대료가 요인이 되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권리금 없이 임대를 내어 주며<sup>104)</sup> 한국인이 입점하기 꺼리는 거리에 이슬람 거리가 형성되었다.

이슬람 거리가 형성되며 무슬림들이 주변 보광동, 한남동의 주거지로 유입되었다. 무슬림들에게 종교는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원에 근접한 주거지는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무슬림들에게 음식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서울

102) 서울역사박물관, *앞에 든 책* p. 99.

103) 홍승표,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p. 54.

104) 같은 논문, p.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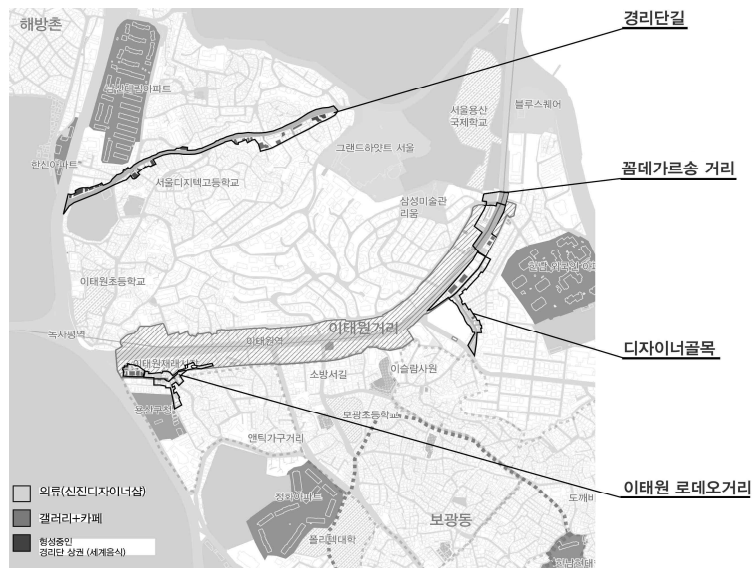
내에서 이러한 할랄 음식은 이슬람중양성원을 중심으로만 분포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 상권은 무슬림들에게 좋은 주거 조건이 된다.

## (2) 이태원 문화권역 확대와 창작 집단 유입

### 1)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구성원의 변화와 이태원 문화권역 확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이태원의 문화는 크게 변화하고 있다. 동쪽의 한남동과 북쪽의 경리단 길을 따라 이태원의 문화가 확장하고 있다. 이런 이태원의 새로운 상권들은 기존의 이태원 거리의 상권과는 달리 젊은 창작집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일기획 동쪽으로는 ‘디자이너 골목’ 이라고 불리는 신진 의상 디자이너 샵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동시에 갤러리와 카페를 병행하는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태원 재래시장 내부에도 형성되어 ‘갤러리 골목’ 을 중심으로 보세 의류 판매점과 갤러리가 늘어나고 있다. 경리단 길을 중심으로는 세계 음식 상권과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가 늘어나고 있다.



〈그림 4-19〉 확장되고 있는 이태원 문화권과 새롭게 형성된 상권

〈표 4-5〉 2010년 이후 입점한 상점들

거리명	구분	상점명	
경리단길	디자이너 스튜디오	SCALE S.E.L Creator Aspirin Uniplus	International Interior Design Design Strike Space silling & dealing
	갤러리+카페	서울살롱 OLEA	RUF XXX 테이크아웃드로잉
꼼데가르송 거리	갤러리+카페	초능력	
	의류(신진디자이너샵)	꼼데가르송 비숍	하우앤왓 르베이지 플래그십 스토어
디자이너 골목 (T자 골목)	갤러리+카페	공간해밀톤 꿀 꽃땅 WAYSOFSEEING	스트레이니저스인어스트레인지랜드 MMMG FLEEFLEE 테이크아웃드로잉
	의류(신진디자이너샵)	히어디즈파리 쇼수트라팡 미야시	바트 더 젠트로
디자이너 골목 (T자 골목)	의류(신진디자이너샵)	에르드쥬 아크바인 디 트라이앵글 컴백스테이지 쥬이케 페이퍼뮤즈 노바	아이슬랜드 스티브J&요니P 세컨무브 모자제작소 모글 테일러블 엥플래뉴
	갤러리+카페	갤러리 골목	
이태원 로데오거리	의류(신진디자이너샵)	히들어드레스 메르시 수바이아린 티아리 블루핏 더로프트 줄리엑 야크 크리스틴 바네인 A in A	101 아아이템스 드레스코드 만수스토어 오드리 폴마돈나 제이스튜디오 레비스 와이힐 자베인 아자리오 키즈스맘

## 2) 보광동의 창작집단의 유입

이러한 상황에서 보광동의 구성원은 최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존에 보광동은 이태원로와 확연히 구분되는 서민 주거지였으나 개발 예정지로 지가가 하락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왔다. 이들에게는 지역의 활력 저하가 기회 요소로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존에 보광동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주민과는 다르게 이태원로를 중요한 생활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지가 하락 외에도 이태원 문화로 인한 보광동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장점으로 꼽았다.

요새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보광동으로 올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싸서인데, 싸서만은 아니고 교통도 좋고 이태원 문화권이라는 점도 있다. 어떤 태도로 살고 싶냐 하는 게 있을 것이다. 이태원인데 이태원은 너무 비싸고, 거기에 맞는 마이너 이태원을 찾은 거라고 보면 된다. 그게 이태원과 걸어서 십 분, 한강도 보이는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숙식이 가능한 썩 곳이니까 충분히 좋은 조건이 된다. 독특한 소비층도 많아서 판매 위주의 디자인 가게가 들어서기에도 좋은 입지인거 같다.

2012년 9월 19일 보광동 작가와의 인터뷰

여기서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많고 그래서 눈에 안 띈다고 해야 하나. 여기서는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무슨 행위를 하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2012년 9월 21일 보광동 작가와의 인터뷰

1층에 입점하여 외부로 드러나는 보광동의 새로운 창작집단은 다음과 같다.

〈표 4-6〉 1층에 입점한 보광동의 창작집단

공간명	설명	년도
사원 앞 카페 벗	젊은 청년의 기업 활동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인 〈청년 장사꾼〉의 1호점	2012년 9월
워크스(WORKS)	디자이너 작업실과 위탁판매숍. 종종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한다.	2012년 5월 19일
노동연구소	개인 디자인 스튜디오	2012년 7월
한남그리기	한남동이 재개발되기 이전에 그림으로 그를 담으려는 목적을 가진 동아리의 작업실	2011년 4월
이태원 가정집	건축 업무를 하는 개인 거주지. 옥상을 누구에게나 개방해놓았으며 텃밭, 평상 등이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주민들과 김장 담구기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공간 공유 사회적 기업 FAIR SPACE에 등록되어 있다.	2012년 6월 15일
길종상가	목공소, 직물점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운영하는 공간	2010년 12월
청석슈퍼스튜디오	이슬람중앙성원 앞에서 도배박사라는 작가 레지던스, 전시공간을 운영하였으나 도깨비 시장 골목에 있는 청석슈퍼로 이전하였다. 미술 전시를 진행한다.	2012년 3월
철수네 도예공방	도예 작업실로 판매와 도예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	2011년 11월





〈그림 4-20〉 워크스(WORKS)와 길종상가

위의 공간들과 같이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공간을 작업실 등으로 활용하여 드러나지 않게 보광동에 유입되어 있는 창작집단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슬람중앙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우사단로 10길의 옥탑에는 패션 업계 종사자들이 주거지 겸 작업실로 많이 입주해 있다.

*이 근처 옥탑 얻으러 돌아다녔는데 다 예약이 두 명 이상 되어 있다고 들었다. 요즘 이 근처에 작업실을 얻으려는 주변인들이 많아서 나도 졸업하는 시기에 맞춰 이곳으로 오려고 한다.*

2012년 5월 19일 워크스 오픈에서 만난 패션 디자인 전공 학생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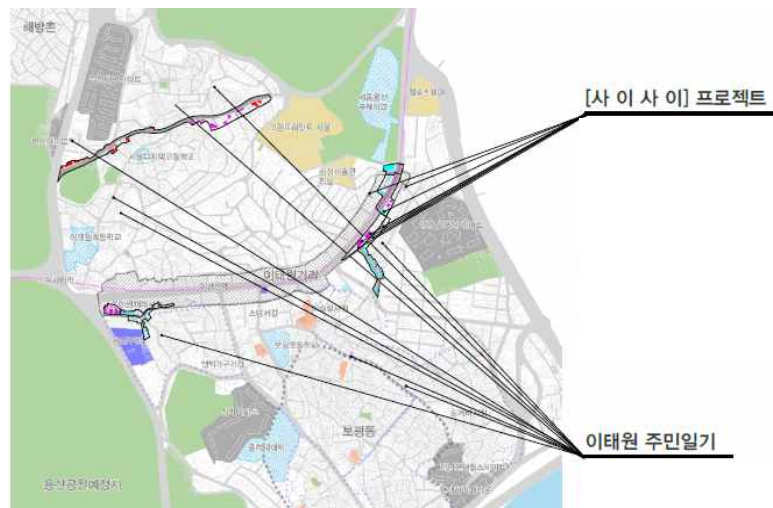
*왜 젊은 애들이 자꾸 옥탑을 찾는지 모르겠다. 요즘 다른 빈방도 많은데 꼭 옥탑으로 오겠다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다. 저기 옥탑에서도 매일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친구 불러서 고기를 먹곤 한다.*

2012년 8월 24일 우사단로 10길 부동산업자와의 인터뷰

### 3) 지역 네트워크 형성과 일시적 공간 활용 증대

이런 구성원의 변화 속에서 보광동을 포함해 이태원 문화권 일대에서는 창작 집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2011년부터 진행된 이태원 주민일기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디자이너 골목을 중심으로 사이사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호응을 얻으며 확장되고 있다.





〈그림 4-21〉 이태원 문화권에서 형성되고 있는 문화 네트워크(Network)

### ① 이태원 주민일기

이태원 주민일기는 이태원의 젊은 작가 9명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각자 이태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업들을 엮어서 책으로 출판하였다. 이태원 주민시장과 이태원 주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태원 주민시장 1회는 작가 개인의 집 옥상에서 진행되었다. 주로 주변인 위주의 판매 행사였으나 주민일기 출판 이후 호응을 얻으면서 2회와 3회는 이태원 2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주민시장에는 외국인을 비롯한 이태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용산구에 따르면 총 48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다.<sup>105)</sup>

이태원 주민학교는 주민시장 이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콜마이네임(Call My Name)’, ‘뉴패밀리(New Family)’, ‘윈도우페인팅 앳 홈(Window Painting at Home)’이라는 세 개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네이밍 워크숍(Naming workshop), 사진 워크숍, 윈도우 페인팅(Window painting) 워크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는 지역의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수업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105) “용산구, 이태원 주민시장 480명 이용”, 『문화일보』 (2012년 4월 23일자 기사)

## ② 사 이 사 이 프로젝트

사이사이 프로젝트는 2010년 이후로 형성된 디자이너 골목과 폼데가르송 골목의 초능력 카페를 중심으로 13개의 디자이너 스튜디오(Studio)가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하루 동안 각 공간 마다 공연과 영상회, 타투(Tattoo)샵, 베희시장과 오픈스튜디오(Open Studio)<sup>106)</sup>가 벌어진다. 관람객은 직접 소품을 만드는 데에 참여할 수도 있다.

2회째에 접어들자 기존의 13개 공간 이외에 주변의 카페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는 점차 확장되고 있다. <sup>107)</sup>

또한 그들의 활동 무대로서 도시 이벤트를 비롯한 일시적 공간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 중 사이사이 프로젝트와 이태원 주민일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이태원 주민시장 외에는 지역 중심의 협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다.

〈표 4-7〉 이태원 지역의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지역	프로젝트명	설명	공간	기간
일시적 공간 활용	한남동	꽃땅	창고를 활용한 공연 공간	유희시설 (창고)	2011~
	한남동	공간 해밀톤	가구 창고를 활용한 전시 공간	유희시설	2010~2011
	보광동	이태원 가정집	개인 가정집 옥상을 공공에게 개방	데드 스페이스 (옥상)	2012~
	보광동	SUP	보광동의 공가를 활용한 그래피티 작업	유희시설 (공가)	2012
	보광동	청석슈퍼스튜디오	슈퍼를 활용한 전시 공간	유희시설	2012~
지역이벤트 성격의 일시적 공간 활용	이태원동	이태원 주민시장	이태원 주민일기 팀의 주민시장	데드 스페이스 (옥상) /공공공간 (주민센터)	2011~ (총 3회)
	보광동	워크스 과자전	위탁판매숍 워크스에서 판매자들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과자 판매전	공공공간 (가로)	2012~ (총 2회)
	한남동	한남 골목 건축제	노보 아키텍처에서 진행하는 거리 점거 행사	공공공간 (가로)	2011~ (총 3회)
	한남동	[사 이 사 이] 프로젝트	13개의 디자이너 스튜디오가 참여하는 베희시장 및 문화 예술 프로젝트	공공공간 (가로)	2012~ (총 2회)

106) 작가의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여 작품 과정을 공개하고 전시하는 일

107) 2012년 11월 10일 인터뷰

하지만 대부분 일시적 공간 활용의 용도가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 도시 이벤트(Event), 공연 시설 등 문화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력을 통해 직접 개입하지는 않아도 공간의 이용자는 이러한 창작집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창조적 분위기가 이태원 지역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처: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노보 아키텍처 공식 페이스북 /이태원주민일기 공식 홈페이지 <http://2tw.1px.kr/>  
 (2012년 9월 7일 마지막 접속)/초능력 공식 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wingfish/110101657188> (2013년 1월 13일 마지막 접속)/SUP 공식 페이스 북  
**<그림 4-22> (좌측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남골목건축제/1회 이태원 주민시장 / 2회 사이사이 프로젝트 / 공간 해밀톤 / SUP의 보광동 공가를 활용한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 1/스트리트 아트 2**

### 제3절 가능성 성장 : 보광동의 문화주체 육성 과정

#### 1. 지역과 관계 맺기 과정

가능성 성장 과정은 문화주체와 공간을 결합시키기 위한 협의 과정으로서 중요한 것은 공간 프로그램(Program)의 중심이 되는 문화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보광동 대상지의 답사와 지역의 관찰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젊은 창작 집단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인적 자원을 일시적 공간 활용의 중심 주체로 고려하였다. 기존에 구성된 공동체는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활동 중이며 보광동의 경우는 개인적 친분 외에 공식적인 공동체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보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창작집단 중 접촉이 가능하고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진 집단과 연락을 취하였다. 이 그룹은 세 명의 작가로 구성되어 주로 설치와 비디오 작업을 하는 창작집단이며 타 집단과 마찬가지로 보광동에 유입된 지 2년이 채 안되었다.

이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주변의 창작집단을 연계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벤트를 구성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을 모집하여 서로를 확인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는 가능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를 개입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림 4-23〉 회의 과정

〈표 4-8〉 진행과정

9월 18일 / 9월 19일 / 9월 21일 / 9월 22일 : 인터뷰 진행 공간  
 9월 27일 / 10월 1일 / 10월 2일 : 이벤트 기획 회의 진행  
 10월 6일 : 포스터 부착  
 10월 8일 / 10월 9일 / 10월 10일 : 디스플레이, 셋팅

지역의 문화주체들을 모집하는 일은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저녁에 보광로에 면한 상가의 옥탑방과 옥상에서 이루어졌다. 이 공간은 보광동 지역의 젊은 작가 그룹이 작업실로 활용하고 있던 공간이며 옆의 빈 방<sup>108)</sup>과 옥상을 일시적인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획을 진행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총 36명의 사람이 참여했으며 보광동 지역의 주민을 비롯하여 이태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행사의 내용과 홍보 장소의 특징으로 대체로 전시 기획, 문화 기획, 작가, 음악가,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연극 등 예술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림 4-24〉 전시 공간과 옥상공간

〈표 4-9〉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직종 (익명처리하였음)

이태원 카페 주인, 한남동 “사 이 사 이” 프로젝트 기획자/ 보광동 전 주민, 영국 유학, 패션디자이너/ 보광동 주민, 사회적 기업 창업 준비 중 / 이태원 전시장에서 기획전 준비 중, 문화 기획자/ 보광동 주민, 일러스트레이터 / 한남동 주민, 사진가/ 보광동 지역 작가 작업실 문하생 / 보광동 주민, 연극 배우 / 보광동 주민, 연극 분장 / 보광동 주민, 비디오작가 / 보광동 주민, 설치 작가 / 회화 작가 / 잡지 디자이너 / 전시기획자 / 포크 음악가

108) 옆 방은 약 2년간 세가 나가지 않아 비어 있다.

전시 상영과 동시에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4-25〉 발표와 질의응답

이들은 주로 보광동에 이주한 이유를 이태원 문화권으로 인한 자유분방한 분위기, 또한 거주지로서 한강, 남산과 가깝다는 지역적 이점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싼 집값을 언급하였다. 쇠퇴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위험하게 느끼기 보다는 밤새 시끄럽거나 해도 제재가 없다는 이유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기존 주민들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주민들과 친해져 생활이 침해받거나 간섭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다. 그 반면에 이태원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작가들 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여기에 대학가기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대학시절에는 학교 근처에서 살다가 다시 보광동에 작업실을 얻었다. 몇 년 사이 보광동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특이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재밌어졌다. 하지만 쇠락한 분위기는 여전하고 안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묘사는 더 심해진 것 같다.*

2012년 10월 10일 인터뷰 중

*나는 연극을 하는 사람이다. 보광동에 이사 온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원 근처에 자주 놀러오곤 했다. 특이한 전시나 공연 등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서 주로 꽃밭 등에 방문하였다. 이사할 시점이 돼서 방을 구하던 중에 평소에 좋아하는 곳이고 싸서 이곳에 얻었다. 주변에 연극하는 친구들은 주로 대학로 쪽에 거주한다. 오늘도 길가다가 포스터를 보고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왔다.*

2012년 10월 10일 인터뷰 중

나는 정릉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태원 블루스퀘어나 근처에서 전시 기회를 자주 한다. 20대가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했는데 재개발 예정 구역만 돌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사 하는 것이 지친다. 정릉 집이 재개발 되면 이쪽으로 와야 하나 싶다.

2012년 10월 10일 인터뷰 중

이태원의 다양성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먼저 생각난다. 외국인들이 참여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든 주민들이든 작가들이든 서로 완전히 섞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들은 요즘 이런 요청을 많이 받는데 주로 보여주는 건 능숙한 우리들 쪽이고 주민들은 대체로 관객으로만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도 적다. 아래층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2012년 10월 10일 인터뷰 중 (질의응답)

문화주체의 측면에서 보광동 지역에 젊은 창작 집단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접촉이 중요하다.

## 2. 지속적인 관계 맺기 방법

지속적인 접촉을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지역 문화 플랫폼(Platform)을 설정하거나 지역 잡지를 활용, 혹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을 활용한 홍보가 있다.

### ① 지역 문화 플랫폼(Platform) 활용

이태원의 경우 지역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꽃땅이나 카페 눈 등이 이러한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문화주체가 몰려드는 장소로 주변 지역의 주체들을 소개시켜주기도 하며 단골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지역 잡지 활용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소개하는 지역 잡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역은 주로 홍대나 해방촌, 서촌, 문래동과 같이 독특한 지역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공이나 상업적 주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단순히 지역의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의 역할을 넘어서서 지역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홍대 스트리트 H의 경우 매달 발품을 팔아 지역 지도를 만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홍대 상권에서 이런 변화의 기록은 홍대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서촌의 서촌라이프와 시옷 같은 경우에 서촌의 생활 역사 문화를 담고 있다. 이런 지역 잡지는 기존의 타 미디어와는 달리 일상적 삶에 더 초점을 맞추므로써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창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태원의 경우 ‘사이사이 프로젝트’에서 동네 잡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1회 이후 웹진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아직 안정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테이크 아웃 드로잉(Take Out Drawing)’은 매달 자체적으로 문화 예술 소식을 담은 잡지를 펴내고 있다. 한남동점과 녹사평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일상생활을 담는 목적 보다 예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전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전시 프로그램의 주체가 된 지역 작가의 인터뷰를 실은 홍보 잡지를 발행하는 일이었다. 이에 여러 번의 인터뷰에 걸친 내용을 정리하고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잡지를 발간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주로 작가의 작업 의도와 목표에 대한 설명과 보광동 지역에 대한 주민으로서의 인상과 의견, 지역과 작가의 관계에 대한 의견들로 구성되어 있다. 발간된 잡지를 지역 단골 상권이 형성된 꽃땅이나 카페 눈에 배포하였고, 당일 새롭게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의 대부분은 이런 장소를 통해서 잡지를 보고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존에 이태원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문화 기획자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다음의 인터뷰를 원하는 지역



주민과 연결되면서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 맺기의 방법으로 지역 잡지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4-26〉 배포된 인터뷰 잡지

### ③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수요층을 끌어들이기에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에 페이스 북(Face Book)과 웹진(Webzine)<sup>109)</sup>을 통해 취지를 홍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통해 보광동의 이태원 가정집 이야기, 한남동의 사이사이 프로젝트 등과 의견 교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



〈그림 4-27〉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이용

109) 웹진, <http://findingpeoplemakingplace.com>

## 제4절 일시적 공간 활용 구체화 : 보광동의 가능성

### 1.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대상지의 성격은 크게 첫 번째로 재개발 예정지구, 두 번째로 생활 주거지, 세 번째로 다문화 지역, 네 번째로 새로운 창작 집단 유입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발 예정지라는 것을 배경으로 공간 활용의 주체나 이용자로서 지역 주민, 다인종 공동체, 창작 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공간적 특성은 대형 야외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희용지보다는 소규모 유희시설, 즉 공가 위주로 유희공간이 발생해 있으며 공공 공간도 어린이 공원 등 소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막힌 골목이나 옥외 주차장 등 잘 활용되지 않는 데드 스페이스(Dead Space)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4-10〉 보광동의 공간 특성

구분	유형	세부유형	개소
공공공간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2개소
		학교	보광초등학교 <sup>110)</sup> 오산중고등학교 폴리텍제1대학정수캠퍼스 3개소
	공공건축물 외부공간	관공서	보광동 주민센터 보광동 우체국 보광파출소 보광동청소년공부방 3개소
		종교시설	보성교회 보광중앙교회 천주교 이태원교회 보광동교회 이슬람중앙성원 보광사 6개소
유희공간	옥외주차장	공영주차장	2개소
	유희용지		
	유희시설	공가	약 127개소
	데드 스페이스	옥상 막힌 골목 자투리공간	

사회 구성원의 특징은 지역 주민, 다인종 공동체, 창작 집단으로 이 중 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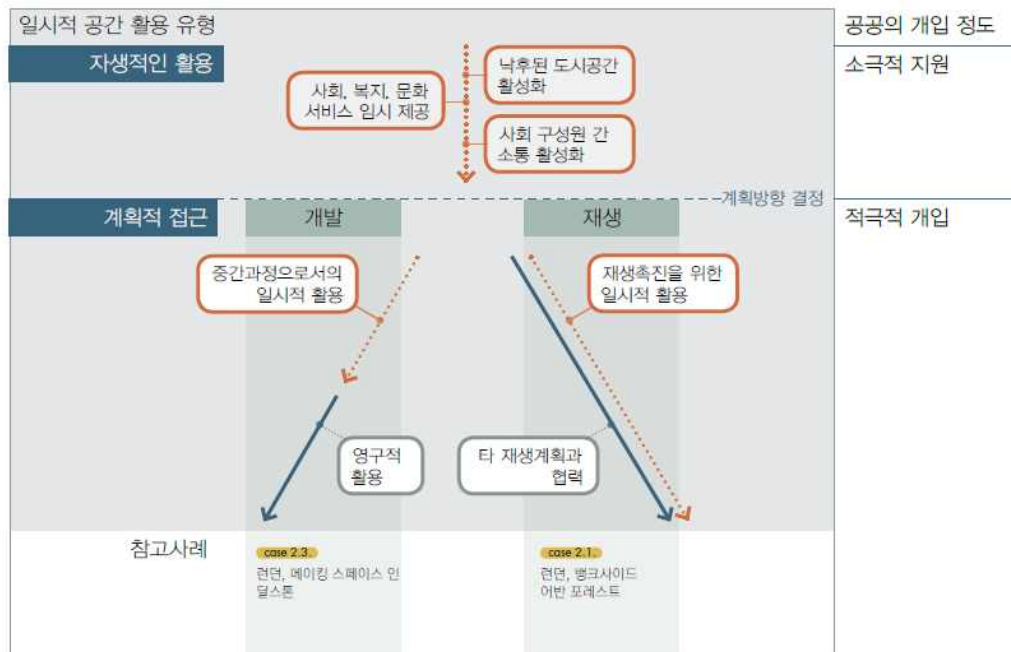
110) 이 중 보광초등학교와 이슬람중앙성원은 행정동상으로는 한남동과 이태원제1동에 포함되  
지만 보광동과 경계선상에 있어 포함시켰다.

러 지역 주민은 한남주택재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와해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이태원이나 주변 지역의 문화 활동에 소외되어 있다. 다인종 공동체는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종교적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으며, 창작 집단은 최근의 이태원 지역 변화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중에 문화주체로서 가능성이 큰 것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창작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 성장 과정을 통해 이들과 기존 주민 사이의 관계 형성이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이미 2006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6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반대 여론으로 인해 재검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sup>111)</sup> 2013년도 초에 사업 중단 혹은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사업 재개 결정이 나더라도 향후 5년 이상 지역은 개발 과정상에 있게 되며, 중단 결정이 난다면 지금의 낙후된 환경 개선을 위한 점진적인 개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를 떠나서 답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도시의 삶에서 가장 큰 실질적인 문제는 결정만 존재하고 과정에 대한 관리는 없는 상태에서 도시공간의 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주민의 삶은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각기 다른 수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

111) “한강변 50층 재개발 줄줄이 무산되나”, 『매일경제』 (2012년 11월 21일자)



〈그림 4-28〉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1) 자생적인 활용 : 공공의 소극적인 개입

현재의 낙후된 도시공간을 활성화시켜 개발 과정 동안 지역의 슬럼화 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극적 수준의 일시적 공간 활용이 있다. 이는 주민 공동체가 적극적인 문화주체로 참여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오랜 개발 기간 동안 사회, 복지,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임시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해 각 사회 구성원 간 소통이 활성화 되는 것은 계속해서 구성원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느슨한 도시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는 향후의 계획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도 계획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계획적 접근 :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장기적 계획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포함하는 방안은 좀 더 적극적인 수준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향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된다.

- 개발 : 개발을 앞둔 상황의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와해된 공동체

를 재구성하고 미래의 계획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이에는 향후의 토지 용도에 따라 공공공간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재생 : 이는 자발적 움직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동체의 형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일시적 공간 활용은 주변 지역의 도시적 맥락을 훼손하지 않고 도시공간을 재활성화 할 수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또한 지역의 쇠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2.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

### (1)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중 현재 개발 계획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서 가능한 자생적인 활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이 공간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구체화 과정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접근은 각 주체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일방적인 예상에 근거한 디자인이 아니라 협력과 그 과정을 통한 디자인이 일시적 공간 활용의 핵심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특정 공간을 물리적으로 구체화 하는 것보다 공간과 지역 문화주체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표 4-11〉 일시적 공간 활용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 유형	활용주체와 주 이용자	사례
미술	미술가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안공간 눈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청년문화	젊은 층을 위한 프로그램	자립음악생산조합 여성환경연대
도시농업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	Rebar 뱅크사이드 어반 포레스트
야외 여가 활동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	Rebar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로잔 자넝
이주자를 위한 문화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 서비스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벼룩시장	지역 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	여성환경연대 자립음악생산조합

이 프로그램들은 보광동 지역의 가능성 찾기와 육성 과정을 통해 살펴본 지역의 문화주체와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각 프로그램 유형별 공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12〉 프로그램 유형별 공간 특성

프로그램 유형	옥외공간			실내	참고 사례
	공공공간	데드 스페이스 (Dead Space)	유희용지	유희시설	
미술				●	1.1,1112)
				●	1.1.2
				●	2.1.2
				●	2.1.4
청년문화				●	1.3.1
				●	1.3.2
				●	1.3.4
		●	●	●	1.3.3
도시농업			●		2.1.3
			●		2.1.5
		●			1.2.1
	●	●			1.2.2
야외 여가 활동			●		1.4.3
			●		2.1.1
			●		2.1.6
			●	(유희시설철거)	2.2
			●		2.3.1
		●			1.4.1
		●			1.4.4
	●	●	●		2.4
●				1.4.2	
●				1.4.5	
사회서비스	●				2.3.2
벼룩시장	●				1.2.3

① 미술 : 미술 프로그램을 위한 문화주체는 가능성 육성 과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보광동 지역에서 늘어나고 있다. 활동 지역은 보광동보다는 이태원 거리와 그 북쪽에 한정되어 있지만 보광동 지역의 작가들도 그 네트워크(Network)에 참여하고 있으며 점차 확장하고 있다.

미술 프로그램엔 작가 육성을 위한 레지던스(Residence)나 전시를 위한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또는 스트리트 아트(Street Art)나 도시 이벤트(Event)의 미술 프로그램 등 지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sup>113)</sup>



출처 : 동네미술관 공식 블로그

〈그림 4-29〉 용산구 청파동 〈동네미술관〉

② 청년문화 : 청년문화는 이태원 지역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태원 지역은 클럽(Club) 문화가 발달해있는 지역으로 현재에도 사이사이 프로젝트 등 도시 이벤트에 이러한 공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 이태원 거리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활용하면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는 소공원 등의 공공공간이나 유희용지 등 야외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유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112) 본 논문의 3장 참조.

113) 유사한 사례로 보광동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지역인 용산구 청파동의 빈 점포를 활용한 동네 미술관이 있다. 이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자생적 사례이며 자신의 빈 점포를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주변 지역 주민이 재개발을 기대하고 보유하고 있던 5개의 점포를 추가적으로 빌려주었다. 이 공간은 현재 지역 주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 공간으로 주민 간 사회적 접촉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도시농업 : 도시농업은 청년들의 대안적 삶에 대한 탐색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보광동 가정집’의 옥상 텃밭을 가꾸고 있는 젊은 농부들이 그러한 예이다.

그 외에도 텃밭은 보광동의 일상적인 행위이다. 보광동의 주민 구성원 중 대부분이 노인 인구이며 현재도 옥상이나 골목의 애매한 공간들에서 텃밭 가꾸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농업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텃밭 가꾸기 행위를 공동체 텃밭을 통해 수집하여 조성할 수 있다. 어반 오차드(Urban Orchard)<sup>114)</sup>와 같이 이를 다시 교환하고 돌려주는 순환의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의 소통과 여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야외 여가 활동 : 야외 여가 활동은 야외 스포츠(Sports)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외에서는 트랙(Track) 등을 임시로 설치하고 보드 등을 즐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는 대규모의 공지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있다. 보광동의 경우 이런 대규모의 공지는 학교 시설 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야외 여가 활동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보광동에 아동들의 야외 놀이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보광동 아동들은 도로와 골목에서 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야외 여가 활동에서는 보광동의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sup>115)</sup>

---

114) 본 논문의 3장 3절 참조.

115) 유사 사례로 메이킹 스페이스 인 달스톤 프로젝트에서는 질릿 스쿼어를 활용, 일시적으로 아동을 위한 soft play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호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출처 : <http://www.gillettsquare.org.uk> (2013년 1월 4일 마지막 접속)

〈그림 4-30〉 달스톤(Dalston)의 질렛트 스퀘어(Gillett Square)

⑥ 이주자를 위한 문화 : 이주자를 위한 문화는 국내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 내 다인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태원 지역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슬림을 비롯해서 한국 사회 내에서 주류가 아닌 외국인 커뮤니티(Community)는 이태원 지역을 종교적 커뮤니티, 혹은 인종 커뮤니티를 통한 ‘문화적 피난처’<sup>116)</sup>로 여기고 있다. 또한 이 커뮤니티를 통해 주류 사회, 즉 한국인 커뮤니티와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이전에 미군들을 위한 상권 등은 형성되어 있었지만 최근 늘어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세계음식 상권 등 외에도 생활 문화를 반영하여 이주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접근은 타 지역에 비해 사회적 안정을 위해 보광동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⑦ 사회 서비스 : 사회 서비스는 어린이의 돌봄과 노인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 서비스의 측면에서 보광동 지역의 사회 구성원 중 기존 거주민은 주로 노령인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공간 논의 사례와 같이 지역 노인과 젊은 작가를 연결시켜 치유 미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주민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마찬가지로 보광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과 연결시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sup>117)</sup>

116) 홍승표, 앞의 논문, p. 98.

117) 유사한 사례로 도쿄의 칸다 프로젝트(Kanda Project)와 같이 지역 대학인 수도대학도쿄를 중심으로 주변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Jeffrey Hou,



출처 : *Re-city*

〈그림 4-31〉 Kanda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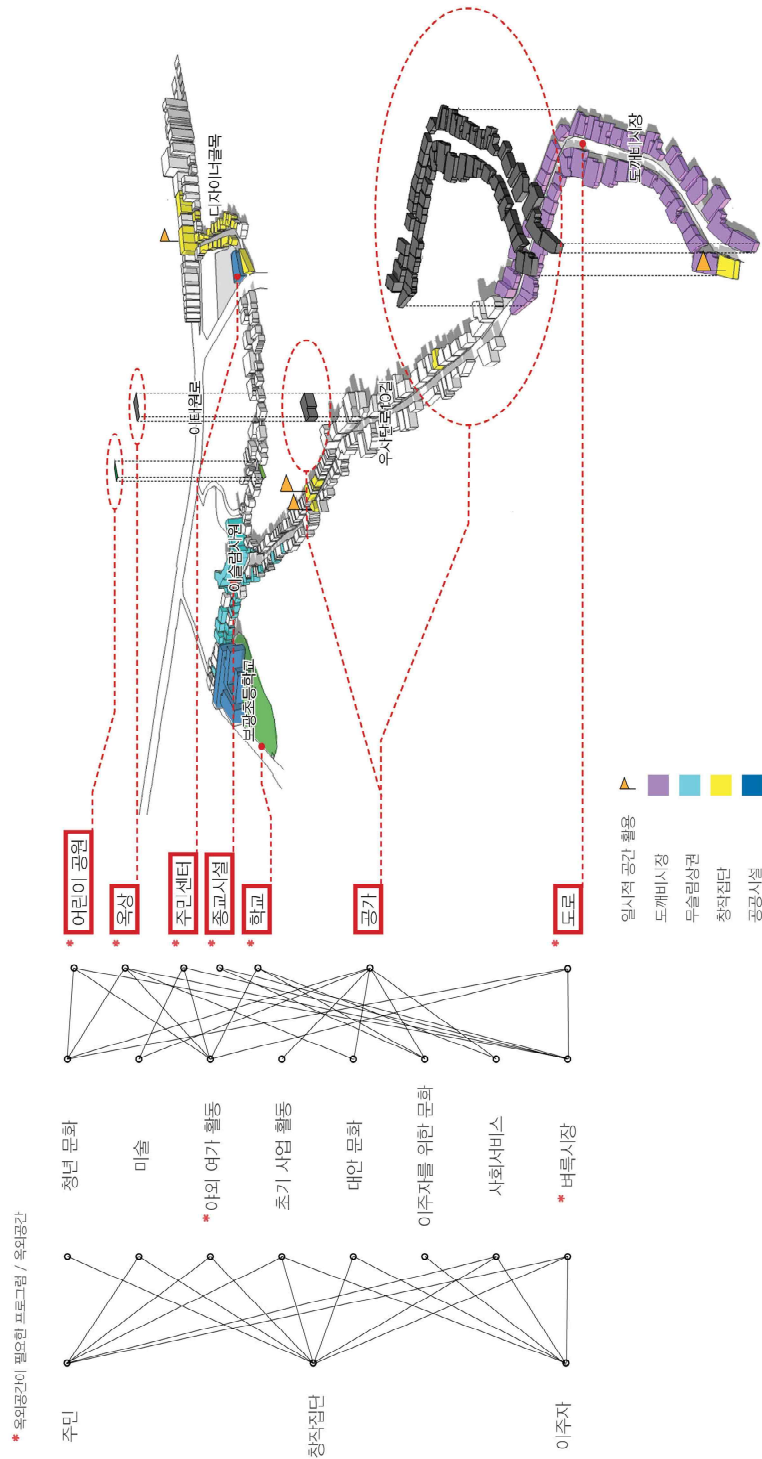
⑧ 벼룩시장 : 벼룩시장은 이태원 지역의 경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태원 주민 시장이나 앤틱(Antique) 가구 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벼룩 시장, 또는 사이사이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도 벼룩시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태원 거리 축제에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참여하여 세계음식을 거리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벼룩시장은 단순한 판매 장소 제공의 의미보다 여러 주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각 공동체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안적인 문화 활동의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미술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 공간 활용은 기존의 주류 미술계에서 할 수 없었던 실험적인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공격적인 삶에 대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상업적 공간이 아닌 곳에서의 음악 활동도 대안적인 문화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안 문화는 도시의 행위를 다양화 하고 창의적인 의견 교환에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의 창조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소외된 집단의 사회적 발언 기회를 제공한다.

대안적인 문화 활동은 여러 가지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이태원 지역의 특성 중 하나이다. 소수 젠더(Gender) 문화, 다문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소수 문화가 이태원에서 형성되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 사례는 많다. 이는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태원의 관용적인 태도에 기초한다. 이와 같은 이태원의 지역 특성은 일시적 공간 활용의 프로그램들에 가능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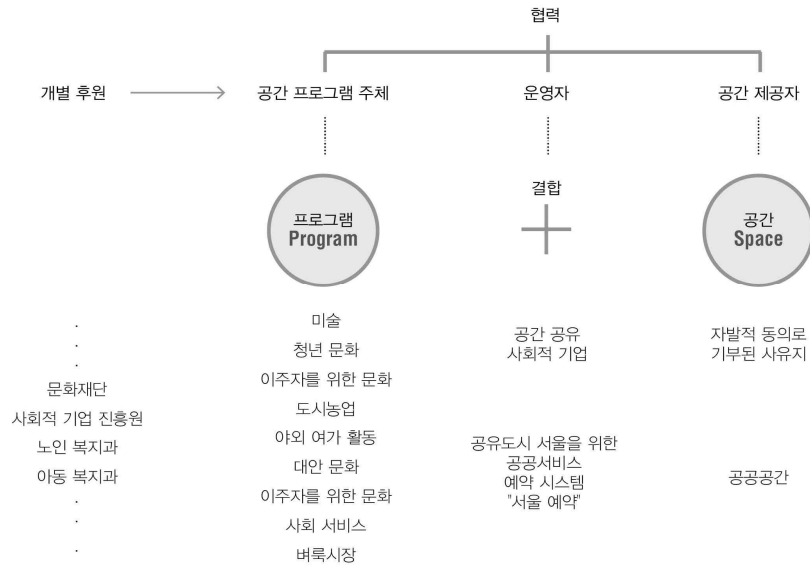
---

*insurgent public space* (New York: Routledge, 2010), pp. 71-80.)



〈그림 4-32〉 우사단로 10길을 중심으로 한 유희공간/ 공공공간과 일시적 공간 활용 프로그램(Program) 적용을 위한 개념도

(2) 프로그램 지원 방안



〈그림 4-33〉 프로그램(Program) 지원 가능성

국내에서는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 방안이 미비한 상태이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지방당국, 혹은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안공간 논의 경우 노인정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을 노인 복지과의 지원으로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미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간소유주와의 자발적인 동의 과정에서는 시가 중간자 입장에서 공간 공유 센터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20일 ‘공유도시 서울’을 발표하고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인 서울 예약을 통해 자치구의 공공공간 216개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 될 예정이다.<sup>118)</sup> 그 밖에 해피 스페이스(Happy Space), 페어 스페이스(Fair Space)등 공간 공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유지도 자발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루 단위 등 단발적인 일시적 활용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118) 이는 강당,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야외 공원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산구의 경우 이촌한강공원 한군데만 이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예약 공식홈페이지 <http://yeyak.seoul.go.kr/main.web>)

## 제5절 종합 :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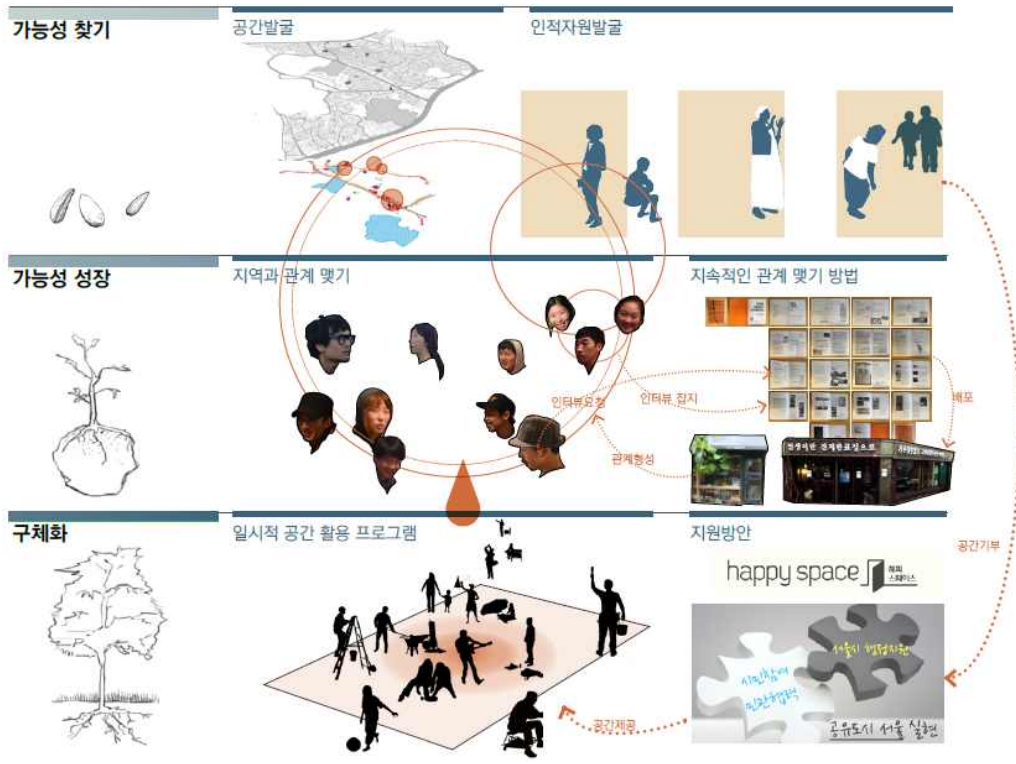
용산구 보광동은 현재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지역으로서 약 6년간에 걸친 재개발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광동에서 늘어나고 있는 빈 공간들은 지역의 활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쳤다.

이의 첫 번째 과정인 가능성 찾기의 주요 목표는 공간 발굴과 인적 자원 발굴이다. 지역의 기존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특히 일시적 공간 활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공간과 유휴공간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의 중요한 공간 활용주체가 될 수 있는 보광동의 사회적 구성원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인 가능성 성장 과정에서는 일시적 공간의 활용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가능성 찾기 과정을 통해 파악한 사회적 구성원 중 일시적 공간 활용의 주요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젊은 창작집단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확장하고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세 번째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구체화 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정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공간 활용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인터뷰와 관찰에 기초하여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본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해본 결과 현재 보광동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일시적 공간 활용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와해되고 있는 주민 공동체감을 존속시키며 개발의 압력 속에서 공공에게 방치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림 4-34〉 보광동의 일시적 공간 활용 과정

## 제5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이후 도출된 고려사항을 통해 실제 대상지인 용산구 보광동을 중심으로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특성이 여러 주체의 협력 과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도시 공간의 실제 이용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계획적인 활용 사례는 그 이후에 등장하였다. 하지만 공공에서 주도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일시적 공간을 작동시키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보다도 실제 이용자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저비용, 짧은 조성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시 이용자의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공간만 존재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많은 도시공간들에 대한 비판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일시적 공간 활용의 국내외 사례를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성공적인 국내외 주요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 개를 통해 공간 제공자, 공간의 활용주체, 그리고 그를 연계하는 중간 주체의 협력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고 결과적으로 일시적 공간 활용이 주변 도시 맥락 속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해 낸 현대 도시환경에서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재발견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킨다. 일시적 공간 활용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비어있는 땅, 빈 건물, 혹은 이용도가 낮은 공공공간 등이다. 이렇듯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시공간들은 낙후되어 주변 지역의 안전과 활력까지 위협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시민의 활동을 담는 장소로 변화시키며 도시의 활력과 다양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일시적 공간 활용은 협력을 통해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대도시들은 성장기를 지나 예전과 같은 신속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도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시민이 실제 공간 활용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도시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저비용으로 시민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빈 공간의 활용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유지, 증진 시킨다.

셋째, 일시적 공간 활용은 비공식적인 대안문화를 증진시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육성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기존에 체제화 되어있는 용도 내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도시농업이나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기 어려운 다양한 문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실험실과 같다. 이는 획일화 되어있는 도시의 생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며 삶의 방식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한다.

그와 동시에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적 디자인으로서 일시적 공간 활용의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대상지인 보광동 지역의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일시적 공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간 활용의 주체를 육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sup>119)</sup> 일시적 공간 활용에는 공간을 제공하는 주체와 공간을 활용하는 주체, 그리고 그를 사이에서 결합시키는 주체가 참여한다. 각 주체간의 협력은 일시적 공간 활용에 필수적이며 특히 성공적인 사례의 경우 공간 활용의 주체가 성장하고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계획적 접근의 경우에도 시민을 포함한 공간 활용의 주체를 육성하고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공간 구성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된다. 대부분의 일시적 공간 활용은 이러한 협력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실패하여 단발적인 시도로 그치게 된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성되었을 경우 공간을 이동하거나 확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119) 본문에서는 '가능성 성장'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협의 과정을 수월하게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이 중요하다. 국외의 경우 자생적인 사례인 경우에도 공공에서 협력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침들을 마련하고 있다.<sup>120)</sup>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 국내의 경직된 체제로 일시적 공간 활용 대부분이 불법적인 상태이다. 모든 일시적 공간 활용을 공공의 지원 체제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공간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시민이 직접 도시공간의 활발한 이용을 이끌어 냈을 때 공간의 본래 의미인 사회적 접촉이 증진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행위를 통한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셋째, 국내에서도 도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광동과 같은 재개발 예정 지역의 쇠퇴는 국내 개발 문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존 혹은 개발의 두 측면만을 놓고 관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시적 공간은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sup>121)</sup>

협력적 디자인의 관점에서 본 도시공간의 일시적 활용 방안 연구로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일시적 공간 활용은 하나의 단일한 시점으로 사례들을 분석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영향관계가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많아 단일한 틀로 일시적 공간 활용 사례를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이 과정은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나치게 일반화 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일시적 공간 활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면밀한 스토리텔링일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로 일시적 공간 활용의 사례 중 많은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나서 일어나기

---

120) 이에 대한 해외 제도 고찰은 부록을 참조.

121) 보광동과 같은 국내의 환경에서의 일시적 공간은 '임시적 공간'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다루는데 '임시적 공간 활용' 이 그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일시적 공간 활용' 을 Temporary use의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깊이 다룰 수 없는 범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지에 대한 제안에서 불가피한 비약이 존재하며, 급진적인 제안처럼 보일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가능성의 타진 정도로만 접근하게 된 한계점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지원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자생적인 일시적 공간 활용은 국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사례 등을 참조하였지만 유럽의 유희공간 발생과 보광동의 유희공간 발생은 맥락의 차이가 있다. 이는 공간소유주의 공간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공공이 지원하는데 있어서 유럽의 사례가 바로 대응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상지를 통해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과정은 국내의 도시 상황을 파악하고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일시적 공간 활용은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지만 최근 도시설계, 조경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슈들과 맥락을 함께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도시 이용자를 위한 도시공간, 시민을 주체로 한 도시공간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도시 유희공간의 재조명 등의 논의들이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 연구는 일시적 공간 활용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고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여 이후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기초적인 자료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의의로 삼는다. 특히 현재와 같이 개발 속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공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보았을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예상하며 본 연구가 그를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되길 바란다. 이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거나 미흡하게 언급된 다양한 측면의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강(2008), 『(삶과 예술의 실험실)스콧=Squat』, 서울: 문화과학사
- 김우창(1993),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 서울: 민음사
- 서울역사박물관(2010) 『이태원 : 공간과 삶』, 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 Bishop, Peter and Lesley Williams(2012), *The Temporary City*, London: Routledge
- Chase, Keighton John et al.(2008), *Everyday Urbanism*, New York: The Monacelli Press
- Denton, Jill(2007), *Urban Pioneers*, Berlin: Jovis
- Franck, A. Karen and Quentic Stevens(2006), *Loose Space*, London: Routledge
- Gehl, Jan(2010), *Cities for People*, Washington: Island Press
- Haydn, Florian and Rober Temel (2006), *Temporary Urban Spaces*, Boston : Birkhäuser
- Healey, Patsy, *Collaborative Planning*, 권원용(역)(2003), 『협력적 계획』, 서울: 한울
- Hou, Jeffrey(2010), *Insurgent Public Space*, London: Routledge
- Landry, Charles(2006), *The Art of City Making*, London: Earthscan
- Neuwirth, Robert(2004), *Shadow Cities*, London: Routledge
- Parry, Ben(2011), *Cultural Hijack : Rethinking Intervention*, Liverpool : Liverpool University Press
- Roberts, Peter and Hugh Sykes(2000), *Urban regeneration*, London: Thousand Oaks
- Schwarz, Terry(2009), *Pop Up City*, London: Cleveland Urban Design Collaborative
- Scott, C. James, *Seeing Like a State*, 전상인(역)(2010), 『국가처럼 보기』, 서울: 에코리브르

## 연구보고서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2010), 『한국 도시의 쇠퇴실태와 특성』,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
- 박세훈, 정소양(2012), 『국토정책 brief』, 국토해양부
- 이상민, 고은정, 임유경(2008), 『공간환경디자인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이상민, 엄운진(2011), 『도시 생활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방안 및 매뉴얼 개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Mark, Stern and Seifert Susan(2007), *Cultivating Natural Cultural Districts*
- Muf Architectur/Art, J&L. Gibbons LLP(2009), *Making Space in Dalston*
- Urban Unlimited Rotterdam(2004), *The Shadow City : Freezones in Brussels and Rotterdam*
- Witherford Watson Mann Architects(2008), *Bankside Urban Forest*

## 학술지 수록논문

- 김광중(2010), “한국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3(2): 43-58
- 김찬호(2000),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전환과 의사소통이론”, 『사회발전연구학회지』, 6(12):167-196
- 오준걸, 김광현(2011), “유희 입체공간의 개념과 ‘공간재생’ 계획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7(273):87-95
- 이경환, 안건혁(2007),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 과정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학회지』, 42(2):7-15
- 이정형, 송준환(2009), “기성시가지 도시재생에 있어 도시촉매수법(Urban Catalyst)에 관한 연구”, 『대한도시설계학회논문집』, 25(1):233-244
- Evans, Graeme(2005), “Measure for Measure: Evaluating the Evidence of Culture’s Contribution to Regeneration”, *Urban Studies*, 42(5-6):959-983

## 학위논문

- 백나영(2003),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남대문시장 유희공간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승지현(2004), 『현대도시의 이벤트 공간에 관한 연구 : 설치기법적 특성의 도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희택(2011), 『문래동의 장소성 변화와 문화 매개 도시재생 가능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우태(2002), 『우리나라 가설 조경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서울의 업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미(2012), 『일시적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유희공간 활용 방안 연구: 홍대복합역사 개발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표(2008), 『종교를 매개로 형성된 한남동 이슬람 거리와 외국인 무슬림 커뮤니티의 문화적 피난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부 록

###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접근 방법 (해외 제도)

일시적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는 그를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 국내의 경우 오랜 개발 문화로 인해 기대심리가 여전히 팽배한 상태이며 일시적 공간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적은 상태에서 이런 개별적인 움직임들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보광동과 같이 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이 안정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계획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계획적 접근의 일시적 공간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시적 공간 활용을 이와 같은 계획의 테스트(Test) 단계로만 여기면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테스트를 위한 실행은 단기간 내에 수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안정화와 체계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많은 프로젝트는 그것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모두를 기관의 지원체제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일시적 공간 활용은 계획가 한 사람의 관점을 넘어서서 실제 도시공간 안에서 이용자의 욕구가 발현되는 과정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런 일시적 공간 활용의 의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공공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자세는 도시공간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약화 시키고 지역의 자유를 보완하고 있다. 그 중 도시설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 계획과 무관하게 자유롭고 유연한 도시공간 활용을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크게 계획의 시간 체제 안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과 유연한 활용을 위한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 • 계획의 시간 체제 안에서 일시적 공간 활용을 허용

첫 번째 접근 방법은 계획이 지연된 경우 자발적으로 그 공간을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예는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베를린(Berlin), 비엔나(Vienna)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시당국은 그린 디벨롭먼트 협의(Green Development

Agreement)를 통해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는 시당국에서 디벨로퍼(Developer)에게 5년 혹은 8년간 현재의 착공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적 체계나 재정적 측면에서 도움을 얻도록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착공 자격은 특히나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디벨로퍼(Developer)에게 3년 주기로 갱신하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은 큰 유인책이 되고 있다.<sup>122)</sup> 일시적 공간 활용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 일시적 활용이 공공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영국의 부동산 정책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건축 허가 기한이 지나기 전 이의 연장을 바랄 경우, 이에 대한 더 나은 임시적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2010년 봄에 시장 상황이 더 호전될 때까지 임시 활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독일의 제한 시기 건축권(Baurecht auf Zeit : A Right to Build for a Limited Time)은 기한 내 건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시 내에 더 집약된 이용을 위해 단기간, 장기간의 다양한 개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방 당국과 재생 사업에 있어서 가능한 일시적 공간 활용을 공모를 통해 탐색하고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베를린 시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리겐샤프트폰 베를린(Liegenschaftsfond Berlin)의 경우 최근에 일시적 공간 활용을 위한 세부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sup>123)</sup> 이는 건설 간격 관리(Building-Gap Management)라는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건물을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빈 건물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sup>124)</sup>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2004년도에 마련되었으며 2009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사회에서 빈 공간에 대해 즉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 소유주가 반대하지 않는 한 주소와 거리이름, 토지 대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게시하기 한 달 전에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친다.

비엔나 시정부의 경우 ‘즉시-다중적인(einfach-mehrfach : Just-Multiple)’이라는 전략 프로젝트로 일시적 공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도시 개발 계획의

122) Peter Bishop, Lesley Williams, *op. cit.* p. 217.

123) 리겐샤프트폰 베를린(Liegenschaftsfond Berlin) 공식 홈페이지

<http://liegenschaftsfonds-berlin.de/> (2012년 11월 27일 마지막 접속), Urban Catalyst, *op. cit.* p. 181.에서 재인용

124) 리겐샤프트폰 베를린(Liegenschaftsfond Berlin) 공식 홈페이지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bauen/baulueckenmanagement/de/gesetzlich.shtml> (2012년 11월 27일 마지막 접속)

일부로 199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위한 자유로운 놀이 공간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주요 목적 하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주요목적은 첫 번째로 복합사용(Multiple use)과 두 번째로 일시적 사용(Temporary use)이다.<sup>125)</sup>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비엔나 시에서는 7가지 조건을 거론한다.

**〈표 부록-1〉 비엔나 ‘즉시-다중적인(einfach-mehrfach : Just-Multiple)’ 전략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일시적 활용을 위한 조건**

- 
- ① 누가 이 공간의 소유주인지 확인할 것
  - ② 누가 주요 사용자인지 확인 할 것
  - ③ 누가 추가적인 이용자가 될 가능성을 가졌는지 확인할 것
  - ④ 얼마나 기간이 필요한지 확인할 것
  - ⑤ 돌봄이 필요하다면 (청소년과 어린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경우에) 어떤 그룹이 관리에 참여할 것인지 확인할 것
  - ⑥ 여섯 번째로 보안 장치가 필요한 경우 누가 관리할 것인지 확인 할 것
  - ⑦ 일곱 번째로 누가 청소나 관리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확인 할 것
- 

시 정부가 일시적 공간 활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참여에 개입시키기를 추천하는 그룹은 다음과 같다.

**〈표 부록-2〉 비엔나 ‘즉시-다중적인(einfach-mehrfach : Just-Multiple)’ 전략 프로젝트에서 제시된 일시적 활용에 개입할 수 있는 그룹**

- 
- |           |                 |
|-----------|-----------------|
| ① 소유주     | ④ 자문을 구할 전문가 그룹 |
| ② 관리자     | ⑤ 후원자           |
| ③ 지역 커뮤니티 | ⑥ 시 당국          |
- 

비엔나 시에서는 이의 확인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서를 연결해주고 있다. 참여 주체와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서는 각기 다른데 각 부서마다 일시적 활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선 공원담당 부서(Park and Gardens), 도시농업 담당 부서(Forestry Office and Urban Agriculture City of Vienna), 스포츠 여가 담당 부서(Sports Office), 그리고 교육과 과외 어린이 돌봄을 위한 부서(Education and Extracurricular Youth Care)가 있다.

많은 유럽 도시에서는 계획의 지연 과정에서 시민, 혹은 디벨로퍼가 일시적 공간을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 수준의 유희공간 정보 공유부터 적극적인 구체적인 매뉴얼 제시까지 다양한

---

125) 비엔나 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wien.gv.at/stadtentwicklung/projekte/mehrfachnutzung/index.html> (2012년 11월 27일 마지막 접속)



정도로 나타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개발의 지연 과정에서 빈 공간의 출현이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유연한 활용을 위한 구역을 마련

일시적 공간 활용은 지역 단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몇몇 지방당국에서는 특별히 유연한 접근이 가능한 토지 용도를 마련하여 이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특수한 지역에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캐슬(New Castle) 부근의 오스본 밸리(Ouseburn Valley)<sup>126</sup>나 덴마크(Denmark)의 코하우징(Co-Housing) 사례에 이르기 까지 많은 지역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자유구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지역의 재생을 위해 최소한의 정부 개입과 묵인 정책으로 법적 허용 안에서 도시민들에게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스본 밸리의 경우 오스본(Ouseburn)이라는 작은 강을 끼고 있는 영국의 뉴캐슬 부근의 지역으로, 1970년대의 거대한 산업 유산이 남겨져 있다. 이는 2000년도에 보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지역의 창조적인 예술 커뮤니티(Community)가 이를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의 창조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스본 트러스트(Ouseburn Trust)가 결성되어 지역의 재생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오스본 트러스트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들의 자산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희공간의 쇄신을 위해 그들을 활용하도록 하는 자치규약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일시적 활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유구역의 인정은 도시에서 지역민이 지역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지역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경관협정의 활용 등을 통해 유사한 자치 규약을 구성할 수 있다.

---

126) 오스본 밸리(Ouseburn Valley)는 오스본 트러스트(Ouseburn Trust)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재생사업을 시작하여 주변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Ouseburn Valley 공식 홈페이지 <http://www.ouseburnnewcastle.org/> 2013년 1월 3일 마지막 접속)

## **Abstract**

### **A Study for Temporary Use of Urban Spaces Focused on Collaborative Design : The Case of Bogwang-dong, Yongsan-gu**

Advised by Prof. Kyung-jin Zoh

December 2012

Hyun ji Cho

M.L.A Thesis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spective for metropolitan areas is gradually changing through the judgment and criticism of previous one-sided plans. City planning in the modern era involved removing unknowns and uncertainties through control procedures. City planners sought to remove personal insecurities, presenting human everyday life to appear as well-ordered . However, in reality, everyday urban life consists of fragmented events. And, if they make sense of “place” .

Conversely, some researchers acknowledge a role for temporary activities or interim phases of development . Temporary activities

utilize abandoned and neglected urban space through the cooperation of various entities. Temporary uses for the abandoned and neglected urban space function as a gap-filler that can vitalize the city. Temporary uses value and seek to build on what is already on site, nurturing everyday urban life .

The intent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emporary uses for abandoned and neglected urban space.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collaborative design of temporary use. The distinct feature of temporary use results from the cooperation of multiple agents. Therefore, the study draws on the considerations of temporary use as a collaborative design. The primary method of the study is a case study analysis approach. The considerations drawn thorough the case study apply the district of Bogwang-dong, Yongsan-gu to explore this issue.

The study analyzes eight successful temporary uses derived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he analysis consists of two parts: process of the collaborative design and spatial analysis.

In the modern urban environment temporary use as a collaborative design derive significance. First, temporary use promotes the vitality of the city through the rediscovering of abandoned and neglected space. The temporary uses are mainly aimed at revitalizing abandoned land, empty buildings, or abandoned and neglected public space threatening the safety and vitality of the surrounding area. Temporary use is changing these areas to place containing activities, and have a positive role for cultural diversity and vitality of the city .

Second, through collaboration, temporary use can respond quickly to the city in the transformation process. In many cities, rapid full-scale

development could not continue because of increased pressure on scarce resources, and increased interests on sustainability for smaller communities. However, citizen desires are rapidly changing. Citizens onc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emporary use as a main agent, and it helps the quick understanding or grasp of the changing everyday city and the needs of citizens . Therefore, temporary use can respond immediately to the needs of the citizen with minor costs .

Thirdly, temporary use enhances informal way of life and can promote an alternative lifestyle . Temporary use can play the role as a laboratory of life that can embrace minor activities such as a urban agriculture. Temporary use can provide a rich and diverse way of life instead of the homogenization of modern city life.

Temporary use is emerging concept in urban design and landscape architecture, but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 lot of issues. For example, there are discussions about the urban spaces for diverse users, management of urban spaces, the use of unused and misused urban space. Therefore, the temporary use can be studied in various aspects depending on its purpose.

---

Keywords : temporary uses, urban space, abandoned space, neglected public space, collaborative design

Student Number : 2011-22354